

옥천의 누정

옥천향토사연구회 전승표

1. 서정자(西亭子)



옥천읍 서정자와 영모재

1)이름: 서정자(西亭子)

2)위치: 옥천읍 서정리 산 12-1 서정자산 정상

3)창건자: 안사전(安嗣全) 찰방

4)창건연대: 1510년(중종 5년)

5)건축물 현존: 현존안함

6)규모: 미상

7)기문: 미상

이인(利仁) 찰방 이던 안사전(安嗣全)공이 외가가 있는 옥천에 낙향하여 옥천읍 서정리 서화천이 휘돌아 가는 옥천군 옥천읍 서정리 산12-1 번지인 서정자산 정상에 조선중기인 1510년(중종 5년)에 세운 정자이다.

언젠가 퇴락하여 정자터만 남아 있던 것을 서정자 복원을 위해 2009년 12월 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 시굴조사를 마치고 발굴조사를 거쳐 복원할 예정이다.

2009년 발굴조사에 따르면 정자터에서 고려와 조선시대 기와편이 많이 발굴되었고 주춧돌로 추정되는 석재 농도 나와 목조와가 형식의 정자로 추정된다.

서정자란 정자 이름은 이 정자를 건립한 안사전공의 호인 서정(西亭)에서 붙혀졌다 하며 마을 지명유래도 서정에서 연유하여 서정리라 부르게 되었다.

서정자는 경상도 서부-추풍령-영동 회동역-옥천 가화역-증약 찰방역에서 북이나 북서 방면으로 문의, 청주, 공주를 잇는 충청대로와 경상서로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역길에 위치하였고 동서로는 상주, 보은과 옥천 청산방면에서 옥천 가화역을 거쳐 금산으로 통하는 자리적으로 중요한 교차로에 위치하고 있어 여행객의 좋은 쉼터였다.

특히 임진왜란 개전초기에 의병장 중봉 조현(趙憲)선생 휘하의 핵심참모인 전승업 선생을 비롯한 의병 참모들이 서정자에 모여 시국과 전략회의를 하였다는 기록이 정립(鄭栗) 선생이 기록한 일기인 고암집에 기록되어 있어 역사적 유서가 깊은 정자이다.

더욱이 의병장 중봉 조현선생 시집에 “이가의(李可依)가 서정시(西亭詩)에 차운하여 보이기에 느낌이 있어 차운함” 이란 한시가 「중봉집 1권」에 수록되어 더 의의를 깊게 한다.

또한 주변경관은 서화천 계곡이 구비 구비 휘돌아 가며 곳곳에 깊은 소(沼)와 아름다운 바위절벽이 펼쳐져 탁트인 절경을 이루고 있다.

한편 서정자 남쪽 기슭 큰 바위에서 낙향한 안사전공이 낚시로 소일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어 안사전공 후손들이 그곳에 비석을 세워 안공의 송덕을 기리고 있다.

순흥안씨 후손 문중에서 산기슭에 재실인 영보제를 신축하여 선대조상을 기리고 있다.

■ 시문

① 李可依가 西亭시에 차운하여 보이기에 느낌이 있어 차운함 (중봉집 권1, 중봉시 택주)

【원문】

-李可依次 西亭韻見不 有感而次之
耻學蘇秦夏衣孤 晚來走奇仲宣樓
山容개闢隨方異 雲影參差水水流
浮世低昂民物態 騷人憔悴古今愁
皇王帝伯何殊轍 郭落乾坤自盡頭

【번역문】

-李可依가 西亭시에 차운하여 보이기에 느낌이 있어 차운함
소진이 여름에 갖웃 입음 배우기 부끄러워

늘그막에 한갓되어 仲宣樓에 기대셨다
 산 모습 닫하고 열려 방향따라 다르고
 구름 그림자 들쑥 날쑥 물을 따라 흐른다
 부박한 세상 낮았다 높았다 백성들 사는 모습
 시인은 古今의 근심으로 憔? 倦하구나
 皇帝 帝伯이 어지 수레길을 달리하리
 탁트인 天地에 머리가 다 세누나

2. 동정자(東亭子)



좌측 산기슭에 있던 동정자 터

- | | |
|------------------|-------------------------------|
| 1)이름: 동정자(東亭子) | 2)위치: 옥천군 옥천읍 수북리 (오대리나루터) 기슭 |
| 3)창건자: 유경(庾京) 부사 | 4)창건연대: 1540년(중종 35년) |
| 5)건축물 현존: 현존안함 | 6)규모: 미상 |
| | 7)기문: 미상 |

동정자(東亭子)는 옥천읍 수북리 금강가(현재 대청호)인 오대리로 건너는 나루터 바로 위 산기슭에 있던 정자로 현재 둑은 밭으로 정자터만 남아 있다.

조선중기인 1540년(중종 35년) 강원도 강릉부사 였던 유경(庾京)부사가 낙향하여 이곳에 세운 정자로 동정자에서 유부사가 시서(詩書)로 소일하였다는 정자이며 주변에서 나오는 기와조각으로 보아 목조와가로 추정된다.

증원문화재 연구소에서 2009년 월 서정자와 함께 발굴 조사를 마쳐 앞으로 시굴조사 등을 마치면 옥천군에서 동정자 복원을 할 계획이다.

정자앞 발아래로 바로 동쪽에서 오리티 강여울(車灘)을 흘러 십여리를 똑바로 달려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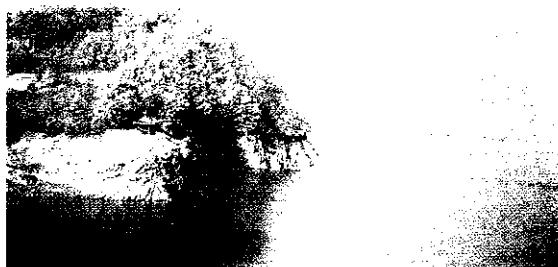
뽀얀 백옥같은 강물이 내달려와 동정자 품으로 안길듯 굽이쳐 강흐름이 절경을 이루며 갖 가지 물새들이 한가롭게 노니는 등 산수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정자아래 나루터에서 배를 타고 건너면 육지속의 섬인 옥천읍 오대리 마을에 닿아 오지마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건립 당시 옥천관아에서 동쪽으로 5리쯤 떨어진 수북리 오대리 금강나루터 부근에 이 정자를 세워 옥천읍내에서 안내 화인역말을 거쳐 화인현(보은군)-청주, 보은현, 청산현(옥천군)-상주방면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여행객들의 비바람을 피하는 좋은 쉼터로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한편 옥천읍 동정리 마을지명은 인근 금강가에 건립된 동정자에서 유래되었다.

3. 청풍정(淸風亭)



김옥균 전설이 서린 청풍정 원경

- | | |
|-----------------|---------------------------------------|
| 1)이름: 청풍정(淸風亭) | 2)위치: 옥천군 군북면 석호리 대청호반 명월암 |
| 3)창건자: 김종경(金鍾慶) | 4)창건연대: 조선후기, 1993년 4월 옥천군 재현함 |
| 5)건축물 현존: 현존 | 6)규모: 정면 3칸 측면1칸 (누마루 2칸, 방 1칸), 팔작지붕 |
| 7)기문: 없음 | |

청량한 바람과 풍광이 뛰어난 군북면 석호리 백토산(白土山) 아래인 금강가(현재 대청호) 명월암 기암절벽 위에 지어진 정자로 강과 산이 조화로움과 탁 트인 시원함이 천하절경을 이룬다.

이 정자는 조선후기에 참봉 김종경(金鍾慶) 생원이 세운 정자다.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주변에서 발견되는 기와편으로 보아 건축양식은 목조와가집 형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3년 옥천군에서 명월암 절벽 위에 정면 3칸 팔작기와집 형태로 청풍정을 재현하였으며 원래 이곳은 청풍정이 들어서기 이전에 장일암 이라는 암자가 있었던 곳이라 전해온다.

청풍정에 전해오는 전설은 조선말엽의 개혁가이며 풍운아인 고우(古愚, 고균占均) 김옥균(金玉均) 선생이 1884년 갑신정변(우정국 개국)을 일으켜 수구파 관료를 제거하여 개화파가 집권이 확실시 되는 듯 하다가 청국 군사의 무력에 앞에 개혁에 실패한 후에 기생 명월과 함께 이곳 청풍정에 내려와 소일하며 지냈다 한다.

그렇게 허구헛날 명월과 일상을 보내던 어느날 기생 명월은 김옥균 선생과 같은 국가를 개혁할 훌륭한 인물이 이런 외진 곳에서 지내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하다가 자신이 죽어 장부의 큰 뜻을 펴길 바라며 정자아래 기암절벽에서 수십길 강물에 몸을 던졌다는 애듯한 이야기가 전해온다.

이와관련 하여 옥천지역 주변에서 개화파를 지지하거나 따르는 주변인물들이 그의 갑신정변의 실패를 아쉬워 하며 만든 전설로 추정된다.

김옥균 출신지는 청풍정에서 급강상류를 따라 동쪽으로 5리가 못미치는 옥천군 안내면 인포리 결포마을 이라는 설과 김옥균 선생의 선대조상 묘소도 결포리 인근 산에 있다고 전해 온다.

갑신정변 직후 김옥균 선생이 일본으로 망명하자 왕께서 그의 부인을 비녀로 전락시키고 잡아들이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한양집에서 선대 조상묘가 있는 옥천읍내로 내려와 피신해 있다가 체포되어 옥에 갇혔다 한다.

그리고 또 갑옥에서 풀려나 옥천 이속의 비첩이 되어 사는 등 10년간 모진 고난 속에서 살다가 1894년 동학농민 전쟁 일어나자 동학군 진압차 옥천에 진주한 일본에 발견되어 통역으로 따라온 김옥균 선생의 제자가 한양으로 데려가서 이후 면천시켰다는 그 당시 일본 공사관 기록에 나와있다.

또한 후쿠자와 유키전에 밝힌 유씨부인 일기에서 선대 조상묘가 옥천에 있어 옥천으로 피신해왔다는 기록으로 등으로 보아 김옥균이 옥천출신임에 신빙성을 더한다 하겠다.

국사학계에서도 일부 학자들은 김옥균의 출신지가 어디인지 불명확하여 사료를 모아 연구할 과제라고 주장하는 현실이다.

특히 당시 옥천출신으로 한양에서 시인으로 맹활약을 하던 인근 출신 호가 옥주인 정최

선생이 평소 후손들에게 김옥균은 옥천출신이라고 말씀해 왔다며 밝히고 있어 더욱 밝혀져야 겠지만 많은 근접성이 나타나고 있다.

관찬사료를 아직도 찾지 못함이 무척 아쉽다.

4. 양신정(養神亭)



1)이름: 양신정 (養神亭)-충청북도 기념물 제29호 (1978년 12월 11일 지정)

2)위치: 충북 옥천군 동이면 신촌마을 3)창건자: 송정 전팽령(全彭齡) 상주목사

4)창건연대: 1545년 조선 인종1년 5)현존여부: 현존함

6)규모: 정면2칸, 측면 칸, 팔작지붕 목조기와집

양신정(養神亭)은 1545년(인종 1년) 봄에 전팽령(전팽령) 선생이 밀양부사를 그만두고 고향에 돌아와 있을 때 본인이 독서도 하고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옥천 동이면 금강가에 위치한 목담 호수가에 세운 정자다.

“양신(養神)”이라 함은 명성과 이익을 피하고 물려나 쉰다는 결연한 뜻이요. 또한 한가롭게 산림(林下)에서 쉰다는 계획이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인 1597년(선조 30년) 전쟁중에 불타 없어진 것을 1620년(광해군 12년)에 다시 건립했으나 1733년에 무너졌다.

이후 양신정은 1828년(순조 28년)에 다시 지은 것으로 정면 3칸, 옆면 2칸의 팔작기와 집으로 목담영당 동편 언덕 숲속에 있다.

한편 주변의 목담서원은 관성군 전유(全侑), 송정 전팽령(全彭齡)과 충간공(사서공) 전식(全湜)의 영정을 모시고 춘추 제사지냈다. 보직은 10명이 있고 무인년에 지었다.

① 【원문】 소쇄양의 양신정기(養神亭記)

邑于漢之南據名勝者多矣而惟沃爲崔山峻而水勵上沃而田良豪傑才之智士彬彬輩出蔚爲世用

而惟

全氏兄弟爲之冠聯名金榜畫英雲路瓊枝玉樹輝映朝端而其季叔老爲白眉之秀冰霜操履雪月襟期每醉榮避勢退

托林下0然有終焉之計家在赤登津下流乃於江河斷岸之上構小亭扁而養神夫人之後心志疲精神奔走於聲利之，

場者外慕誘之也君遭遇清時早紓0緩可謂顯矢而猶謙然不自以爲慊視爵祿如浮雲家徒四壁猶畏人知餘嘗恨，

朝家用之不盡其才也晚牧尚邑考以崖間特捷堂上以寵之餘方賀見知於世將大其所施抗又棄歸高臥享上臚君子之出處，

非一若值盛際躋廡仕猶0邱0自餘僅見於君矢方外0熙亦沃人也0來彼此時通聞0君曾舍享記於餘以，

賴廢今因熙歸書此而爲簡并投端律二首其江山之勝登覽之賞餘0一寓目焉倘有從君遊尚能爲君賦之

② 【원문】 소쇄양 시 2수

宦拙羣欽後亭幽獨眺餘雲山心共遠水月性俱虛樹暮歸捷鳥波清看躍魚高名微
宸極重疊下

0書道在身常泰家貧樂有餘孤亭凌亭四面逼清虛僧乞長腰米江收縮頃魚柑懷查川陸聯寄數行書

- 참고자료 : 沃川邑誌(1730년대 발간)-養神亭記

5. 적등(원)루(赤登院樓)



- 1)이름: 적등(원)루(赤登院樓)
2)위치: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금강가 산기슭
3)개축자: 최선문(崔善門) 옥천군수
4)개축연대: 1449년(세종 31년)연대
5)건축물: 현존안함-옥천향토사연구회에서 적등루터에 표지석 세움
6)규모: 목조기와 2층누각(1층 방, 부엌)
7)기문-서거정 적등원루기, 한시-조준(趙浚), 이직(李稷), 정이오(鄭以吾)

옥천군 이원면 원동리 적등진 나루가 있고 여행객이 쉬어 가던 적등원에 있던 누각으로
금강의 적등나루를 왕래하던 많은 여행객들에게 요간한 휴식처였다.

적등루에 올라 백옥같은 적등강(금강상류)의 드넓은 백사장과 강물 위를 오르내리는
물새 그리고 오가는 나룻배를 내려보는 조망이 무척 아름다워 많은 묵객들이 발길을 머물고
사가정(四街亭) 서거정(徐居亭) 선생이 쓴 적등원루기가 전해온다.

이 기문에는 「옥천은 한양으로부터 충청도로 가고 충청도로부터 경상도로 가는 길목이
어서 사신과 여행자들이 오가는 말굽과 수레가 날마다 서로 잇달아 군 동남쪽 30리 쯤에
속읍이 있으니 이산(현 이원면)이란 곳에 큰 강이 있어 넓이가 수십리를 가로질렀으니 적
등이라 한다.

적등 강가에 원이 있고 누각이 있으니 참으로 큰 길거리의 중요한 곳에 자리잡고 있다.
더위와 추울 때, 비바람 치는 날 여행중 고단할 때, 마소가 모자라거나, 도둑 염려가 있을
리 없고 적등원루에 올라 쉬고 구경하며 묵기도 한다.

건물이 퇴락하여 거의 없어질 지경에 정통 기사년(1449년, 세종 31년) 화성(和城) 최선

문(崔善門) 신입 옥천군수가 이곳에 행차하여 누각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옥천고을 사람들과 돈을 모으고 자신도 보태여 스님들이 노역으로 적등원 누각을 개축하기에 이르렀다.

이 당시 개축된 누각의 규모는 3칸이 크고 넓고 부엌이 달려 있어 머물며 잠잘만한 곳이 되며 전에 누추하고 좁고 퇴락하였던 것이 얼마나 우뚝 솟았는지 이리로 다니는 길손이 최군수의 턱을 찬양하였다.

적등원루와 관련하여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조준(趙浚), 이직(李稷), 김종직(金宗直), 정이오(鄭以吾) 등의 한시가 있으며 인근에 망선대(望仙臺)가 있었다 전해온다.

① 이직¹⁾(李稷)- 형제시집 권4 (亨齊詩集 卷四)

【원문】

제목 : 적등루에 오르다. (登赤登院樓 등적등원루)

往來行旅日千千 강래행례일천천

爭渡江頭一雙船 쟁도강두일쌍선

更上赤登俱得句 경상적등루상망

自鷗閣泛鏡中天 백구한범경중천

【번역문】

오가는 길손들이 하루에 반명이 넘어

다투어 강을 건너는데 배는 한척 뿐

다시 적등루에 올라 시를 지으니

갈매기도 한가로이 물 가운데 떠 있구

② 김종직(金宗直)- 佔畢齊集 詩集 卷十一

【원문】

赤登樓 和大虛 적등루 화대허

□□春江上 風吹亂碧漣

綠楊烟冉冉 黃犧靄草茅錦

故國將寒食 貧居只博田

□門還在望 空泳白雲篇

1) 이직(李稷 1362~1431년) : 고려 조선조 문신, 호는 형제(亨齊), 본은 성주, 예문관제학을 지내고 태조 이성계를 도와 개국공신 3등, 대사헌, 이조판서, 좌의정을 역임

③ 조준²⁾(趙浚)-적등루(赤登樓)

【원문】

棲樓六月路三千

野渡無人獨上船

採芭出師誰得計

赤登樓下水如天

【번역문】

적등루에서 쉬어가는 6월달 삼천리 길에
나루에 사람 없어 혼자서 배에 오르네
나물 캐고 군사를 내는데 뉘라서 계교를 얻었는가
적등루 아래의 물이 하늘에 닿았네

④ 정이오(鄭以吾)

【원문】

自愧年來石二千

不如官渡濟入船

水禽尙壓前阿近

兩兩分飛割碧天

【번역문】

스스로 부끄럽네 이즈음의 군수노릇(石二千)

저 나루에 사람 건너는 배만도 못한 것이

물새들도 앞에서 꾸짖음이 가까움을 싫어하는 듯

쌍상이 날아 푸른 하늘을 쪼개네

2) 조준(趙浚 1346~1405년) : 고려 조선조의 문신, 호는 조제(弔齊), 평양 벼슬은 대사헌을 지내고 태조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 개국공신 1등으로 평양백에 봉해졌고 문하시중, 오도도통사, 영의정부사를 역임하고 「경국육전」편찬에 참여함

6. 백운정(白雲亭)

- | | |
|--------------------|------------------------------|
| 1)이름: 백운정(白雲亭) | 2)위치: 옥천군 청산면 백운리 |
| 3)창건자: 최00 청산현감 개축 | 4)창건연대: 1440~1470년(세종~성종) 추정 |
| 5)건축물 현존: 현존안함 | 6)규모: 미상 |
| 7)기문-우암 송시열 기문 | |

① 【원문】 김수온 식우집 권2 (金守溫 拭疣集 卷二)

제목 : 청산백운정기(青山白雲亭記)

吾鄉去青山 僅十餘里 而余之往來也 必有 其宇下 故夫人之來縣○務者 吾未有不面焉以交 今年夏 崔君觀政于青 適及二稔 折書于乖崖子 曰 今改東軒上小亭 公所曾上處也 蓋名亭而而記義 使兩縣子弟誦之乎 余復之曰 名公之亭 必用字牧之意 夫字民牧民 乃君夙夜心于是而期於 實效 將以應監司 將以承 壽化 則君於字牧 心厭之矣 欲以甘澹泊守清 素 以礪恥爲義 則日介恥與 尚不敢苟焉 而冰蘖之操 君所裕爲也 亭臨 曠野 近帶大川 ?明月抱清風 以騁眺望者 固斯亭之清景也 恥以名亭 而矣 而然亦非亭之大者也 夫縣號青山 若名縣亭 不以白雲而恥他義 非博物君子也 何則 青山未有無白雲 白雲未有無青山 古人之詩曰 青 山青青白雲外 白雲白白青山中 此之爲也 縣在高山臣水之間 重峯疊嶂 鬱鬱蒼蒼 君若晨上斯亭之上 衡吁而望 白雲有蒸而生 空蒙然靉靆然 須曳白衣 須曳如蒼狗 其出也無心 其行也無迹 青山愈青 白雲益白 情境陶陶 有不可名言者矣 世有愛青山白雲者 傳神於屏障者 君以宰青山而上白雲亭 君豈非活畫中一箇儒仙也 恥 余以老病 五六度上箋乞骨 徒蒙 上恩 許歸桑樺 得與君一酌於斯亭之上 蒼顏黃髮 尤有宜於青山 白雲也 詩曰 闢址坤靈望北宸 松椽芽蓋不知民 山圍古縣青當戶 雲對高亭白悅人 苦竹未堪留彩鳳 芳전可慰王賓 蒼顏況復兼華髮 早晚歸來乞退身

【번역문】

우리 고향이 청산에서 떨어지기 겨우 십여리에서 내가 왕래할 적에는 반드시 그 정자 아래를 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감무로 있는 이를 내가 알고 사귀지 않는 사람이 없다.

급년 여름에 최군이 청산에 와서 정사를 한지 마침 2년이 되었는데 괴애자에게 글을 보내기를 “이제 동현 위에 있는 조그만 정자를 고쳤는데 이곳은 공이 일찍이 올라 놀던 곳이니 어찌 정자니 이름을 부치고 그 뜻을 써서 두 고을 자제들로 하여금 외우게 하지 않으려는가?” 했다.

나는 회답하기를 “그대의 정자에 이름을 짓자면 반드시 원이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뜻을 써야하겠는데,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것은 그대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 여기에 마음을 두어서 실효를 얻어 장차 감사하게 응하고, 장차 성화를 받들어 펼 것인 즉 그 대가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데는 필연 이미 충족했을 것이, 담박한 것을 달게 여기고 청소한 것을 지켜서 염치를 가다듬는 것으로 하자니, 한 개의 물건을 취하고 주는 것도 오히려 구차스럽게 하지 않아서 병벽같은 지조는 그대가 넉넉히 하는 바가 아닌가.

정자가 넓은 들에 임하고 가까이는 큰 내를 띠었으며 밝은 달을 더위잡고 맑은 바람을 안아서 조망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진실로 이 정자의 경치니, 이것으로 정자의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을 듯 하나 이것도 정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대체 고을 이름을 짓는데 백운이라 하지 않고 딴 뜻을 취한다면 이는 박물군자가 아니로다.

왜 그러한가 하면 「청산에는 백운이 없는 데가 없고 백운이 있는데에는 청산이 없는 데가 없다. 옛사람의 시에 ‘청산은 백운 밖에 푸르고 푸르며, 백운은 청산 속에 희고 희다.’ 한 것이 이를 두고 말함이다.」

이 고을은 높은 산과 큰 물 사이에 있어 겹겹한 봉우리와 침침한 뒷부리가 울울하고 창창하니. 그대가 만일 새벽에 이 누 위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면 하얀 옷과 같고 금시에 또 푸른 개와 같이 할 것이다.

그 나오는 것이 무심하고 그 다니는 것이 자취가 없이 푸른 산은 더욱 푸르고 흰 구름은 더욱 희어 정경이 도도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을 것이다.

세상에는 청산과 백운을 사랑하여 병풍에 그것을 그리는 자가 있다. 그대는 청산의 원으로서 백운정에 올랐으니, 어찌 산 그림 속의 한 유선이 아니겠는가?

나는 늙고 병들어 대 여섯 번 글을 올려 물러가기를 청하였으니, 혹 상은을 입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신다면 그대와 함께 이 정자 위에서 술 한잔 마셨으면 창안백발이 더울 청산에, 백운이 마땅할 것 이로다.

② 【원문】 신광한 기제집 권6 (申光漢 企齊集 卷六)

題青山縣白雲亭 제 청산현백운정
天作名區擅勝形 천자명구단승형
주根自雲今望斷 주장백운금망단
故國回首萬山青 고국회수만산청

③ 【원문】 임방 수촌집 권5 (任傍 水村集 卷五)

제목-過東추白雲亭 (과동추백운정)
朱蘭隱啖大江漬 주란은영대강분
縹々危亭號白雲 표사위정호백운
文章富貴俱陳迹 문장부귀구진적
秋樹肅肅夕照曛 추수숙숙석조훈

7. 이지당(二止堂)



조현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던 이지당

• 충북 유형문화재 제42호

- | | |
|-------------------------|-------------------------------|
| 1)이름: 이지당(二止堂) | 2)위치: 옥천군 군북면 이백리 33번지 이지당 마을 |
| 3)창건자: 인근 마을유림 | 4)창건연대: 조선중기 |
| 6)정면 7칸, 측1칸, 양측면 2층 누각 | 5)복조기와집 |

이지당은 조선중기 성리학자이며 의병장인 중봉(重峰) 조현(趙憲) 선생이 후학을 가르치던 장소로 건물구조는 전면 7칸에 양측면 칸에 2개의 2층 누각을 지어 누대로 사용되었다.

처음 건립당시에는 인근 마을 학동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치던 각신서당으로 건립되었다. 각신서당은 각신리의 지명에서 연유하였으며 계사(癸巳)년에 우암 송시열(宋時烈) 선생 농춘당 송준길(宋浚吉)이 이곳에 유람하는 등 많은 유림들의 한시를 남겼으며 이지당 건립기인 기문도 현재 장계국민관광지 옥천향토 자료전시관에 보관되어 있다.

송시열 선생은 이지당(二止堂) 이란 어월을 사서삼경 중의 하나인 시전(詩傳)에 있는 “산은 높으면 우리리 보지 않을 수 없고 큰 행실은 그칠 수 없다”는 고산양지(高山仰止), 경행행지(景行行止)라는 문구에서 끝의 지(止)자를 따와서 이지당(二止堂)이라 하였다.

세월이 흘러 퇴락한 이지당을 1901년(고종 광무 5년)에 옥천읍 옥각리 금, 이, 조, 안(琴,李,趙,安)씨 네 문종에서 재건하여 오늘에 이른다.

■ 시문

① 【원문】 중봉 조현 선생 시문

水麗山明地	수려산명지	風高葉洛秋	풍고엽낙추
徜徉提督趙	상양제독 조	憔悴廣文周	초수광문주
幸值仙翁集	행치선옹집	間携童子遊	간?동자유
悠然成一醉	수연성일취	乘月步長洲	승월보장주

② 【원문】 우암 송시열 시문

新構臨江此	신구임강차	山頽間幾秋	산 간기추
犬衢箕尾遠	천구기미원	人世歲星周	인세세성주
事業朱書裏	사업주서리	淵源德水遊	연원덕수유
平生勤仰止	평생근양지	今日立汀洲	금일입정주

참고문헌: 옥천읍지, 중봉 조현 유헌구곡

8. 후율정사(後栗精舍)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후율정사터

위치 :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도래밭터

중봉 조현선생이 보은현감을 끝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후학을 가르치고 학문을 하기 위해 1588년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밤티 가산계곡에 목조에 지붕은 갈대의 일종일 떠풀을 사용하여 지은 땅집을 지어 처음 후율정사(後栗精舍)라 명명하였다.

천성산 기슭에 자리잡은 후율정사의 마을입구에는 하늘의 천기를 보았다는 유상지석(遊賞之石)이 있으며 평소 즐겨 마셨다는 용촌샘물을 재현해 놓았다.

한편 평소 많은 시를 지었던 중봉선생은 이곳 후율정사에서 중국의 무의도가의 영향을 받은 명시 율원구곡가를 지어 가산계곡과 옥천 서화천과 금강 등 아름다운 산천을 노래하였다.

▣ 시문-중봉 조현(趙憲) 율원구곡(栗原九曲) 서시

【원문】

天成老嶽閣精靈	천성노악비정령
嶽下泉流步步清	악하천류보보청
行到栗原奇勝處	행도율원기승처
武夷須續棹歌聲	부이수속도가성

【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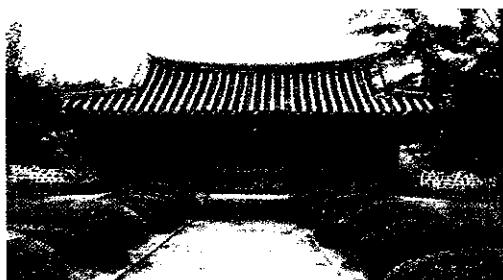
제목: 謝 李邦彦 李士基□酒見訪 사 이방언 이사기□주견방

明時莫恨且優游 명시막한차우유
 把酒論懷間幾秋 파주논회간기추
 今幸有山兼有水 금행유산겸유수
 逢□須惜歲如流 봉□수석세여류

【번역문】

구름은 산길에 드리우고 풀은 더부룩
 쓸쓸한 지당(池堂)에 낮 꿈이 떠나구나
 진중하게도 술을 들고 찾아오다니
 능부의 노래 모름지기 석양에 들어야 하리
 .참고자료:
 이상주, 「조현의 율원구곡과 율원구곡시」 해설
 변형석, 증봉시 택주, 증봉기념사업회

9. 후율당(後栗堂)



의병장 조현 선생의 위패를 모신 후율당

- 충청북도 기념물 제13호 (1976년 12월 23일 지정)
 - 1)이름: 후율당(後栗堂)
 - 2)위치: 옥천군 안내면 도이리
 - 3)창건자: 증봉 조현선생 후손과 옥천유림
 - 4)창건연대: 1588년 안내면 용촌리 밤터 창건 처음 후율정사(後栗精舍)라 부르다,
1864년 안내면 도이리로 이전, 신축하며 후율당(後栗堂)이라함

5) 현존여부: 현존함

6) 규모: 정면 3칸, 측면 1칸, 팔작지붕, 목조기와집, 면적 약20평

증봉 조현(趙憲) 선생의 위폐를 모시고 봄가을로 제사 지내는 곳이다.

증봉선생이 보은현감에서 은퇴한 후 옥천에 낙향하여 율곡 이이선생의 학문정신을 잇는다 하여 자신의 호를 후율(後栗)이라 하고 이곳에서 10여리 떨어진 옥천군 안내면 용촌리 도래밤티에 피풀로 지붕을 한 초옥을 지어 후율정사(後栗亭舍)라 부르며 그곳에 후학을 양성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호국, 살신하였다.

그후 철종 5년에 후손들이 옥천 백양동에 이전하였다가 1846년 현위치인 안내면 도리로 옮겼다가 1977년 증건했다.

- 참고문헌- 김한중, 沃川誌,, 도서출판, 김현길 충북 여지집성

10. 경율당(景栗堂)



전후회 선생 지은 경율당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2호

1) 이름: 경율당(景栗堂) 2) 위치: 옥천군 안남면 종미리 523 번지(미산마을 입구)

3) 창건자: 전후회(全後會) 4) 창건연대: 1736년(영조 12년) 5) 목조팔작기와집

6) 정면 3칸, 측면 2칸

조선시대인 1736년(영조 12년)에 전후회(全後會) 선생이 윤곡 이이 선생의 학문을 숭모하여 자신의 행실과 학문을 윤곡 선생에 비춰 보아 더욱 학문에 정진한 한다는 경책으로 자신의 호를 경율(景栗)이라 짓고 이곳에 서당을 건립하여 경율당(景栗堂)이라 하였다.

건물구조는 팔작기와 구조로 정면 3칸에 후면 2칸이며 이 서당의 건물의 특징이라면 전면에 마루를 놓고 양측면과 후면에 틇마루를 설치하여 건물이 보기보다 넓다.

경률당은 후손들의 학문연수와 인격 도장으로 활용되었으며 용궁전씨(龍宮全氏)의 재실로 사용된다.

11. 덕양서당(德陽書堂)



유식 사부공이 세운 덕양서당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24호

- 1)이름: 덕양서당(德陽書堂) 2)위치: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덕실마을
- 3)창건자: 유식(庾식) 4)창건연대: 조선중기 5)건축물: 목조팔작기와집
- 6)규모: 정면 5칸, 측면 1칸
- 7)기문: 연재 송병선(宋炳璿) 덕양서당기

옥천군 안남면 도덕리 467 번지 덕실 마을에 위치한 덕양서당은 조선 인조 때 인평대군의 사부를 지낸 유식(庾식 1586~1650년) 선생이 세웠다.

덕양서당은 덕양서원(德陽書院)이라 하기도 하며 국가에 대한 유교의 덕목인 충과 효를 가르치던 곳이다.

이 서당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1칸 팔작기와지붕 구조로 되어 있으며 1895년 중수를 거쳐 지금은 무송유씨 재실 등으로 사용된다.

조설말기에 대사현을 역임한 송병선(宋炳璿) 선생이 쓴 덕양서당기가 있다.

12. 취원정(聚遠亭)



취원정앞 올목강 봄풍경

- 1)이름: 취원정(聚遠亭) 2)위치: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지시레 마을 동남쪽 금강기술
3)창건자: 송오(松塢) 전팽수(全彭壽) 부사 4)창건연대: 1520년대
5)건축물 현존: 현존안함 6)규모: 미상
7)가문

① 【원문】 송정 전팽령(77세) 시문

初心賢聖擬同歸 초심현성의동귀
善行嘉言矢莫遠 선행가언시막원
未免鄉人成一老 미면향인성일노
徒知七十七年非 도지칠십칠년비

【번역문】

초심을 성현에 두고 함께 돌아 감을 헤아렸는데
선행과 가언(가언)의 시위는 어기지 않았다네
시골사람 못면하고 한 늙은이가 되었으니
다만 칠십 칠년 삶이 그른 것을 알았더라.

② 【원문】 송정 전팽령(77세 때) 시문

嘉訓堆床作舌耕 가훈퇴상작설경
非斯無以樂餘生 비사무이낙여생

老夫謹讀終何用 노부근독종가용

要祛胸中鄙吝名 요거흉중도인명

【번역문】

책상에 살인 아름다운 훈계로 강의하니
이것이 아니면 여생이 즐거움이 없다네
노부의 근실한 공부를 장차 어디에 쓸꼬!
요컨대 흥중의 더러운 싹을 떨어

취원정은 옥천군 동이면 적하리 지시래 마을 남동쪽 금강가 윤일봉(일봉산) 기슭에 숙천부사를 하던 송오(松塢) 전팽수(全彭壽) 선생이 1520년대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여 건립했던 정자로 기와편과 주춧돌만 남았다.

이 정자 앞으로 맑은 금강물이 흐르고 아래위 금강가에는 흰 모래밭이 10여리에 이르는 등 산수가 어울리며 적하리 금강본류와 세산천 합수머리 바위절벽에 취원정을 지었다.

특히 고려말 판도판서를 하고 이곳 적하리에 은둔하였던 전숙(全淑)판서의 6세손인 송오 전팽수, 송정 팽령, 송로 전팽조, 형제들이 벼슬살이에서 낙향하여 각각 금강가에 취원정, 양신정, 압구정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며 시서(詩書)로 소일하였다.

덕양유고(德陽遺稿)에 숙취원루(宿聚遠樓), 주새봉(周世鵬) 선생의 무릉잡고(武陵雜稿)에 시가 전하며 호음 정사룡(鄭士龍)의 유시(有詩)가 있다.

13. 압구정(押鳩亭)

1)이름: 압구정(押鳩亭) 2)위치: 동이면 금암리 금강가 용두산 기슭

3)창건자: 송노(松老) 전팽조(全彭祖) 구성교수 4)창건연대: 1530년대

5)건축물 현존: 현존안함 6)규모: 미상

7)기문-전조연(全朝涓 有詩)

옥천군 동이면 금암리 용두산(龍頭山) 아래 금강가인 압구대(押鳩臺) 절벽 위에 구성교수를 역임한 송노(松老) 전팽조(全彭祖)가 1530년대 건립한 정자로 그 터만 남았다.

14. 옥천향교 신루(沃川鄉校 新樓)



옥천향교 명륜당

- 1)이름: 옥천향교 신루(沃川鄉校 新樓) 2)위치: 옥천읍 교동리 옥천향교 남쪽 누각
3)창건자: 여산(礪山) 송을개(宋乙開) 옥천군수 4)창건연대: 1442년(세종 24년) 봄 2월
5)건축물: 현존안함 6)규모: 목조기와 9칸
7)기문: 없음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옥천향교내 남측에 세운 9칸 크기의 큰 규모 지은 2층 누각이다. 세종 때 직제학을 지냈던 경제 남수문(南秀文) 선생이 쓴 기문은 “향교가 높고 시원한 곳에 자리잡고 있으나 누대가 없어 답답한 마음을 시원케 하고 맑고 넓은 기운을 맞이하지 못하여 무더위에 시달린지 오래라” .

1442년(세종 24년)인 정통 임술년 봄 2월에 여산 송을개(宋乙開) 군수가 그것을 개탄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 목재를 다듬고 기와를 구워 남루(南樓) 9칸을 세우니 한달이 못되어 준공되었다.

“이제 선비들이 이 누(樓)에 올라 번잡한 옷깃을 씻고 막힌 생각을 풀어 글을 읽는 여기에 넓은 기운을 끌어 들이고 풍경을 관상하게 되었으니 보고 느끼는 바가 어찌 없으리오” 라고 썼다.

1592년(선조 25년) 임진왜란 때 옥천향교가 불에 타며 이 누각도 소실되어 후대에 다시 향교를 지면서 현재의 명륜당도 재건축되었다.

현재의 명륜당은 전면 5칸, 후면 3칸의 2층 누각 형태로 학생들의 학당 및 강당과 주연장으로 사용되었다.

15. 독락정(獨樂亭)



주몽득 절충장군이 세운 독락정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23호

1)이름: 독락정(獨樂亭)

2)위치: 옥천군 안남면 연주리 617 번지(독락정마을 대청호변)

3)창건자: 주몽득(周夢得)

4)창건연대: 1600년대

5)건축물: 목조기와집

6)규모: 정면 3칸, 측면 2칸

7)기문: 임재 송근수(宋近洙) 율시기문, 조선시대 심후 군수 독락정(獨樂亭) 현판이 있다.

임진왜란에 참전하였던 절충장군 중추부사를 역임한 주몽득(周夢得) 장군이 벼슬을 그만두고 1607년(선조 40년)에 낙향하여 건립한 정자다.

1772년 중수한 이래 수차례 보수가 있었다.

후에 인근 학동들을 가르치는 학당인 서당으로도 사용되었고 건물 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목조 기와지붕 형태로 지어졌고 특히 여름에 정자에 오르면 강바람이 불어와 아주 시원하고 청량하며 모기가 없어 옛선인들과 마을 사람들이 자주 찾던 정자다.

앞마루에서 금강의 푸른 물줄기가 독락정으로 흘러 들어오는 풍경은 정말 감탄이 절로 날 정도로 주변 풍광이 좋다.

그리고 독락정 강건너에는 한반도를 닮은 산이 있어 독락정 뒷산 둔주봉에서 내려보는 경치가 무척 좋아 탐방객이 발길이 부쩍 많아졌다.

독락정이란 정자 이름은 논어의 군자삼락 중 일락(君子一樂)인 “배우고 가르치면 기쁘지 않겠는가?”라는 구절에서 연유한다.

■ 시문

① 【원문】(동주)東洲先生

登獨樂亭 敬次東洲先生 卷中韻

百年顛沛病矢身	백년전패병시신	萬死行藏此水濱	만사행장이수빈
天向名亭獨樂古	천향명정독락고	渝浪一曲笑仙眷	창랑일곡소선춘
壺中有酒自爲適	호중유주자위적	今上無絃□會神	금상무현□회신
小子何知和者道	소자하지화유도	清風徒仰伯夷貧	청풍도양백이빈

② 【원문】 이제(李緯) (도암집 권3)陶菴集 卷三

新春草色動	신춘초색동	野闊大江流	야활대강류
平生同樂意	평생동락의	獨立更千憂	독립경천우

③ 【원문】 송규렴(宋奎濂) (제월당집 권1)霽月堂集 卷一

제목-한양으로 돌아가며 독락정에 오르다 (自京歸鄉 登獨樂亭)

孤亭突兀枕江淵	고정돌올침강미	人野長天面勢奇	대야자언면세기
雲際蘭峰森劍戟	운제난봉삼검을	□前流水喚琉璃	□전유수영유리
慣經畏道千重險	관경외도천중험	寧川高欄百尺危	영파고란백척위
徒倚夕陽無限興	도의석양무한흥	汀洲唯有白鳩知	정주유유백구지

16. 춘산루(春山樓)



구한말 청산군청(현 청산면 지전리)에 있던 춘산루 현판

- 1)이름: 춘산루(春山樓)
- 2)위치: 옥천군 청산면 지전리 옛청산군 군청(옛청산면사무소)내의 누각
- 3)창건자: 미상 4)창건연대: 미상 5)건축물 현존: 현존안함 6)규모: 미상
- 7)현판유무: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옥천군 향토사료전시관 전시실에 있음

17. 촌음정(寸陰亭)

- 1)이름: 寸陰亭 2)위치: 옥천군 이원면 구룡리 마을어귀 과목(느티나무) 아래
- 3)창건자: 우암 송시열, 정자이름 지음
- 4)창건일: 1600년대 중반 우암 송시열
- 5)건축물: 없음, 현대에 촌음정 정자터 부근에 마을에서 모정을 건립함

- 참고문헌: 충북 여지집성

18. 옥천 경현당(景賢堂)



금강인 적등강 하류에 있던 경현당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57호

- | | |
|------------------------|---------------------------------|
| 1)이름: 경현당(景賢堂) | 2)위치: 옥천군 이원면 구룡리 53번지(금강변 산기슭) |
| 3)창건자: 구룡리 곽, 홍, 송씨 문중 | 4)창건연대: 1697년(숙종 23년) |
| 5)건축물: 목조기와 맞배집 | 6)규모: 정면 3칸, 측면 2칸 |

이 건물은 조선시대에 이 지방의 자제들을 모아 천자문 등 초등교육을 하였고 지방 유림들의 회합 장소로도 이용되었고 학문을 공부하던 서사(書舍)로 경현당(景賢堂)이라 불린다.

1697년(숙종 23년)에 경현당과 용문영당을 건립하였으나 용문영당은 부녀졌고 경현당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흘치마 맞배지붕 형식의 납도리집으로 우측은 대청마루, 좌측은 온돌로 꾸민 소박하고 견소한 건물이다.

경현당에서 매년 문정공 우암 송시열(宋時烈) 선생과 문경공 송환기(宋煥箕)의 초상화 영정을 모셔놓고 가을마다 제향을 지낸다.

조선시대에는 고직1명, 보직 20명이 이곳 일에 종사하였고 「석곡봉사」란 서적이 일찍이 1600년대에 이곳 용문영당(龍門影堂)에서 출판되었고 경술국치 때 자결한 송병선, 송병선, 송근수 등 당대의 학자들이 모여 강론하고 회합하는 장소로 유림들의 활발한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 경현당의 주변 길 등을 보수하는 부역을 담당하는 지역은 마을은 옥천군 이내면 구룡리(현재 이원면 구룡리)와 미리(尾里-구미리)이다.

- 참고문헌: 옥천읍지

19. 세심대(洗心臺)



큰 바위에 있던 세심대

옥천군 이원면(이남면) 지정리 지정촌 선비인 이식근(李植根)은 자신의 호를 세심옹(洗心翁)이라 하고 동네 어귀 연못 위 절벽에 축대를 쌓고 그 이름을 세심대(洗心臺)라 명명하였다.

지금도 정자터 아래 큰 바위에 세심(洗心)란 글귀가 음각되어 있다.

▣ 세심옹(洗心翁) 이식근(李植根)의 시문

【원문】

洗心臺下洗心地	세심대하세심지
物累棧心洗者誰	물누천심세자유
不心洗心心自洗	불심세심심자세
此中心地使人地	차중심지사인자

20. 화수정(花樹亭)

- 1)이름: 화수정(花樹亭) 2)위치: 옥천군 이월면 지정리
3)창건자: 우봉이씨(문중) 4)창건연대: 미상 5)건축물: 현존안함
6)규모: 미상 7)기문-동강(東崗) 이병우(李丙祐) 有詩

옥천군 이월면 지정리에 우봉이씨(牛峯李氏) 문중에서 조선시대에 세운 정자로 건축 형태는 알 수 없다.

화수정은 지정리 마을 앞에 큰 연못이 있었고 연못 가운데 정자를 지어 선비들이 이곳에서 시를 읊었다.

이 마을 지명은 못정이 모정으로 변화되어 불려지고 한자화 하여 연못 지(池)와 정자 정(亭)을 써 지정리(池亭里)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의 사시사철 아름다운 주변 풍광을 지정팔경, 화수팔경(花樹八景)이라 한다. 한편 동강(東江) 이병우(李丙祐)의 시가 전해진다

▶ 지정팔경

- 1경: 심답춘장
2경: 성산하폭(대성산 여름폭포)
3경: 이봉추월(가을밤에 월이산에 뜬 보름달)
4경: 학소동월(겨울의 흰 눈속에 둉지 속의 학)
5경: 천태만하(천태산 저녁 노을)
6경: 유교낙조(버드나무 다리에 비추는 해질녘의 눈부신 햇살)
7경: 마니귀운(마니산에 걸린 구름)
8경: 죽림청풍(대밭의 맑은 바람)

21. 구모정(求慕亭, 소정)



대청호가에 있던 구모정

- 1)이름: 구모정(求慕亭, 소정 窠亭) 2)위치: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금강가(현 대청호변)
3)창건자: 정미하 4)창건연대: 없음 5)건축물 현존: 혼존안함 6)규모, 기문: 없음

구모정(求慕亭)은 옥천군 군북면 소정리 마을앞 북서능선 금강가 절벽인 정자끝에 조선시대 이 마을의 연일정씨 후손인 정미하가 지었던 정자로 대청호 건설로 정자터 마저 수몰된 것으로 추정된다.

구모정 아래 소정나루가 위치하여 옥천관아(구읍)에서 늘터(군북 국원리)-소정리 구모정-막지 장고개-가산계곡-회인현(보은회남) -청주목 연결하던 소로가 있어 옥천의 주요한 나루였다.

주변경관은 대청호 수몰이전에 마을앞을 흐르는 속강(東江), 소강(蘇江)으로 부렸던 금강이 무척 맑고 강건너 백사장이 동서로 5리에 펼쳐지며 연이어 맥기 마을입구에는 수백년 된 커다란 솔밭이 있어 금강의 백사장이 펼쳐진다 정자끝 절벽 위에서 서면 시원함이 좋다.

우암 송시열 선생이 소정나루에서 강을 건너 맥기로 가다가 드넓은 보리밭을 보고 막지를 보리 맥(麥)자를 써서 맥기라 불렸다 한다.

22. 은산정(隱山亭)



청산면 평상목의 은산정

1)이름: 은산정(隱山亭)

2)위치: 옥천군 청산면 평상목

3)창건자: 김상균,김성원

4)창건일: 1975년 4월 8일

5)현존여부:

6)규모: 정면 3칸, 측면 2칸

■ 시문

【원문】

氣勢聳飛乃碧山
一區風物滿斯間
真心可學王維樂
幽趣將隨李愿閒
□角□天含遠露
□檜牙□地抱長巒
亭中獨酌都無興
更待文章載筆還

은산정은 청산면 교평리 김상균(金尙均)씨가 인의도덕을 숭상한 선인들의 뜻을 계승하고자 건립한 것이다

옥천 청산지방 유림들의 좋은 회합 장소로 활용되었다.

- 참고자료: 청산면민협의회, 청산향토지, 청산출판사, 1988년

23. 청학정(青鶴亭)

- 1)이름: 청학정(青鶴亭) 2)위치: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3)창건자: 원세중(元世重)
4)창건연대: 미상 5)건축물: 없음 6)규모, 기문: 미상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 보청천이 흐르는 마을에 있던 정자로 학선(鶴先) 원세중(元世重) 선생의 송덕을 기리기 위해 원용옥(元容旭), 용명(容暎) 형제가 이 청학정을 건립하기 이전에 유지비석을 세웠다고 정석미(鄭奭米) 선생이 쓴 기문이 있다.

24. 영월정(迎月亭)

- 1)이름: 영월정(迎月亭)
2)위치: 옥천군 청성면 마장리 남쪽 원너머
3)창건자: 육종옥(陸鍾旭) 4)건축물: 없음

25. 취사루(聚斯樓)



군서 하동,오동리 서화천변에 있던 취사루

- 1)이름: 취사루(聚斯樓) 2) 위치: 옥천군 군서면 하동, 오동리 서화천변(하동교회 부근)
3)창건자: 미상 4)창건연대: 미상 5)건축물: 없음

26. 태고정(太古亭)

옥천군 군서면 은행리 양심이 마을에 있었던 정자

27. 원모재(遠慕齋)

옥천군 청산면 대성리에 있던 재실로 건립 전에 원익상(元翼常)의 아들 원용욱(元容旭)이 아버지 추모비를 세웠다.

28. 관성문루(管城門樓)



관성문루가 있던 옥천 구읍사거리 일대

옥천군 옥천읍 상계리에 위치하였던 조선시대 옥천관아의 출입 문루이며 규모는 장량 3칸이며 2층 누각 형태로 1층은 출입문이며 2층은 마루누대 구조 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9. 관풍정(觀風亭)



군서면 평곡리 서화뜰 관풍정

옥천군 군서면 동평리 평곡마을 벌말 동쪽 500년 된 팽나무 아래에 세웠던 정자다며 옛정자는 없으며 팽나무 그늘이 주민들의 좋은 휴식처 이다.

1970년대 옥천군이 그 자리에 콘크리트 끝조로 육각정을 지어 주민들의 쉼터로 사용되고 있다.

30. 관가정(觀家亭)

옥천군 옥천읍 장야리 돌남산(石南山)에 세웠던 정자다.

조선시대 1892년(고종 29년)에 발행된 옥천군(서울대 규장각 보관) 고지도에는 돌남산 정상 부근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2000년대 초기에 돌남산 북서편 중턱 등산로 가에 석남정(石南亭)을 옥천군에서 건립했다.

31. 연당(蓮堂)사랑



육영수여사 생가의 연당사랑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13 번지 육영수 여사 생가내 연당 주변에 세운 정자로 1600년대 지어졌다 한다. 이후 퇴락하여 몇차례 중수하였고 2010년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으로 다시 원형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정면 3칸 측면 1칸의 목조팔작기와집 형태로 2층 누각이며 1층은 주초석 돌기둥 위에 기둥을 세우고 2층에 누마루를 설치하였다.

정면은 4분합문으로 열어 들어 올리게 되어 있으며 후면은 판문을 두는 구조로 건축되

어 여름철에 아주 시원한 정자며 누마루에서 연못을 한눈에 볼 수 있어 풍광이 더욱더 일품이었다 한다.

육영수여사가 어릴적에 살던 때는 정자앞 정원에 꽃나무 애호가인 육여사 부친 육종관옹이 각종 아름다운 기화요초와 꽃나무를 심어 서울 연경당에 비유 될 정도로 유명하였다 한다.

평소 육여사님이 「나의 살년 고향」의 노래말을 즐겨 부르던 “울긋불긋 꽂대궐” 노래 구절처럼 매우 연당사랑 정자와 연꽃이 가득 핀 연못, 정원이 어울려 경관이 무척 아름다웠다 고 마을사람들은 전하고 있다.

32. 육영수여사 생가 초가정자



육영수여사 생가(교동집) 초가정자

옥천군 옥천읍 교동리 313 번지 육영수 여사 교동집 생가내 후원에 있는 복원된 정자다.

육영수여사가 태어나 박정희 대통령에게 시집가기 전까지 살았던 생가 후원 언덕 위에 사각기둥에 초가지붕인 형태로 건립된 정자 이다.

육영수 여사의 선친 육종관옹이 넓은 후원 높다란 언덕에 위치하여 서쪽에 푸른 대숲과 더불어 대궐같은 교동집과 마을을 한 눈에 내려 볼 수 있어 풍광 무척 좋았으며 바람 또한 시원하며 갑부이면서도 항상 검소한 생활의 일면과 소박한 집주인의 심성을 알 수 있는 장소이다.

이 정자 아래 4~5천평 후원에는 육종관씨가 사과, 배, 포도, 자두, 살구, 감나무 등 각종 과일나무를 심어 온가족들이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다 하며 사시사철 푸른 숲속에 온갖 과일나무와 꽃들이 무척 아름다웠다 한다.

33. 청산정(青山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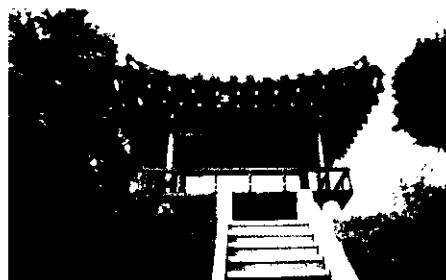
보청천변 청산대교 공원의 청산정

옥천군 청산면 교평리 청산대교 공원내에 있는 2000년대 후반에 지어진 정자로 2층 6각 정자 형태로 1층 돌기둥 위에 6개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지붕에 기와를 입힌 육각정 정자이다.

정자 아래로 흐르는 보청천의 푸른 물과 청산들의 드넓은 들판 그리고 청산 소재지를
에워싼 북동쪽의 덕의봉과 도덕봉 풍광이 가희 산수화를 보는 듯 풍광이 아름답고 시원
냇바람이 항상 불어와 주민들과 탐방객이 즐겨 찾는 명소다.

특히 정자가 있는 이곳 공원에 거대한 물레방아와, 큰바위에 청산에 살리라는 글귀, 그리고
청산동학혁명 재기포기념비, 조선시대 고을원님의 선정비 등이 있어 좋은 휴식처이다.

34. 방화정(芳花亭)



방아실 고개의 방화정

옥천군 군북면 대정리 방아실 고개마루에 새롭게 건축된 정자로 방아실 금강가(현재 대

청호 수몰지)에 세웠던 정자를 재현하여 세웠다.

옛방화정은 주변 금강의 기암절경과 환산의 수려한 풍광으로 옥천-회인현(보은군 회남면)-피반령-청주로 가던 길목인 방아실 나루터 부근에 위치하여 나그네들과 묵객들이 쉬어가는 좋은 쉼터였다 한다.

1978년 이 방화정 부근이 대청댐 건설로 수몰되자, 1986년 5월 대정리 문화유씨 문중에서 방아재 고개마루에 다시 건립했다.

방화정 건물구조는 팔작지붕 형태로 목조기와 1칸 크기로 대청호가 환희 내려다 보이며 몽시 시원한 곳이다.

35. 삼괴정(三槐亭)



우암선생이 그네 뛴 구룡리 삼괴정터

옥천군 이원면 구룡리 마을 어귀의 보호수인 큰 느티나무가 주변에 있던 정자로 옛날 우암 송시열 선생이 이곳 나무에 그네를 매어 뛰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 참고문헌: 김현길 충북 여지집성

36. 화심대(華心臺)

옥천군 이원면 개심리 양주조씨 선산인 소장화산(小長華山)에 세웠던 정자로 창건자와 연대를 알 수 없고 건축물도 혼존하지 않는다.

- 참고문헌: 김현길 충북 여지집성

37. 독서루(讀書樓)

옥천군 안내면 동대리 금화산(金華山=금적산, 보은군과 접경지역 산으로 추정)에 있던 정자로 추정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김현길 충북 여지집성

38. 상춘정(上春亭)



보청천변의 청성 산계보 상춘정

1)이름: 상춘정(上春亭)

2)위치: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신기보 보청천내 독산(獨山) 정상

옥천군 청성면 보청천 산계리보 강 중간에 위치한 섬인 독산(獨山) 정상에 세운 팔작지붕 형태의 정자로 1970년대 초기에 건립되었다 한다.

특히 보청천 강과 독산을 둘러싼 주변의 드넓은 평야지 들판과 잘 어우러진 빼어난 풍광으로 소풍객과 낚시꾼들이 많이 오는 명소다.

39. 동대 육각정(東臺 六角亭)



안내면 서대리 동대육각정(동대휴게소)

1)이름: 동대 육각정(東臺 六角亭)

2)위치: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 산1번지(37번 국도 인근)

3)창건자 : 옥천군수, 4)창건시기: 1972년

동대육각정은 보은-옥천간 37번 국도가 지나는 덕대산 문티(文峙)재 중턱인 옥천군 안내면 서대리 산1 번지에 위치한 1970년대 콘크리트 구조로 이렇게 조형미를 갖춘 아름다운 정자를 지을 수 있구나 하는 영탄감이 이는 곳이다.

육각정이란 정자 이름은 이 정자의 기둥이 6개로 6각을 이루 이에 연유하고 어떤 이는 바로 정자 아래 동편이 옥천육씨(沃川陸氏)가 오랫동안 누대를 거쳐 살아온 집성촌에서 자연스레 명명되었을 것으로 얘기한다.

이 정자 밑으로 보이는 멋있는 풍경이 펼쳐지는데 반듯 반듯이 경지정리가 잘된 드넓은 안내들판과 원근으로 닥아오는 크고 작은 산들과 특히 들판 끝 산허리를 감아돌아 보은 원남방향으로 향하는 들판 고갯길을 오른 승용차들이 뱀이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듯하며 머릴 남쪽으로 대청호의 푸른물이 넘실되는 등 가슴까지 시원케 해준다.

건물의 구조는 육각기둥 위에 1층은 휴게실로 2층 전망대로 사용되는데 건물재료는 순 콘크리트 구조물로 지붕은 전통 한식구조인 육각 내립마루이며 지붕마루 상부의 중앙 부분은 절병통으로 마감되어 있다.

휴게실 1층 층계에서 2층 전망대로 오르면 닦다리 모양이 계자(鷄子) 난간으로 둘러쳐 있어 멀리 바라보는 조망과 경관이 빼어나다.

정자 주변산 왼편은 가재 모습을 닮은 가재봉과 오른쪽으로는 면소재지의 진산이며 명산인 턱대산(德垈山), 그리고 서쪽으로 매봉이 우뚝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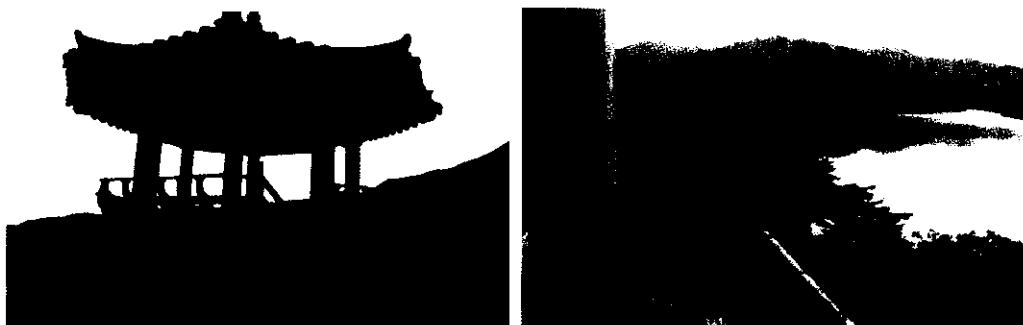
40. 삼거리(三巨里) 팔각정(八角亭)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삼거리 국도4호선이 지나는 군서교와 삼양교 사이에 있는 산 정상에 옥천군에서 1970년대 초기에 짓은 콘크리트로 만든 팔각정이다.

이 팔각정에 오르면 굽이쳐 흐르는 서화천의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어 주민들이 즐겨 찾았던 장소다.

이 정자 양측면으로 난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국도, 철도 그리고 그곳에 삼양교, 군서교와 철교 위를 내달리는 자동차 행렬, 꼬리를 길게 단 기차가 철로위를 달리는 광경도 그 당시엔 괜찮은 볼거리 였다.

41. 추소정(秋沼亭1)



천하절경의 아름다운 추소정

부소담악의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팔각정으로 2008년에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부소부니(병풍바위)에 지은 2층 구조의 목조기와 형태의 팔각정이다.

추소정에 현판과 박찬훈이 짓고 류홍렬이 쓴 추소정기가 있다.

추소정 주변은 병풍바위 또는 부소부니라 하는데 길다란 바위군 절벽으로 예부터 이곳을 감싸 흐르는 서화천의 절경에 감탄한 우암 송시열 선생은 이 병풍바위를 소금강산이라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한다. 이곳 병풍바위는 길이만도 700m나 된다.

이곳은 국토해양부와 한국하천협회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에 뽑히고 그중 “가장 아름다운 6대 하천”에 선정되었다.
대청호 건설로 주변이 온통 호수지만 곧게 뻗어난 긴 바위산이 천하절경이다.

42. 추소정(株沼亭2)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병풍바위에 1970년대 한상필 옥천군수 세웠던 콘크리트 정자로서화천 강건너 추동에도 건립했다 한다.

43. 삼청리(三青里)육각정(六角亭)

옥천군 옥천읍 삼청리 천년고찰 용암사 오르는 길목에 1970년대 한상필 옥천군수 세웠던 콘크리트로 건축된 육각형 정자로 현존한다.

44. 관성정(管城亭)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 국궁장 활터에 2000년대 초기 옥천군이 건립한 2층 구조의 콘크리트로 지은 큰 누각 형태로 활터를 찾는 이들의 국궁대와 사무실 등이 있다.

관성정 이란 이름은 인근 지역에 관산성으로 비정되는 삼성산성이 있고 옥천을 삼국시대에서 고려 중후기까지 관성군이라 칭하여 이 국궁장이 명명되었다.

월전리 일대에서 순절한 백제의 성왕의 혼과 얼을 기리는 성왕배 국궁대회가 매년 이곳에서 개최된다.

음성의 누정

음성향토사연구회 김영규

1. 의송정(倚松亭)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송정(倚松亭)이 기록되어 있다. 음성 객관동쪽에 있었는데 건물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권극화(權克和)와 최숙생(崔淑生)이 지은 시가 있다.

권극화(權克和)가 지은 다음의 시(詩)가 있다.

남주열편기대정(南州閱遍幾臺亭), 남쪽에 여려고을 정자를 두루 돌아보았는데,
경물분연난아정(景物紛然亂我情). 경치가 분연하여 내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구나.
금일설성요맥기(今日雪城饒麥氣), 오늘 설성(지금의 음성)에 보리싹 생기 넘치니,
야의기침청송성(也宜欹枕聽松聲). 마땅히 베개 베고 소나무에 부는 바람소리 들으리라.

최숙생(崔淑生)이 지은 다음의 시(詩)가 있다.

추고열일투운산(秋高烈日透雲山), 가을 하늘에 따사로운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는고,
정색창망조노안(正色蒼亡照老顏). 천지의 빛깔이 푸르고 창창히 늙은 얼굴에도 비치는구나.
포유봉상운낙절(蒲柳逢霜蓮落節), 부들과 벼들개 서리맞아 잎이 우수수 지는데,
대군풍채각망환(對君風彩却忘還). 그대의 풍채를 대하니 문득 돌아가기를 잊었노라.

2. 오리정(梧里亭)

음성군 음성을 신천리 돌명이 뒷산에는 오리정 정자터가 있었다고 한다. 음성현에서 5리가 되어 오리정이라 표기하였는데 조선시대 현에서 과거에 급제자가 나오거나 중앙관리가 현에

올 때에는 이곳까지 나와 맞이하던 곳이라 한다. 오정제월이라는 음성팔경 중에 하나이다.



오리정이 있던 산

3. 몽암정(夢庵亭)

음성읍 평곡리 토계울에 있었던 이자의 정자이다. 중종 14년(1519) 기묘사화로 음애동에 귀양되었던 이자가 중종 24년(1529)에 다시 이곳 토계울로 옮겨왔는데 구름 낀 산이 있고 그윽하여 인가가 드물던 이곳에 작은 정자를 짓고 이름을 몽암정(夢庵亭)이라 하고 호를 몽옹(夢翁) 또는 계옹(溪翁)이라 하였다. 이자는 이곳에서 살면서 전교리 이연경(李延慶)이 수주팔봉에 귀양와 있어 서로 배를 타고 심방하였다 한다.

이자는 귀양에서 풀려나지 못한 채 중종 28년(1533) 12월 15일에 이곳 몽암정에서 향년 54세로 죽었다.

4. 경호정(景湖亭)

음성군 읍성읍 읍내리 설성공원(雪城公園) 안에 있는 경호정(景湖亭)은 1934년에 당시의 군수 권종원(權鍾源)이 인풍정(仁風亭)으로 창건하였고 그 뒤 군수 민찬식(閔燦植)이 경호정(景湖亭)이라 개칭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는 정자로 2007년에 정자 전체를 단청 및 보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호정의 전체 배치는 동남향으로 평坦한 대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자의 주위에 연못을 조성하여 섬 안에 있는 형상이다. 이러한 수법은 정자나 누정(樓亭) 건축에서 흔히 이용되는 일반적인 형태이며, 연못의 가운데에 있는 둥근 형태의 섬은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에서 천(天)이 곧 양(陽)이며 원(圓)이고, 지(地)가 곧 음(陰)이고 방(方)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격식에 맞추어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 경호정이 있는 섬으로 출입하



경호정 연못 전경

도록 화강석 교각을 설치하였으며, 정자는 섬의 중앙에서 약간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앞에는 평곡리사지(平谷里寺址)에서 옮겨 세운 3층석탑(三層石塔)과 독립기념비(獨立記念碑)를 배치시켰다.

경호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 겹쳐마 팔작지붕의 목조기와집으로 그 내부를 통간의 대청으로 꾸며 우물마루를 깔았다. 창호는 사면 모두를 개방시켜 시야



경호정

를 트이게 하여 정자로서의 기능을 살리도록 구성하고 있다. 주간 간격은 정면 2.73m로 넓게 구획하고, 측면은 2.13m로 좁게 구획하고 있다. 구조는 높이 36m의 사과석 기단 위에 다음은 방형주초석을 놓고 그 위에 20×20cm의 방형주를 세웠다.

5. 삼회정(三會亭)

금왕면 도청리에 있으며 정자 뒤 바위에 삼(三)자가 각인되어 있다. 『조선환여승람』 「음성군」 누정에 “三會亭 在金旺面道晴里 亭後有石刻三字” 이라 하였다.

6. 본리정사(本里精舍)

본리정사는 박재철(朴載哲)이 학문을 연구하고 정신을 수양하던 정자이다. 박재철은 이 곳에서 학어집(學語集) 6편을 저술하여 전해져 오고 있다.

7. 난정(蘭亭)

백마산 아래 보천 위에 있다. 선비 김영직이 산음고사(山陰故사)를 모방하여 이 정자를 지었다. 계(禊) 동지 80명이 연명(聯名)하여 현판을 달았다. 『조선환여승람』 「음성군」 누정에 “蘭亭 在白馬山下 甫川上 土人 金榮稷倣山 隱故事策 斯亭以修禊同志八十人 聯名懸楣” 라 하였다.

8. 가정(榎亭)

가정은 원남면 주봉리 덕문재 북쪽에 있는 마을로 전에 가나무 정자가 있어 가정이라 하였다. 가나무는 가목 또는 노나무라 하는데 개오동나무를 말하기도 한다. 싸리나무 또는 개오동나무로 지은 정자로서 경치가 좋다하여 가경재라고도 불렸다.

9. 소산만계정사(梳山彎溪精舍)

소산만계정사는 원남면 삼용리 물언덕에 있던 채신보의 별장이다. 호는 만계(彎溪) 또는 삼생처사(三生處士)라 하였다. 현재는 터만 남아있고 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후학을 가르쳤던 자리이다. (모정터라고 불리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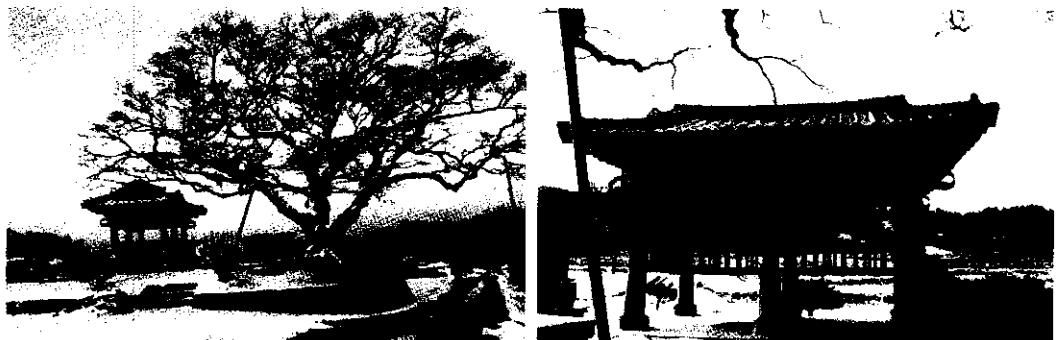
10. 충효정(忠孝亭)

음성군 원남면 상당리 구역말 마을 앞 언덕에 있는 충효정은 약 300년전에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처음 세웠을 당시에는 피금정(披襟亭)이라 부르던 것을 1939년에 하당초등학교가 개교하면서 정자를 헐어 교실 짓는 목재로 사용하고 빈터만 남아있던 것을 마을 사람들에 의해 1990년에 재건한 후 충효정이라 개칭하였다.

구조는 정면 2칸 측면 1칸 겹처마 팔작지붕의 목조기와집으로 그 내부를 통문으로 꾸미고 합판마루를 깔았다. 창호는 사면 모두를 개방하여 수려한 경관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정자의 기능을 갖추었다.

주간간격은 정면과 측면을 모두 2.43m로 등간을 이루고 분할하고 있으며, 구조는 높이 25cm의 원형 주초석을 놓고 다시 그 상부에 팔각형의 주초석을 놓았고, 그 위에 지름 27cm인 원형기 등을 세웠다. 오른쪽에 누 마루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으며 오른쪽에 충효정이라 판각한 편액이 걸려 있다. 왼쪽 옆에는 충효정 표석이 있는데 충효정 건립추진위원회 명단이 음각되어있다.





11. 함의정(咸宜亭)

생극면 생리에 있으며 화운(火雲) 한성복이 청강(聽講)한 곳이다.

12. 가정(佳亭)

생극면 도신리 도관(道貫=都官) 남쪽 마을 뒤에 있던 정자로 도관리에는 조선시대 역원이었던 도관원이 있던 곳으로 이곳에 아름다운 정자가 있어 가정(佳亭)이라 하였고 가정재(佳亭齋)라하였는데 가정재로 변칭되었다. 또 계수나무의 여울이라 하여 계탄(桂灘)이라고도 불렸다.

13. 행정(杏亭)

감곡면 오행리 거일(巨日) 남쪽 골짜기에 있는 마을에 전에 살구나무 정자가 있어 행정이라 하였는데 행군이라고도 한다.

14. 공산정(公山亭)

감곡면 영산리 젯말 서쪽에 있는 마을에 공산정(公山亭)이라는 마을이 있다. 뒷산이 공(公)자처럼 되었고 전에 정자와 정자나무가 있어 공산정(公山亭)이라 하고 마을을 공산리라고 하였다.

15. 칠수정(漆樹亭)

감곡면 영산리 잿말 서쪽에 있는 들에 전에 옻나무가 많고 옻나무 정자가 있어 옻나무 정(漆樹亭)이라 하고 그 들을 옻나무정이들 이라 하였다.

음성 지방의 누정을 조사한 결과 옛것은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고 터만 남아 있었다.
현재는 총효정, 경호정만이 남아있고 그 밖의 것은 문헌이나 기록만 있다.

제천의 누정

내제문화연구회 이재민

1. 경호루(鏡湖樓)

▷ 소재지 :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경호루는 의림지 서반(西畔)에 위치하는데 1948년 당시 제천군수 김득련(金得鍊), 서장 김경술(金京述)의 발기로 군청 산업과장 이형재(李衡宰)의 성의와 서울의 홍순량(洪淳良), 오세진(吳世鎮)의 특자로 목조와가 정면 3간, 측면 2간, 2층의 누각을 창건하였다. 이익공(二翼工)¹⁾ 팔작집으로 단청이 되어 있다.

영호정과 더불어 의림자를 찾는 관광객들의 휴식처가 되어 있으며, 아름드리 노송사이에 서있는 정자 누각은 한폭의 그림과도 같다.

1981년 시비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해체 보수하였다.



경호루(鏡湖樓)

2. 관란정(觀瀾亭)과 원호 유허비(元昊 遺墟碑)

▷ 소재지 : 제천시 송학면 장곡리 산14-1번지

시대 : 1703 · 1845

1) 이익공(二翼工) : 기둥위에 덧붙이는 쇠. 촛가지가 둘로 된 익공(翼工)

○ 관란정(觀瀾亭)

제천 시내에서 아시아 시멘트 입식 공장을 지나 동북 방향으로 약 2km 남짓 떨어진 곳에 푸른 잔솔이 우거진 송학면 장곡리의 뒷산 언덕에 누각 하나가 외롭게 서 있으니, 이 고색 찬연한 정자가 관란정(觀瀾亭)이다.

이 언덕 끝에서 아래를 굽어보면 영월 서강(西江)이 여울 되어 흰 비단폭처럼 굼실굼실 굽이쳐 흐르고 정자 바로 아래는 60여m의 높고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그 옛날 원호가 단종을 추모하며 눈물을 뿌리던, 천고의 슬픈 이야기를 안은 채 유유히 흐르고 외로운 정자는 고신(孤臣)의 충의를 풍기며 말없이 서 있지만, 처절했던 지난날의 사연을 떠올리면 찾는 이의 마음이 허허롭기만 한 곳이다.

이 관란정은 원호(元昊)²⁾가 죽은 뒤 후손들과 유림들이 그의 충절을 길이 앙모하기 위하여 현종 11년(1845) 그 자리에 정자를 세우고 원호의 호를 따라 관란정(觀瀾亭)이라 하고 유허비를 세웠으며 1941년에 개축하였다.

건물 구조는 정면 2칸, 측면 2칸의 팔작집으로 기단은 자연암반 위에 토단으로 하였고 주초는 정평주초로 하였다. 가구형식은 오량가³⁾이고 단청은 모로단청⁴⁾으로 하였다.

공포형식은 주간에서는 이익 공식으로 귀포⁵⁾에서는 삼익 공식으로 하였다.

축대가 헐고 마루판이 파괴되어 1971년 당국에서 보수하여(군비 50만원 투입) 오늘에 이르러 지방사적(충청북도 기념물 제92호)으로 지정받은 곳이기도 하다.

원호의 충의에 찬 애절한 사연은 글로지어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하였는데, 주위의 산과 실(山果實)과 산나물을 정성을 들여 채취하여 표주박에 글월과 함께 넣어 서강에 띄우면 빈 표주박은 거슬러 올라와 원호가 받았다고 하니 그 지극한 충절은 아무도 따를 길이 없다.

낡은 비각안 목판에 붓으로 쓴 다음과 같은 애절한 시구가 있다.

2) 원호(元昊) : 조선시대 생육신(生六臣)의 한사람, 자는 자허(子虛), 호는 무향(霧巷) · 관란(觀瀾), 본관은 원주(原州), 별장(別將) 현(憲)의 아들, 1423년(세종 5)식년문과(式年文科)에 급제, 여러 청환직(淸宦職)을 거쳐 문종때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에 이르렀다. 단종 초 수양대군(首陽大君: 世祖)의 위세가 날로 떨치자 고향 원주에 은거(隱居)하다가 1457년(세조 3)단종이 죽자 영월에 가서 3년상을 마쳤다. 그 뒤 고향에 은거중 세조의 특별배려로 호조 참의(戶曹參議)에 임명되었으나 끝까지 불응하며 여생을 마쳤다. 1703년(숙종 29) 고향에 정문(旌門)이 세워 졌으며, 원천석(元天錫)의 사당(祠堂)에 배향(配享)되었다. 1782년(정조 6)이조 판서에 추증(追贈), 원주의 칠봉서원(七峯書院), 함안의 서산서원(西山書院)에 제향(祭享), 시호는 정간(貞簡)이다.

3) 오량가 : 차봉 전후면에 처마도리와 중도리를 걸고 중앙에 종도리를 걸어 지붕을 꾸민 집

4) 모로단청 : 부채의 두 끝머리에만 단청을 하는 것으로 단조롭거나 화려하지 않은 중간정도의 단청

5) 귀포 : 귓 기둥위에 짜여진 공포

「간밤에 우연 여울, 슬퍼 울어 지나가다, 이제와 생각하니, 넌이 울어 보내도다. 저 불이 겨슬려 흐르고 계, 나도 울어 보내도다.」

그는 왕께 향한 충절을 어찌할 짓 없어 서강 기슭으로 거닐며, 남 그리는 단성을 강물에 훌러 보내며 울었다고 한다.

그 후손들은 이 충절이 자랑스러워 관란정 중수 약기(重修 略記)에 「아선조관란선생생
랑단묘시생육신지중유선생처 외약문시이극진신도정총특절지위해성이광우주

……(我先祖觀瀾先生生郎端廟時生六臣之中惟先生處
畏約文時而克盡臣道貞忠特節只爲慧星
而光宇宙……)」

(내 선조 관란선생은 단종조의 생육신 중의 한분이신데 오직 선생만, 두려울 때 있었으면서도 신하의 도리를 다한 특별한 충절은 넉넉히 혜성으로 우주를 비추었다.) 라는 기록을 남겼다.



관라정(觀瀾亭)



원호유허비(元昊遺墟碑)

○ 관란정기(觀瀾亭記)

· 군자(君子)의 행실은 소박하도다. 환란으로 그 바른 것을 잃지 않으려고 죽지 않았을 뿐이다. 마땅히 죽겠다고 죽었으면 마음이 편안하여 덕이 온전했을 것이다. 이것은 태산에 중후함이 있다고 하겠다. 역시 당시 있었으면 반드시 죽음의 지경이었으나 곧 반드시 죽지 못하고 인(仁)을 해침으로 죽은 사람에게서 생명의 유지가 어려움으로 혹은 죽거나 혹은 살아서 길을 달리 했으나 함께 돌아왔다.

그 절의가 있는 곳에 이르기를 바라거나 몽매한 어려움은 바른 법칙의 하나이다. 이것을 진실로 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얻을 것이 없다. 속같이 얹한 빛의 세상에 옛 암금의 망

자를 위하여 전후에 수백명으로 여섯 신하가 가장 현저하다. 온 몸의 자재가 있으니 곤강(崑崙)의 불길에 피해가 없어도 농히 철석의 곧은 충심을 지켰다. 송백(松柏)은 고난의 지조에 힘쓰고, 가마솥을 보면서도 그와 같이 돌아오는 밭길에 상하여도 근심하지 못했으나 여섯 신하와 다른 몸으로 같은 충심인 것이다.

즉, 이른바 생육신(生六臣)⁶⁾이다. 집현전 직제학 원호 선생은 이내 생육신(生六臣) 중의 한 사람일 뿐이다. 선생은 정난(靖難)의 변고를 알고 있었으나 병으로 사의하고 귀향하였다.

단종이 나라를 손위(遜位)⁷⁾하고 영월로 유배오니 선생은 역시 영월의 고을에서 서쪽으로 사내평(思內坪)의 집에서 몸을 숨겼다. 전면에는 두 강물이 합류하며 석벽이 특별히 솟구쳐 있는데, 그 위에는 곧 그 땅이 대(臺)이다. 또한 정자는 대의 곁으로 ‘관란(觀瀾)’이라고 말한다. 암묵(暗默)히 머무르며 조종(朝宗)의 의리로 매양 새벽에 정자로부터 대에서 동쪽을 바라보며 나아가 있으면서 탄성(呑聲)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때맞추어 날마다 비바람과 추위와 더위에도 가리지 않고 출입하였다. 마을 한가운데 청상과부가 살면서 날마다 하천변에서 솜옷 빨래를 하였는데, 매일 왕래한 선생은 이미 나아가서 다다랐다. 그녀는 괴이하여 선생에게 질문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기를, “영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아니하며,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나의 임금이 있는 곳은 영월 안에 계시는 연유로 나아가니 전망(展望)의 아름다움에도 그것을 품었을 뿐이다.”라고 하니, 그녀는 울면서 말하기를, “장차 날마다 다시 시집가지 않으려고 뜻하여 물가에 임하여 옷을 빨래하는 것이다. 곧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첩은 비록 비천하오나 공의 말씀을 들으니 저절로 감격하여 이러한 행실을 참지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비와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전 생애를 수절하며 생애를 마쳤다고 한다.

정축년(세조 3년 1457)의 변(變)에 이르러서 선생은 바야흐로 3년간 복상(服喪)을 하였다. 앉으면 동쪽으로 향하고 누우면 반드시 동쪽으로 머리를 향하였다. 또한 집안의 뜰밖에 출입하지 않으면서 생애를 마쳤다. 나는 영월에 유람하던 중에 그 사실을 심히 다 얻었는데, 이미 가옥은 훼손 된지 오래되었으나 오히려 원호 선생의 유허(遺墟)⁸⁾로 전하는데, 옛 돌은 푸르게 빼어나고 강물 속에 잠긴 환영(幻影)이다. 선생의 영령을 상상(想像)하며 혁혁한 정

6) 생육신(生六臣) : 조선 초기 세조의 왕위 탈취에 분개하여 벼슬을 버리고 절개를 지킨 여섯 사람. 사육신(死六臣)의 대칭(對稱)으로 생육신이라 하는데, 김시습(金時習) · 원호(元昊) · 이맹전(李孟專) · 조여(趙旅) · 성담수(成聃壽) · 남효온(南孝溫: 혹은 權節)을 말하며, 이들은 폐인(廢人)으로 자처하여 단종(端宗)을 추모하였다.

7) 손위(遜位) : 임금의 자리를 사양함

8) 유허(遺墟) : 남아 있는 옛터

자와 대(臺)가 숲속의 골짜기 사이에 있는데, 바람을 타고 구름에 떠오르는 아침 햇살은 선침(仙寢, 능)에 베푸니 육신(六臣)이 도열하여 모시는 주구(珠丘)에 옥란(玉欄)의 근방이다.

오호라 ! 당시 나란히 동쪽 봉우리의 추강(秋江)에 여러 현인이 훼절한 형상으로 세상을 도피하여 산에 올라가 고사리 채취를 함께하는 이것은 위포(韋布)에 소년일 뿐이다. 그가 출발한 곳의 행장(行藏)으로 연유했을 뿐 사람으로 연유하지 않았다. 선생과 같은 사람은 이미 현사(顯仕)⁹⁾로 등과하여 영달의 명성이 휘날렸을 것이다. 이미 병자년(세조 2년 1456)의 불행으로 함께 죽지 않았다. 즉, 좁은 지름길에 막힌 발걸음에 자유롭지 못하여 굴러 넘어진 사람으로 이것은 자기의 난관이다.

그리고 능력을 쓰이는 기미의 자태를 종일 기다리지 않은 연유로 곤장의 만행에도 따르며 잠긴다. 일월(十一月)의 광채에 의지하면서 바라보며 자신이 펼친 그곳에서 죽음을 절의로 끝까지 다 하였다. 이곳은 이른바 멀리에서도 임금을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음에도 나라를 잊지 않은 사람이로세, 백이숙제의 경험에서 일편단심 절개를 지킨 사람이로세. 일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이미 얻은 것이다. 선생의 삶은 삶을 또 얻은 것이니 자연히 죽으면 진실로 삶에 중함이 없으며, 삶은 죽음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갖추어 마음에서 진실한 도리를 얻어서 성취한 한 개인으로 바르게 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육신은 일시에 순국(殉國)은 즉시 소임으로 비문강개 하여 자신을 죽인 것이라고 말한다. 선생의 신변이 몰(沒)하고 스스로 안정은 곧 소임의 절의로 나아가 종용한 것이라고 말한다. 선생과 같은 사람을 위하여 거부는 더욱 어렵게 하지 않겠는가? 천지 변화에 내가 그 바른 것을 얻으며, 어찌 대인(大人)의 성심이 아니겠는가? 촌부(村婦)도 알지 못함에 이른다. 겨우 복종하는 하나의 말은 곧 선심의 발로요, 재가(再嫁)에 임하면서 자신이 뉘우침은 완전한 하나의 절개로 쓰러진다. 진실로 음성의 기운이 서로 교감하여 얻지 못한 연유로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그 사람의 깊이로 들어가 교화하는 사람이 빠른 것이다. 거의 영향력이 날지 못하니 그것을 아니하면서 말로써 하면서 몸으로써 하는 것이던가?

오호라 ! 정란(靖難)에 여러 사람은 이 과부가 실행한 것을 들었을 것이요, 일찍이 일러서 조정(朝廷)의 군자(君子)로 밑에 고을의 천녀(賤女)와 같지 않음이로세 !

홍직필(洪直弼)이 쓴다.

9) 현사(顯士) : 이름이 들날린 선비. 유명한 인물

○ 관란정기 원문(觀瀾亭記 原文)

君子行素乎患難而不失其正者死而已當死而德全是之謂有重於泰山也亦有以時則必死而以地則必不死不求生以害仁而生有難於死者或死或生殊塗而同歸要盡其義之所至而蒙難以正則一是固無入而不自得者也奧若 莊光之世爲舊君死者前後數百人而六臣最著焉有全身自在不被崑崙之炎而能守鐵石之貞衷勵松柏之苦操視鼎鑊其如歸蹈參夷而不恤與六臣異體而同腸者卽所謂生六臣也集賢殿直提學元先生吳乃生六臣中一人耳先生知有靖難之變謝病歸鄉逮 端廟遜國于越先生亦竄身於越之府西思乃坪而宅焉前臨二水合流有石壁特立于其上卽其地而臺傍而曰觀瀾默遇朝宗之義每晨自亭而臺東望行在吞聲而歎欷隨日而人不以風雨寒暑而掇焉里中有孀婦日洴澼于川邊每往先生已出臨矣其女怪異問先生泫然曰烈女不更二夫忠臣不事二君吾君方在越中故出而展望美之懷耳其女泣曰意將不日改適臨流浣衣者卽爲此也妾雖卑賤聞公言自然感激不忍爲此行遂泣下如雨全節而畢生云逮丁丑之變先生服方喪三年坐必東向臥必東首遂不出戶庭而終焉余遊越中得其事甚悉屋毀已久而尙傳爲元先生遺墟老石倉秀簷影于水心想像先生英靈赫赫在亭臺林壑之間乘雲御風日朝于仙寢與六臣者列侍 珠丘玉欄之傍也嗚呼並時之東峯秋江諸賢毀形以逃世登山以採薇而俱是韋布少年耳其出處藏由己而不由人若先生者已登顯仕盡英聲矣旣不同死于內子之禍則窄巡窘步不自顛跌者斯已難矣而用幾而作不俟終日因之潛隨荆蠻之行瞻依日月之光自伸其所在致死之義是所謂遠不違君死不忘國者歟經夷險而一節自歟六臣之死非得已先生之先生之生生亦得所然死卽固不重於生生且無愧於死俱得實理于心而成就一個是而其然六臣之一時殉國卽所云慷慨殺身先生之沒身自靖卽所云從容就義如先生之爲者計不尤難哉天地變化而我得其正誠大人哉村婦至無知也纔服一言卽發善心臨再嫁而自悔完一節而靡他苟不因得聲氣之相感孰能與此其入人深而化人速者殆影響不翅其非以不以言而以身歟嗚呼靖難諸人聞此寡婦之行者乎曾謂朝廷之君子不如下邑之賤女乎洪直弼

○ 원호유허비(元昊遺墟碑)

원호 유허비는 관란정 옆에 있는데 원호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유허비(遺墟碑)¹⁰⁾는 흥양호(洪良浩 1724~1802)¹¹⁾가 찬(撰)하였다.

10) 유허비(遺墟碑) : 선인들의 자취가 남아 있는 곳에 그들을 기리기 위해 세운 비(碑)

11) 흥양호(洪良浩) : 1724(경종 4)~1802(순조 2) 문신 · 학자. 초명은 양한(良漢), 자는 한사(漢師). 호는 이계(耳谿). 본관은 풍산(豐山), 단양 군수 중성(重聖)의 손자, 진보(鎮輔)의 아들, 1747년(영조 23) 진사가 되고 1752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지평(持平) · 수찬(修撰) · 교리(校理)를 지낸 뒤 1774년 등준시(登俊試)에 병과(丙科)로 급제했다. 1781년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 대사간을 지냈고 이듬해 동지부사(冬至副使)로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후 대사헌 · 평안도 관찰사 등을

보호각이 설치되었고, 비신(碑身)의 높이는 약 2m이다.

원호는 단종(端宗)이 임금 자리를 빼앗기고 영월 청령포(淸冷浦)로 유배(流配)를 가자 이곳에 초옥(草屋)을 짓고 단을 마련하여 매일 조석(朝夕)으로 청령포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망배하였다. 단종이 승하하자, 이곳에서 3년상을 복상(服喪)하고 원주로 돌아가 치악산 초막에 묻히어 집밖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세조가 호조 참의로 불렸으나 나가지 아니하였고, 앓을 때는 동쪽을 향하여 앓고 누울 때도 동쪽으로 머리를 두니 영월 장릉이 동쪽에 있기 때문이다. 숙종 29년(1703) 고향에 정려문이 세워졌으며, 원천석(元天錫)의 사당에 배향되었다.

정조 6년(1782) 이조판서에 추증되고 원주의 칠봉서원(七峰書院), 함안(咸安)의 서산서원(西山書院)에 제향 되었다. 시호는 정산(貞簡)이다.

○ 朝鮮忠臣觀瀾元先生遺墟碑

嗚呼此故學士元公觀瀾亭遺墟也公以我世宗四年登第事文宗官至集賢殿直提學端宗初服謝病歸原州及 端宗孫于越之清涼浦公卽其上流築土爲臺因樹爲亭名以觀瀾日登臨東望與夫人手灌園藝圃取蔬果納空匏浮于江達于浦 端宗上貧泣血廬居盡三年及歸原州之霧巷閉戶不見人面從子原城君孝然爲靖國動臣屏騶徒踵門請見公拒不納 光廟特授戶曹參議召之下就坐必東向臥必東首以終焉方公泫之在亭也隣有寡女爲洴澼日往江邊公輒已出坐亭上其女異之請其故公泫然曰忠臣不事二君烈女不更二夫吾之來此不忘吾 舊君也其女聞而泣曰妾早喪夫托身靡所將適人今聞公言身雖賤於心有戚戚焉遂終身不改適云噫乙丙之際可謂之艱之會也公初能見幾於末然初然遠引末又盡節遂志以畢君臣之義其視六臣諸公所謂殊塗而一致者也然見幾於初猶可及也盡節於終浪然乎無跡爲尤難箕子之明夷殆近之矣公諱昊原州人少負重望遭時不幸事跡無傳焉 肅 廟戊寅追復 莊陵褒當時諸節義特旌閭士林疏請享公於耘谷書院越之人慕公義不已就觀瀾亭遺墟願以有表章之公之傍孫羽孫爲原州判官損橐伐石方伯沈侍郎晉賢助成之走人請文於余余嘗高公節而悲公志可以風勵百世遂 謹書其本末而系之而辭辭日 清冷之水兮上有白雲如蓋有鳥啼何苦前有百鳥羅拜 王孫遊兮不歸春草生兮芊絲小亭岩然臨水水流人去何年水無盡兮名長傳

崇祿大夫原任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知 經筵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 洪良浩撰

通政大夫行寧越都護府使兼原州鎮管兵馬同僉節制使 林孝憲書 幷篆

역임, 학문과 문장에 뛰어나 「영조실록」, 「국조보감」, 「강장록」, 「동문휘고」등의 편찬에 참여했다. 글씨에도 능했는데 특히 진체(晋體) · 당체(唐體)에 뛰어났다.

此記文受而藏之久矣事力不逮迄今未豎碑 先生十二世孫衛鎮定孫謀於諸宗鳩財伐石能辨幾百年未遑之事其追慕之誠有足感人遺其族侄在寅來懇掘甚辭不獲既爲書之并識其事如右云

崇禎 紀元後 四 乙巳 十一月 立 有司 永禧 在亨 永寅 穎昌 有恒

3. 군자루(君子樓)

군자루는 남당서원(南塘書院)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君子樓在南塘書院今無

『조선환여승람』 루정조에, “군자루는 제천면(堤川面)에 있다. 퇴계 이황이 소요한 곳이다.(君子樓在堤川面退溪李滉遙處)”라고 하였다.

4. 금남루(錦南樓)

▷ 소재지 : 청풍면 물태리 산 6-5

금남루는 조선 순조 25년(1825)에 창건되어 청풍면 읍리 203-1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충주댐 건설 수몰지역에서 1985년 말 청풍면 물태리 산 6-5, 문화재단지 조성완료와 함께 현 위치인 문화재 단지 안에 이전되었다.

금남루는 청풍부의 아문(衙門)¹²⁾으로 「도호부절제아문(都護府節制衙門)」이란 현판이 걸려있는데 부사 조길원(趙吉源)의 필적이라 한다.

조선 순조 25년(1825)에 청풍부사 조길원이 창건하고 편액 하였으며, 고종 7년(1877) 부사 이직현(李稷鉉)이 중수하였고, 고종 37년(1900) 부사 현인복(玄仁福)이 전면 보수하였으며, 1956년에 다시 일부를 보수하였다.

건물구조는 목조 기와집으로 2층이며 정면 3간, 측면 2간인데 석조 토단 8각 고주석 위에 기둥(丸柱)을 세우고 누대(樓台)를 축조 하였으며, 2층 누상에는 목조 난간을 들렸고, 겹



금남루(錦南樓)

12) 아문(衙門) : ①상급의 관청. ②관청의 총칭

처마 팔작지붕의 누각이다.

1976년 12월 23일 지방 유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되었고, 총 건평은 14평이 된다.

5. 금병헌(錦屏軒)

▷ 소재지 : 청풍면 불태리 산 6-5



금병헌(錦屏軒)

일명 명월루(明月樓)라고도 하며 조선 숙종 7년(1681)에 부사 오도일(吳道一)¹³⁾이 창건하였고 숙종 31년(1705) 부사 이희조(李喜朝)가 중건하였으며, 영조 2년(1726) 부사 박필문(朴弼文)이 이증(李聰)하고 권돈인(權敦仁)¹⁴⁾의 글씨로 편액(扁額)하였으며, 고종 37년(1900)에 부사 현인복(玄仁福)이 전면 보수하였다.

건물 구조는 기와집으로 정면 6간,

측면 3간, 건평 40평의 팔작집인데, 기둥, 마룻장, 석가래 등의 퇴락이 심하다. 내부에 청풍관(淸風館)이란 현판이 걸렸다.

원래는 청풍면 읍리 203-1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수몰지역으로 청풍면 불태리 문화재 단지 내로 1985년 말 이전하였으며 이에 앞서 1976년 12월 23일 지방 유형문화재 제34호로 지정을 받았다.

13) 오도일(吳道一) : 1645(인조 23)~1703(숙종 29). 조선의 문신, 자는 관지(貫之), 호는 서파(西坡). 본관은 해주(海州), 영의정 윤겸(允謙)의 손자, 1673년(현종 14)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올과(乙科)로 급제, 1680년(숙종 6) 지평(持平)·부수찬(副修撰), 1683년 지제교(知製敎)를 거쳐 1687년 승지(承旨)가 되어 자파를 옹호하다가 파직되었다. 1694년 개성부 유수를 거쳐 주청부사(奏請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와 대사간·부제학(副提學)·대사헌을 지냈다. 1700년 대제학·한성부 판윤 등을 역임하고 병조 판서에 이르렀으며, 1702년 민언량(閔彦良)의 의 옥사에 연루, 장성에 유배되었다. 죽은 후 복관(復官)되고 울산의 고산서원에 제향

14) 권돈인(權敦仁) : 1783(정조 7)~1859(철종 10) 조선의 문신, 자는 경희(景羲), 호는 이재(彝齋). 본관은 안동(安東) 우의정 상하(尙夏)의 5대손. 증집(中緝)의 아들 1812년(순조 12)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1836년 병조 판서로 진학 겸 사은사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845년 영의정에 올랐으며 1851년 철종의 조상 경의군(敬義君)의 추존(追尊) 문제로 파직당하고 낭천(狼川)에 부처(付處)되었다. 1859년(철종 10) 연산(連山)에 이배(移配)되어 배소(配所)에서 죽었다. 글씨에 능했으며, 뒤에 신원되었다. 시호는 문현(文獻).

6. 대송정(大松亭)

대송정은 의림지 남서향 지금의 경호루 휴게소 부근에 송림이 우거진 곳으로 보인다.

○ 대송정기(大松亭記)

대송정은 의림지 남서향(坤 向)의 모퉁이에 있는데, 연암(燕巖)과 곧바로 마주한다. 우뚝하게 낮아진 형세의 골짜기를 통하여 수평의 호수를 굽어서 다다른다. 높은 소나무는 3~4장(章)¹⁵⁾으로 엄연(儼然)¹⁶⁾하게 떨어져 있다. 서월(署月)¹⁷⁾에도 오히려 바람소리가 서늘한 정취가 있다. 옛날에 고을 사람으로 어영진(魚泳津)은 도량이 넓고 용맹스런 힘으로 일찍이 연못 가운데서 큰 뱀을 배어서 정자의 소나무에 매달았다. 그 일은 매우 기이하고 위대하니 어찌 주자(周子)¹⁸⁾의 은덕을 사양하겠는가?

○ 大松亭記

亭在池坤隅與燕巖相直案行衍洞豁俯臨平湖喬松三四章儼然離立署月猶颯然有涼意昔有縣人魚泳津多拳勇嘗斬蛟池中懸之亭松其事甚奇偉奚讓周子隱哉。

7. 송석정(松石亭)

▷ 소재지 : 제천시 봉양읍 팔송리

송석정은 조선 명종때, 이 고장 출신인 임용룡 제주목사가 그 직을 수행하고 귀향 할 때 해송(海松) 10주를 가지고 와 그 중 8주를 지금의 봉양읍 팔송 마을로 이름 지었다는 유래가 전해지고 있었으나, 세월이



송석정(松石亭)

15) 장(章) : 큰 재목을 세는 단위

16) 엄연(儼然) : 걸 모양이 장엄하고 엄숙한 모양

17) 서월(署月) : 음력 유월

18) 주자(周子) : 진나라 사람 주처(周處)가 교룡을 죽인 것을 뜻함

흘러 8송은 그 흔적을 살필 수 없고, 이곳 송석정 또한 병풍을 친듯한 기암 반석위에 한 그루의 해송과 앞 하천에는 짙푸른 물이 흘러 깊은 소(沼)가 있었음이 암벽에 음각되어 있는 ‘송석정’과 ‘창하조태(蒼霞釣臺)’라는 글로 미루어 옛 모습을 짐작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봉황산(鳳凰山) 기슭 아래 제천천(堤川川)과 팔송천(八松川)이 합수되는 소(沼) 위에 해질 무렵 고기잡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청하조대가 넓게 자리 잡고 있으며, 깎아지른 듯 서 있는 석벽 위에 솔숲으로 둘러싸인 송석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산수경관이 수려한 이곳에서 주변 학자들이 모여 청담(淸談)을 나누고 선비들이 국사를 논의하였다. 이를 기려 그의 후손과 뜻있는 인사들이 전설과 역사가 깃들어 있는 송석정을 복원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1999년 이원종(李元鍾) 충북지사의 특별한 지원과 권희필(權熙弼) 시장의 배려로 임씨 후손들의 소원이며 선조들의 맥을 잇는 송석정을 복원하게 되어 그 유래를 알리게 되었다.

당시 송석정 복원 추진위원은 봉양읍장 신궁남(辛競南), 팔송리장 김동기(金東起), 미당리장 이재원(李載源), 충북문화관광 과장 권기수(權奇秀), 학산개발위원 최만섭(崔萬燮), 미당개발위원 이봉주(李鳳周), 팔송리 이수택(李守澤), 송석가든 대표 김용옥(金龍玉), 임응룡(任應龍)의 11대손 임민규(任敏奎), 제천시의원 박태덕(朴泰德) 등이다.

○ 송석정기(松石亭記)

백두대간 뻗어내려 금수강산 조성되니 처처(處處)에 영산영봉(靈山靈峰) 고을마다 대천(大川)이라. 태백준맥(太白峻脈) 연봉(延峰)하에 봉황산(鳳凰山)이 예로구나. 봉황산 날든 봉(鳳)이 오산(梧山)에 날아가서 비수리(飛樹里) 감돌다가 무봉암(舞鳳巖)에 춤을 추니 송석정 졸든 학(鶴)이 경비팔송(競飛八松)하더라. 옛 임(任)이 놀던 정자 비바람에 도괴(倒壞)되고 창하조대(蒼霞釣臺) 어옹(漁翁)¹⁹⁾들은 전설속에 살아있어 함정소(陷井沼) 깊었던 곳은 흔적(痕迹)만이 남았네.

충북지사 이원종님(李元鍾任) 제천시장 권희필(權熙弼任) 주민연원 청허(聽許)하여 정자를 복원하니 그 공적과 송석정이 여천무궁(與天無窮)하소서. 꽂고고 잎이 피고 단풍들고 눈내리는 춘하추동 사계절에 등정(登亭)하는 한량(閑良)들아 자연보호 잘 지켜서 천추만대 전하자.

庚辰(2000)年 重陽月 八松里 松巖 朴基福 撰書

19) 어옹(漁翁) : 고기를 잡는 노인.

8. 영호정(映湖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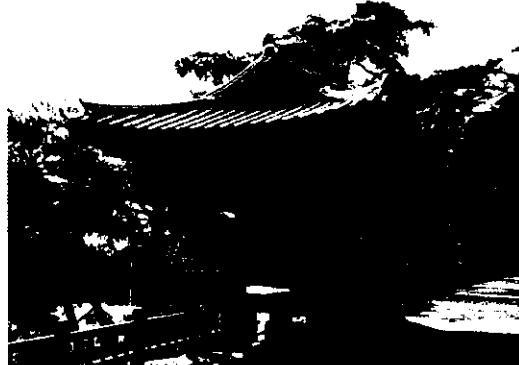
▷ 소재지 : 제천시 모산동 241

영호정은 의림지 남쪽 제방에 위치하여 조선 순조 7년(1807) 이집경(李集慶)이 건립한 후, 6.25동란으로 파괴 된 것을 그 후손인 이범우(李範雨)가 1954년에 중건하였다.

화강암 석주위에 건축된 목조 단층의 정자로 전평이 약 13m²(4평)이며, 팔작지붕에 정면 2간, 측면 2간으로 되어 있다.

이범우는 3.1 운동 때 제천지방의 만세시위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 영호정 신건기



영호정(映湖亭)

· 호수가 산꼴자기 속에 있어도 승지(勝地)라고 일컬으니 바야흐로 박연(朴淵)과 금호(錦湖)²⁰에서도 역시 양두(讓頭)²¹하지 않는다. 곧 원컨대 한번 와서 본 사람은 오초(吳楚)의 동정호(洞庭湖)²²가 있는 것처럼 그리워한다. 옛날에 후선정(侯仙亭)²³과 청폭정(聽瀑亭)²⁴이 있었는데, 어느 시대 사람이 건축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도

유지(遺址)가 있다. 위로는 경락(京雒)으로부터 아래로는 하향(遐鄉)에 이르기까지 귀인(貴人), 천인(賤人), 노인, 소인묵객(騷人墨客), 가야금을 타는 사내와 노래를 부르는 아동을 이끌며 이르고, 이서(吏胥)²⁵와 고수(賈豎)²⁶의 무리, 혹은 기솔(騎率)²⁷하고 혹은 지팡이를

20) 금호(錦湖) : 전북 김제 벽골제(碧骨堤)를 호강(湖江) 또는 금강(錦江)으로 칭함.

21) 양두(讓頭) : 지위를 남에게 사양함.

22) 두보의 등악양루(登岳陽樓)시에 “옛날에 동정호에 들었는데, 이제야 악양루에 올랐네, 우리나라 초나라가 동남쪽으로 갈리고, 건곤에 일월이 떠있네.”라는 시에서 오초의 동정호를 인용함.

23) 후선정(候仙亭) : 『제천군지』에, “후선각지(候仙閣址)는 전 밀양군수 김봉지(金鳳至)가 창건하였다. 하며 숙종조 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의 기문이 있다 하고 영조조에 현감 주최로 이곳에서 시회(詩會)를 가진바 있으며 어느 대에 철훠 뒤에 미상하나 경호루(鏡湖樓) 옆에 석축이 남아있다.”라고 하였다. 최석정의 『명곡집(明谷集)』에 의림지 임소정(臨沼亭)의 기문이 있다.

24) 청폭정(聽瀑亭) : 『제천군지』에 “청폭정자는 지금 경호루 옆 폭포 상봉에 석축이 남아 있으며 채씨(蔡氏)가 건축한 것이라고 하나 어느 때인지 불명이다.”라고 하였다.

짚고서 도보로 낙역(絡繹)²⁸⁾하러 오면서 보려는 사람들이 없는 날 없이 가기를 더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쇄어가는 곳이다.

아직도 방문을 면(免)하지 못하면 나무 그늘에 나누어 모형나무에 앉아서 누구나 자탄하지 않을 수 없지 아니한가?. 나는 호수아래 있으면서 감히 인지(仁知)의 문도(門徒)²⁹⁾와 즐기지 못하여도 산수의 자연을 즐기는 버릇을 항상 열등하게 여겼다. 여기에 호수의 젖은 모든 정자와 누각이 있는데, 하물며 나는 동방에서 제일로 소유한 사람으로 칭하노라.

나는 비록 가난하고 쓸쓸해도 한 정자를 장구히 하려는 것이다. 임염(荏苒)³⁰⁾의 사이에도 이미 육순에 닥쳤으니 대개 뜻이 있어도 이루지 못하고 죽으면 어찌 탄식을 남기지 아니하겠는가? 먼저 함께 놀면서 묵은 빛을 후배에게 행하겠는가? 해(歲)는 정묘년(丁卯年 순조 7년 1807)봄에 약간의 재물과 약간의 재목을 마련하여 이 터전에 건축한 이 정자와 정자들은 작은 형세이다. 어떻게 또 후선정으로써 편액으로 한다면 신선의 설명은 예전에 칭한 것이 많아서 황당할 것이요, 청폭정(聽瀑亭)으로 편액을 하면 폭포소리이다.

혹은 불시에 창일(漲溢)³¹⁾하니 모두 그 실체가 없다. 아침에 햇볕의 꽂과 버들과 같이 이르고, 저녁의 금수(錦繡)가 교착(交錯)³²⁾하는 것이다. 이 정자에 앉아서 역력(歷歷)히 간과(看過)할 수 있는 것이 없으므로 ‘영호정(映湖亭)’이라 계시한다.

무진년(순조 8년 1808) 단양(端陽) 월성(月城) 후인(後人) 아집경(李集慶)의 기문이다.

○ 暝湖亭 新建記

湖在峽裡稱勝地而方於朴淵 錦湖 亦不護頭則願一來觀者 慕如吳楚之有洞庭也。右有候山
聽瀑亭 不如何人所建而 今遺址存焉 上自京雒 下至遐鄉貴者 老者 少者 畫人墨客 琴夫謠童延及吏胥賈堅之徒 或騎率 或杖步 絡繹來觀者 無日無之而會無一憩 之所焉竟未免訪樹陰班荆而坐孰不爲之咨嗟哉。

25) 이서(吏胥) : 각 관아에 딸린 구실아치의 통칭, 서리(胥吏) · 아전(衙前) · 연리(掾吏) · 하리(下吏)

26) 고수(貢豎) : 천한 상인 · 장사아치.

27) 기솔(騎率) : 말을 타고 종자(從者)를 거느림.

28) 낙역(絡繹) : 사람이나 수레의 왕래(往來)가 끊이지 않음.

29) 문도(門徒) : 제자(弟子)

30) 임염(荏苒) : 세월이 천연함 · 사물이 점진적으로 변화함.

31) 창일(漲溢) : 물이 범람하여 넘침.

32) 교착(交錯) : 이리저리 엇걸려 뒤섞임.

余在湖下 不敢游仁智之門而有樂山水之癖常以爲劣於此湖者 尚皆有亭閣 況吾東稱爲茅 一所者平 余雖貧寒 欲構一亭者久焉 荏蕭之間 已迫六旬 盖有志未遂而死則豈非貽笑于同遊而宿債于後輩乎 丁卯春 予以略物 略于材木此基建此亭 亭小勢也

奈何 且欲扁候仙則神仙之說 右稱 多荒唐扁而聽瀑布之聲 或不時張溢 皆無其實也 至若花柳之朝陽 楓檜之夕照 物物色色 皆隱暎于湖中恍若 錦繡之交錯 莫如坐此亭而歷歷看過也故以暎湖揭之

戊辰(純祖八年一八〇八年) 端陽 月城後人 李集慶 記

○ 영호정(暎湖亭)

『조선환여승람』 루정조(樓亭條) : 영호정은 제천면 모산리 의림지 위에 있다. 정묘(正廟, 정조) 무진년(戊辰年)에 경주인 이집경(李集慶)이 세운 것으로 저수지 호반에 높게 세워 절승이다. ○ 고종 갑인년(甲寅年)에 그의 손자 이규병(李圭柄)이 중수하고 재영을 남겼다.

· 暎湖亭在堤川面茅山里義林池上 正廟戊辰 慶州李集慶建屹立池畔景致絕勝 ○高宗甲寅其孫圭柄重修有詩

대제일반수간루(大堤一畔數間樓) 큰 제방의 한 호반에 여러칸의 누각은
루영파광양불수(樓影波光漾不收) 루대의 그림자 물빛에 일렁이며 거두지 않네.
삼모촌향유중복(三茅村巷惟中腹) 삼모촌의 거리는 벌려져 중간이 배부르니
사군강산최상두(四郡江山最上頭) 4군의 강산에서 최상의 유품일세.
고대운백선유적(古臺雲白仙遊跡) 옛 터에 흰 구름은 선인이 유유한 발자취요
원포순향객범주(遠浦薄香客泛舟) 먼 물가에 순채 향기는 뱃놀이 객이 맡네.
동우중신다감구(棟宇重新多感舊) 동우를 새로 중수하니 옛 감회가 많은데
창망저립석양주(蒼茫佇立夕陽洲) 우두커니 세우니 석양의 호수에 창망하네.

9. 우륵정(于勒亭)

▷ 소재지 : 제천시 모산동 241

성열현인(省熱縣人) 악성(樂聖) 우륵(于勒)이 의림지를 축조하여 제천의 관개수리(灌漑水利)의 업적을 남겼다. 우륵은 호반의 동북쪽 보통이 연암(鷺巖, 제비바위)에 가야금을 연주

한 호반(湖畔)의 성지(聖地)에 2008년 1월 6일 우륵정을 준공하여 그 공을 기릴수 있는 반석이 되었다.

우륵정은 서쪽의 임지(林池)를 향하여 배치하고, 화강암의 외별대를 두르고 8각형의 주조석에 원기둥을 세운 6각형의 정자로 동쪽에서 3층 계단을 오르는 입구 이외 난간을 두르고 마룻바닥(內徑 4.6m)를 깔았다. 천장은 6각형의 우물반자에 6모 기와 지붕이다.



우륵정(于勒亭)

10. 읍평루(挹平樓)

읍평루는 객사의 남쪽에 있었으나 기사년(순조 9년, 1809)에 피소(被燒)되었다.

· 挹平樓在客舍南已己被燒

『조선환여승람』 무정조에, “읍평루는 객관(客館)의 남쪽에 있다. 국초(國初, 조선건국)에 세운것이다.”라고 하였다.

11. 의림정(義林亭)

의림정은 현(縣)에서 북쪽으로 10리에 의림지의 호반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 義林亭在縣北十里義林池畔今無

12. 의천루(義泉樓)

의천루는 옛날에 객사(客舍)의 동쪽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 義川樓舊在客舍東今無

『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적조에, “의천루 : 예전에 객관 동쪽에 있었다.”라고 하였다.

제천시 동현동(東峴洞)은 본래 동문외리(東門外里)로 속칭 동문밖에 있었다.

13. 임소정(臨沼亭)

임소정기(臨沼亭記)를 참조하면, 1711년(숙종 37) 5월에 제천현감으로 부임한 이진유(李眞儒, 1669~1730)³³⁾가 창건한 것으로 그 위치는 의림지의 서쪽으로 지금의 경호루 일대가 7개의 기둥(七楹)으로 신축하고 그 편액은 ‘임소정(臨沼亭)’이라고 명명하여 바로 봇가에 임(臨)하여 정자를 세운 것을 알 수 있다.

○ 의림지 임소정기(臨沼亭記)

의림지는 제천현에서 북쪽으로 수리(數里) 끝에 있다.

그것은 거대한 네모진 배와 같고, 그 수심은 헤아릴 수 없다. 마름(菱)³⁴⁾과 순채(蓴菜)³⁵⁾의 식물이 자라며, 물고기와 자라가 산출한다. 대개 마치 주관(周官)³⁶⁾이 구토(九土)³⁷⁾의 연못이 잡긴 것 같다. 의림지가 범람하여 서쪽으로 흐르다가 수십여 길이의 폭포를 이루며, 폭포의 남쪽으로 홍류동(紅流洞)에는 푸른 절벽이 깎아지른 듯이 서 있으며, 폭포는 위사(委蛇)³⁸⁾로 돌아서 흐르는 그 발치에 철쭉이 성기게 피어서 문드러지니 붉은 비단과 같다. 의림지 동쪽에 맨 꼭대기에 우뚝 선인의 옛터가 있다고 말한다.

4군(四郡)³⁹⁾의 산수는 해동(海東)⁴⁰⁾에서 이름을 휘날리는데, 오직 제천의 지세는 적은

33) 이진유(李眞儒) : 1669(현종 10)~1730(영조 6) 조선의 문신, 자는 사진(士珍), 호는 북곡(北谷), 본관은 전주(全州). 참판(參判) 대성(大成)의 아들. 1707년(숙종 33) 별시문과(別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 1716년(숙종 42) 소론으로서 「가례원류(家禮原流)」의 서문과 발문에서 소론의 영수 윤증(尹拯)을 비난한 그 필자 권상하(權尙夏)·정호(鄭鶴)의 처벌을 주장하다가 삭출(削黜), 1721년(경종 1) 정언(正言)에 기용되고, 이듬해 사간(司諫)으로써 세제(世弟 : 英祖)의 대리청정을 건의한 노론 4대신을 탄핵, 이듬해에 제거했으며, 이어 김일경(金一鏡) 등과 함께 신임사화(辛壬士禍)를 일으켜 노론을 숙청했다. 1725년 노론이 등용되자 극변(極邊)에 안치(安置)되었다가 중앙에 압송되어 문초를 받던 중 옥사했다. 글씨에 뛰어났다.

34) 마름(菱) : 바늘꽃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수초.

35) 순채(蓴菜) : 수련과에 속하는 다년생의 수초. 줄기는 원뿔꼴이고 물속에 잠겨있음, 길이 10cm 내외의 타원상 방패 모양의 잎은 어긋나고 물 위에 떠 있는데, 상면은 녹색, 하면은 자색을 띤다. 7~8월에 암홍자색의 꽃이 잎 사이에서 나온 긴 줄기 끝에 달리어 물 위에 피고, 과실군은 속존악(宿存萼)을 갖고, 혁질(革質)이며 달걀꼴이고 물속에서 익음. 어린잎은 식용함.

36) 주관(周官) : 『서경』의 주서의 편명. 먼저 주관이 지어진 연유와 당시 오관(五官)의 제도를 기록했으며, 또 그 관리는 덕을 닦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기술했음.

37) 구토(九土) : 고대 중국의 전토를 9주로 나눈 행정 구역.

38) 위사(委蛇) : 머리가 두 개 달린 뱀.

39) 4군(四郡) : ‘4군’은 충청북도내의 단양·현재·단양군, 청풍·현재·제천시·청풍면, 제천·현재·제천

평원(平遠)을 겹하여 안에는 들판으로 다다른다. 또한 이곳에 저수지가 있는데, 구석진 깊숙한 곳에 연못을 만들어 참으로 신령스런 지경에 승경지의 구역이다. 그러나 이곳에 벼슬아치로 가는 사람은 아직도 허둥거리면서 크게 장식하지 못하였다.

이 현감 사진(土珍)은 한림(寒林)출신으로 병조를 거쳐 뛰어나고 강직하다는 명성을 자부하다 이 고을로 벼슬살이 나갔으니, 비루에 살리는 뜻으로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도리로 다스리며 뛰어난 공적이 있었는데, 그 해에 정사를 이루고 여가에는 곧 의림지 위에서 소요(逍遙)하며 개탄스럽게 여기면서 흥분하며 탄식하였다. 드디어 나아가 못가의 서쪽에 치우친 높은 언덕을 개척하여 다스리고 그곳에 경영(經營)하였는데, 바위언덕에 4방의 주변에 소나무와 노송나무가 드리우며 정자는 무릇 7개의 기둥으로 하였고, 편액은 그곳의 전면에 ‘임소정(臨沼亭)’이라 하였다.

그 뒤에는 ‘후선각(候仙閣)’이라고 말한다. 난간을 두르고, 단청의 문채는 동서로 사람이 다시 바라보았다. 옛날에 소장공(蘇長公)⁴¹⁾은 서호(西湖)⁴²⁾로써 항주(杭州)⁴³⁾의 미목(眉目)⁴⁴⁾으로 삼았는데, 제천현에 의림지는 오히려 항주에 서호와 같았다.

현에 있어서 의림지가 없었다면 제천의 고을 명호로 삼기에는 부족하였을 것이다. 그러한즉 이후가 나타낸 일을 모두 가르기를 또한 어찌 가히 그치겠는가? 아! 제비가 기쁘게 나는데 초목이 무성한 옛터에 우거졌다. 풍악(豐樂)이 가니 고요하고 쓸쓸한 언덕에 샘물은 이내 왕(王)의 노래가 있으니 두 번이나 공(公)의 표장(表章)이 발휘하였다. 오히려 드러남으로써 만족하여 천고에 칭송한다. 하물며 이곳의 의림지 승경은 하늘이 만든 땅에 설치한 것이다.

사람을 기다려서 돌려 바치는 장식을 만들어서 상하의 수백년에 그런 일을 어찌 들을 수 없었겠는가? 이제 사진(士珍)을 얻어서 완성한 정자는 후에도 쫓았으니 사람이 지점을 일컬어 말하기를, “의림지의 정자에서 관방한 이후가 몸소 시작하여 계재한 도경(圖經)의 형상은 모두가 노래를 읊었다.”라고 하였다. 사진의 이름은 장차 호산(湖山)과 함께 오랫동안 또한 좋지 아니하겠는가? 또한 이후(李侯)의 고조(高祖)인 동추공(同樞公)⁴⁵⁾은 임진왜

시, 영춘·현재 단양군 영춘면의 네 지역이다.

40) 해동(海東) : 발해(渤海)의 동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으로, 옛날 우리나라를 일컬던 이름.

41) 소장공(蘇長公, 1036~1101) : 중국 북송의 문인, 당송(唐宋) 8대가의 한 사람 소식(蘇軾).

42) 서호(西湖) : 중국 철강성(浙江省) 항주 서쪽에 있는 호수.

43) 항주(杭州) : 옛 남송의 수도 임안(臨安),

44) 미목(眉目) : 눈썹과 눈, 미첩(眉睫).

란에 병사를 창군(創軍)하여 이 고을을 다스린 유애비(遺愛碑)가 있다.

증조(曾祖)인 석문공(石門公)⁴⁶⁾은 현의 관아에 있으면서 천제의 장수인 사용(謝用)⁴⁷⁾을 모시고, 재리(梓里)⁴⁸⁾를 사랑하며 소중하게 여기던 공이 머무르면서 3율(三律)을 기증하였는데, 지금도 관아의 벽에 계시하였다. 그 후에 당숙인 관성씨(觀成氏)역시 일찍이 계승하여 부임하였고, 곧 사진은 제천현을 주관하였으니 한결같이 마치 집안의 고향과 같았도다. 이미 후임자로 오르면서 어진 소리는 견주어 능히 먼저 쉬면서 또 증수하는 정사로 거의 한 이 역사(役事)이다.

공은 여기에 임소정에서 바라보면서 편안함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그네가 관망하는 유람을 갖추었다. 억누르며 당(堂)을 꾸미고 평목에 도색한 뜻이 있었도다. 이것은 또한 가히 기록으로 할 따름이다.

○ 臨沼亭記

義林池在堤川縣北數里許其大方舟其深不測有菱蓴之毛魚鼈池產蓋猶周官九土之淵浸焉池水汎濫西流爲瀑布長數尋瀑南流紅流洞蒼壁削立瀑流逶蛇循其趾躡躅盛開爛苦紅錦池東絕頂有于勒仙人舊址云四郡山水擅名於海東而惟堤地勢稍平遠兼奧曠之趣又有斯池爲之巔澤寔勝區靈境也然官于是者未遑於費飾李候士珍由翰林歷騎省負雋望直聲出補是邑不以卑棲爲義治理有殊績期年而政成暇則逍遙於池上慨然興歎遂就池西偏高阜闢治而經營之巖阿四周松檜翳然爲屋凡七楹扁其前曰臨沼之亭其背曰候仙之閣繚以欄楯文以丹綠東西者改日焉昔蘇長公以西湖爲杭州之眉目義林之於堤縣猶湖之於杭也有縣而無池則堤不足爲名邑有池而無亭觀則無以成斯池之勝然則李候之僕工告字又烏可已也噫燕喜之翁鬱壘莽豐樂之寂寥丘泉乃有王歌二公表章發揮猶足以著稱於千古況此義林之勝天作地設以待人爲之致飾而上下數百年潤焉無聞今得士珍而成之使後之人指點而稱之曰義林之有亭觀自李候始載之圖經形諸歌咏士珍之名將與湖山並久不亦善哉且候之高祖同樞公壬辰兵創宰是邑有遺愛碑曾祖石門公侍在縣衙天將謝用梓愛重公留贈三律至今揭在館壁其後堂叔觀成氏亦嘗繼作則士珍之視堤縣固猶家鄉焉戶庭焉旣嗣揚仁聲克配先休而又舉增修之政是役也不惟公餘臨眺之便行客觀遊之具抑有堂構塗槧之義焉此于可書也已

45) 동추공(同樞公) : 이유간(李惟侃, 1550~1634).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全州).

46) 석문공(石文公) : 이경직(李景稷, 1577~1640).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전주. 자는 상고(尙古) 호는 석문(石門).

47) 사용(謝用) : 명나라 강화사.

48) 재리(梓里) : 고향을 달리 이르던 말.

14. 충의루(忠義樓)

▷소재지 : 제천시 중앙로1가 (중앙공원 내)

충의루는 2003년 제천시가 밀레니엄 기념사업으로 추진한 중앙공원내에 건립한 정자이다.

제천시는 사업비 2억 1,260만원을 들여 중앙공원 내에 10.5평의 2층 규모로 조명시설을 갖춘 팔각형 모형의 누각이다.

정자이름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충의루(忠義樓)

결과, 제천이 의병의 고장으로 국난을 당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한 창의 업적을 기리고 중앙에서 발산하는 광대한 힘의 무궁함을 뜻하는 충의루로 결정하였다.

이로서 충의루는 2003년 10월 6일 제천 의병제 행사시 현판식과 함께 준공식을 갖고 정자를 개방하여 중앙공원을 찾는 시민들의 새로운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 충의루기(忠義樓記)

광복 오십오 주기 경진년 구월 초에 충의루 낙성연을 여니 아름답고 성한지라 시가지복판 아사봉 정상에 기지를 정했도나.

선열들의 충의는 용두산과 더불어 높고, 후인들의 추모함은 청풍강과 더불어 기리 흐르리라. 의림지 호수에 맑고 맑음은 옛 지인에 영대(靈臺)⁴⁹⁾요 칠성봉 점점이 선것은 옛 인의 기상이로다. 대개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므로 부터 사람과 만물이 총총하니 자연히 치도(治道)⁵⁰⁾와 란도(亂道), 왕도(王道)와 패도(霸道)⁵¹⁾의 분별이 있으니 치도와 왕도는 정도로 써 하고 란도와 패도는 힘으로 써 함이 역사에 분명히 증명되었도다.

우리나라는 오백년 예의의 나라로 도덕이 융성하고 문물이 빈비(彬斐)하였으나 조선 국말에 이르러 밖에 오랑캐가 침략하고 안으로 도적이 적이 되어 마침내 갑오년 유월 이십일에 이르러 왜적과 내적들이 군상을 협박하고 위협하여 강제로 약정을 맺으니 당당하던 우리나라가 하루아침에 조그마한 왜국이 되었도다. 이때에 화서(華西)⁵²⁾ · 중암(重庵)⁵³⁾ · 성재

49) 영대(靈臺) : 신령스러운 곳이라는 뜻으로 ‘마음’을 이르는 말.

50) 치도(治道) : 길 닦아

51) 패도(霸道) : 인의(仁義)를 무시하고 무력이나 권모(權謀)로써 권리(功利)를 오로지 하는 일

52) 화서(華西) : 이항로(李恒老) 1792(정조 16)~1868(고종 5) 학자이며 초명은 광로(光老), 자는 이술

(省齋)⁵⁴⁾의 적전(嫡傳)⁵⁵⁾ 이신 유인석(柳麟錫)⁵⁶⁾이 큰 도량과 방대한 도규의 바탕으로 나라를 근심하는 충성을 가지셨다. 을미년 봄에 흑의(黑衣)령을 내려 오랑캐의 제도를 행함이 불같이 급했다. 위로 백관으로부터 아래로 방백에 이르기까지 도적에 심복이 되었도다. 이에 유선생이 이르되 화(禍)가 이와 같은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인심이 쉽게 깨이어 수습 할 수가 없다 하시고 사우들을 통하여 오월 이일 장담에서 향음예(鄉飲禮)⁵⁷⁾를 행하니 의관하고 모인 자 일백 오육십인이라 익일 대강 예를 행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을미 팔월 이십일밤에 10도 적에 무리들이 왜놈 삼포오루에게 부탁하여 국모를 시해하고 군부(君父)를 육보이고 십일월 십오일 밤에 강제로 머리를 깎을제, 먼저 군부와 세자의 머리를 깎고 다음에

(而述). 호는 화서(華西) 본관은 벽진(碧珍), 양근(楊根)출신, 3세에 천자문을 떠고 6세에 「십팔사략(十八史略)」를 배웠으며 12세에는 『상서(尚書)』를 익혔다. 1808년 한성시에 합격했으나 과거(科舉)에 부정이 있음을 보고 이를 단념, 오로지 학문에만 전념하여 후진을 양성했다. 그후 1866년 병인 양요 때 동부승지가 되어 주전론(主戰論)을 적극 주장했다. 이어 공조참판에 승진하여 경연관(經筵官)이 되어 경복궁 증건의 중지와 취임의 시정을 촉구하는 등 대원군의 정책을 반대함으로써 그의 배척을 받으며 여생을 마쳤다. 조선왕조 말기의 가장 저명한 성리학자이며 학설은 주리론(主理論)으로서 우주론(宇宙論)에 있어서는 이원론(二元論)을 주장했다. 직언자(直言者) 우국(憂國)과 존왕양이(尊王攘夷)의 대의(大義)를 주장했기 때문에 그의 문하에서 척사위정과 창의호국(倡義護國)운동의 중심인물이 많이 나왔다.

- 53) 중암(重庵) : 김평묵(金平默) 1819(순조 19)~1888(고종 25) 학자이며 자는 치장(稚章), 호는 중암(重庵) 본관은 청풍, 이향로의 문인 영평(永平) 출신으로 감역(監役)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고, 1881년 이만손을 비롯한 만여명의 영남 유생들의 척사운동을 지원했다. 그해 7월에 다시 척양 척왜의 소(疏)로 말미암아 섬에 유배, 이듬해 임오군란으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 풀려났다. 이향로의 학문을 계승했으며, 1874년 스승의 『화서아언(華西雅言)』을 편집 간행했다.
- 54) 성재(省齋) : 유중교(柳重敎) 1821(순조 21)~1893(고종 30) 학자이며 자는 치정(致政), 호는 성재(省齋) 본관은 고흥, 양근(楊根)출신, 5세때 이향로의 문하에서 수업, 그후 김평묵 문하로 옮기고, 21세때 이향로의 명으로 『송원학동사합편강목(宋元華東史合編綱目)』을 수정했다. 1876년 선공 감역(繕工監役)에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았다. 뒤에 지평(持平)으로 임명되었으나 응하지 않고 설악산에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향로의 설을 따라 주리설(主理說)을 주장하였으나 만년에는 한원진의 호론(湖論)을 지지, 심즉기(心卽氣)의 학설을 옹호함으로써 스승 이향로의 학설에 반기를 들었다. 죽은 후 제학(提學)에 추증되었다.
- 55) 적전(嫡傳) : 정통(正統)에서 정통으로 전함. 바른 혈통을 이어받음.
- 56) 유인석(柳麟錫) : 1841(헌종 7)~1915, 학자이며 의병장으로 자는 여성(汝聖). 호는 의암(毅庵). 본관은 고흥(高興) 이향로(李恒老). 유중교(柳重敎)의 문인, 1876년(고종 13)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할 때 문하의 유생들을 이끌고 상소하여 이를 반대했고,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이후 김홍집의 친일내각이 조직되자 의병을 일으켜 총주, 제천, 등지에서 싸워 김규식, 권소 등 부패관리를 죽였으나 장기령의 관군에 패전, 단양으로 퇴거했다. 관군의 강시를 피해 만주 회인현(懷仁縣)으로 망명 하였으며, 1909년 블라디보스톡에서 13도 의군도총재에 추대되어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봉천성 관천현에서 병사했다.
- 57) 향음주례(鄉飲酒禮) : 해마다 길일을 택하여 온 고을의 유생(儒生)이 모여 향약(鄉約)을 읽고 술을 마시며 잔치하는 예절.

대원군과 이하 백관에 미치니 모든 고을이 화급하여 그 세가 조수같이 급했다. 선생이 사우(士友)들을 모아 춘추대의에 난신과 적자들은 사람마다 나서서 죽여야 한다는 의를 취하고 국가 대변(大變)에 대처할 세가지 일을 의논하여 정하니, 첫째는 의병을 들어 적을 쓸어내고 둘째는 고국을 떠나 옛 도를 지킴이요 셋째는 자정하는 것이니 각자 자기에 뜻한 대로 행하라. 십일월 이십팔일 이필희 서상열 이춘영 안승우 등이 먼저 의기(義旗)를 들어 단양장회전에서 대승을 거두고 영월읍에 모여서 류인석 선생이 의병대장이 되어 줄것을 간청하여 제천에 나가 진을 치고 주둔하니 그를 따르는 의병이 수천이었다.

병신년 정월 사일 충주성을 빼고 충주 관찰사 김규식을 잡고 적을 많이 잡았다. 그러나 중군장 이춘영이 안보전에서 죽고 수석참모 주용규가 독전 하다가 죽었다. 사월 십팔일 적장 장기렴에게 패하여 안승우가 전사하고 홍사구가 순절하고 의군이 단양으로 퇴진하여 정선을 지나 낭천에 이르러 서상열이 전사했다. 초산에 이르러 다시 백관에게 격문을 보냈으며, 이범직이 적에게 잡혀 죽었다. 암록강을 건너 파저강에 이르니 그 고을 원이 강제로 의병을 해산시키니 통곡하고 흘어졌다. 통화현에 이르러 망국단을 쌓고 초하루와 보름에 고국을 바라보고 절하니 회인현에 잠시 있다가 나 러시아 땅 해삼항으로 들어갔다.

경술년 오월 십오일 이범윤과 이남기와 이상설이 청으로 하여 십삼도의군 도총재(都總裁)에 추대하여 오르셨다. 이에 앞서 만국평화회의 만인 서명할 때 선생이 첫머리에 서명하였다. 선생이 요동에 계시면서 의병 기지(基地)를 정하고 인심을 격동하여 다시 의병을 일으킬 계획으로 본국의 각 의병소에 격문을 보냈다.

을묘년(乙卯年)에 선생이 졸(卒)하시니 향년 칠십사세였다.

경술국치 이후에 같은 변원 후현(後賢)에 박은식 이상설 모든 현인들이 상해에 들어가 임시정부를 세우고 박은식을 대통령으로 세웠고, 광복당시 김구로써 주석(主席)을 삼았으니 시종 화서연원(華西淵源)이 주관하였다. 이로써 보건대 우리 제천의 의병은 삼십육년의 중단된 역사를 이었으니 어찌 위대하지 않으리오. 같은 연원에 같이 의병하신 분들을 다 논하지는 못하나 유인석 이소웅 서상설 이도철 문석봉 김복한 이설 정희영 이인웅 이봉환 이홍재 박경수 이춘영 안승우 이필희 신지수 이범직 곽종석 김병수 김병대 박기덕 김동희 정인협 박세화 김구호 송석 홍승학 조준교 심학수 이필근 장충식 권옥연 신궁휴 이경기 이문흠 우기정 서상협 박종백 김상한 이강연 유진필 정규달 홍우관 김병기 한명교 박제방 이인성 이제열 원도상 안종옹 한택동 채순묵 권필수 이규병 이명로 정당 이병선 이진하 정운경 이완하 이원영 이풍립 한여순 김성한 강난수 성철영 정근원 권기수 김동관 홍대석 유해봉 조동근 한동식 이복영 구철조 이건용 서상무 홍우정 임이섭 이기중 성규용 이민정 김

사중 김사민 안홍원 권호선 김상태 안신모 정원모 정인설 조달승 김태원 심희경 윤웅선 김연식 민영복 이원하 이한기 김최규 조성악 심상윤 안성해 김원경 박종문 라시운 정익 이복연 이재성 이진열 이병만 신명균 장시현 주성호 김용성 구연상 민광현 윤종영 조봉호 이면재 정운호 신용균 임호 심이섭 권익상 조동완 이하 무려 수백인이 모두 정성을 다하고 의를 돈독히 하지 않은이 없었다. 주용규 유홍석 이병식 어윤석 윤정섭 유치경 김영록 김이준 양두환 박주순 남필원 양영섭 최병식 오인영 흥승의 윤양섭 원용정 최열 송상규 박정수 신흥규 이정규 김화식 이석영 신석조 김사정 원용석 윤정학 원규상 김연조 신현묵 이기진 배시강 이근달 어경선 구자봉 원철상 주현구 흥선표 이조승 박제규 홍덕표 정화용 홍사구 및 이상 먼저 일한 모든 의사들은 특별히 의에 도타울뿐만 아니라 문사와 스승의 의를 겸하여 의혈과 도심으로 죽기를 작정하고 전후좌우에서 의병의 세를 이루고 기강을 진동함이 진실로 그분들의 힘을 입었고, 또 그 장수의 소임과 종사를 곁들여 다 기록하지 못하노라.

또 다른 의병사를 보니 을사 의병에 정운경 이석규 강수명 차원영 장익환 김지현 정해훈 원건상 김홍경 제현으로 더불어 다시 의기를 들었으나 하늘이 돋지 아니하여 잡혀서 옥고를 치르셨다.

정미년 이강년(李康年)⁵⁸⁾이 나라일이 날로 잘못됨을 보고 오석 박약재(博約齋)⁵⁹⁾에서 다시 의병을 거사했다. 이에 앞서 을미년에 문경에서 의병을 일으켜 안동 관찰사 김석중의 부리들을 베이고 의병의 명성을 크게 떨치셨다. 그리고 다시 유인석 선생을 찾아뵙고 사사하여 유격장(遊擊將)이 되셨다. 정미(丁未)의병에 김상태 이만원 백남규 하한서 정연칠 권용일 윤기영 신태원 이종봉 이용로 천보락 박갑주 허섭 변학기 이세영 유시연 김운선 박우영 이창교 최동백 주현삼 유병선 김영식 최용출 설창해 김덕수 정재덕 안춘홍 윤용구 윤희선 이사전 박경팔 이명상 성병태 송재현 심장섭 조정희 장진성 이상은 장수(將帥)에 소임이요 신수 신경희 원철상 임석준 이정규 강순희 한태섭 이백봉 이규현 정해창 주광식 김필

58) 이강년(李康年) : 1858(철종 9)~1908(융희 2)의병장으로 자는 낙인(樂仁) 호는 운강(雲崗), 본관은 전주, 문경출신 유인석의 문인으로 1880년 무과(武科)에 급제하였으며 선전관(宣傳官)이 되었다.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자 사직하고 낙향, 1894년 동학혁명 때 문경의 동학군을 지휘하여 왜병과 탐관오리를 무찔렀다. 이듬해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켜 안동관찰사 김석중 등 부정한 관리를 죽이고 제천에서 유인석 의병과 합류하여 유격장이 되었다. 1905년 을사조약이 맺어지고 1907년 고종이 선위를 강요당하는 등 일본의 만행이 노골화되자 영춘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며 청풍의 금수산에서 체포되어 사형되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이 수여되었다.

59) 박약재(博約齋) : 제천시 두학동 산 57번지에 위치한 박약재는 진주 강씨 문중들이 자녀 교육을 목적으로 세운 전래의 강단으로 조선중기에 창건되었다. 효종조 정묘호란때 척화를 상소한 상곡(商谷) 강유(姜瑜)가 수학한 곳이다. 박약재의 현판문은 유인석의 친필이고, 1907년 호서 의병장 이강년의 전투시인 「운강 창의일록」을 강순희(姜順熙), 박정수(朴貞洙), 이화중(李和重) 등이 이 서재에서 편찬하였다.

운 조용필 장복삼 이상은 참모(參謀)라 또 종사(從事)는 강병수로부터 백여인 이요 좌종사 여러 백명 이선생이 죽기로 작정하고 충의(忠義)를 다하여 충청·경상·강원도를 두루 지나며 도적들을 잡고 오십여명을 죽이니 적들이 가장 두려워하였다.

무신(戊申)년에 불행하게 탄환을 맞고 잡혀 서울에 암송되어 교수형을 당하셨다. 김상태 선생도 잡혀 대구 감옥에서 절사하였으며, 이름 없이 죽은 의졸은 그 수를 세기조차 어려워 측은하여 향음에 사족들과 향민들의 의병을 도운일 또한 그 공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아 아! 선열들께서 대의를 천하에 폐시고 만세에 밝히며 만고에 강상(綱常)⁶⁰⁾을 세우시고 억만생령(靈)을 보전하셨으니 이 선열들이 아니면 어찌 금일에 우리에 삶이 편히 잠을 자리오, 하늘과 땅이 폐(弊)하지 않으면 대의가 민멸(泯滅)⁶¹⁾ 치 않을 것이요 일월이 어두워 지지 않으면 큰 이름이 썩지 않으리라.

이제 창의(倡義) 일백오주기를 맞이하여 시장 권희필이 온 고을에 공의(公議)⁶²⁾를 모아 누각을 세워 대의를 밝히고 세상에 전하니 진실로 아름다운 거사로다, 탄식하노니 산해(山海)같이 많은 사적을 어찌 편판(片板)에 다 쓰리오, 얇고 좁은 식견으로 감히 줄기만 기술하노라.

해 경진년 양력 십월 일

진주인 강성열이 삼가 기술하고 강릉인 함영원이 삼가 쓰노라

○ 忠義樓記

光復五十五週期歲庚辰戌月之初設忠義樓落成宴挾哉盛矣卜地於市央衙舍峯頂先烈忠義與龍山高屹後人追慕與清江長流義湖澄清古知人之靈臺七峯點立古仁人之氣像蓋自天地肇判人物總總自有治亂王霸之分治王以道亂霸以力史有明證矣惟我國則五百年禮義之邦道德隆盛文物彬斐至國末夷猶獮內賊瓜牙卒至甲午六月二十日外夷內賊迫脅君上強締約定以堂堂我國爲一朝小倭時有華重省嫡傳毅菴柳麟錫有弘量大度之資慷慨憂國之忠乙未春勒行黑衣令夷制火急自上百官下至方伯爲賊心腹於是柳先生謂禍及如此昧然無事人心易摧莫可收拾也遂通上友五月二日行鄉飲禮于長潭衣冠會者百五六六十人笠日行大講禮以定民情乙未八月二十日夜十賊革囑倭三浦弑國母辱君父十一月十五日夜勒行削髮先辱君父世子次及大院君以下百官火急列邑其勢若潮湧會士友以取春秋大義亂臣賊子人人得以誅之義議定處變三事一日舉義掃清二日去之守舊三日自靖隨之各宜十一月二十

60) 강상(綱常) : 삼강(三綱)과 오상(五常). 곧,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61) 민멸(泯滅) : 형적(形迹)이 아주 없어짐.

62) 공의(公議) : 공평한 의론, 공론(公論).

八日門人士友李弼熙徐相烈李春永安承禹諸人先舉義旗大捷長淮戰旋會寧越邑諸義人泣請柳先生登壇爲將進屯堤川風聲所到響應如雷義旅數千丙申正月四日進拔忠州誅觀察使金奎軾殺賊甚多然李春永於安保戰死朱庸奎督戰死之二十日出城還據堤川誅叛凶四月十三日爲賊張基濂所敗安承禹死之洪思九殉之義軍退丹陽過旋善至狼川徐相烈戰死之波瀆江州倅強解義兵終日痛哭而散至通化縣築望國壇朔望望拜本國寓懷仁縣更入俄地海參港庚戌五月十五日以李範允李南基李相高之請推爲十三道義軍都總裁登壇先是海牙萬國平和會議萬人署名柳先生姓名首書焉先生在遼定基鼓動人心再振義之圖繼激本國各義兵所乙卯先生卒享年七十四庚戌國恥後賢朴殷植李相高諸賢人上海建臨時政府以朴殷植爲大統領光復當時以金九爲主席始終華西淵源主幹也以此觀之吾鄉倡義實繼三十六年斷史豈不偉哉蓋同源同義之人不能枚舉略論其人如柳麟錫李昭應徐相烈李道撒文錫鳳金福漢李楔鄭喜永李寅應李鳳煥李興宰朴慶壽李春永安承禹李弼熙申芝秀李範稷郭鍾錫金炳洙金炳大朴基德金東曦鄭寅協朴世和金龜浩宋楨洪承學趙駿教沈學洙李弼根張忠植權玉淵申肯休李敬器李文欽禹冀鼎徐相協朴宗怕金商翰李康季俞鎮弼丁奎達洪宇觀金炳驥韓明教朴齋昉李寅聲李載烈元道當安鍾應韓宅東蔡淳默權泌洙李奎炳李明魯鄭鎧李炳善李晉夏鄭雲慶李完夏李元永李豐林韓汝淳金星漢姜蘭秀成撤水鄭近源權變洙金東觀洪大錫柳海鵬趙東根韓東植李復永具哲祖李建龍徐相懋洪佑廷林理燮李機重成奎庸李敏政金思重金思敏安鴻遠權灝善金相台安慎模鄭遠模鄭寅高趙達承金泰元沈義慶尹膺善金鍾植閔永復李元廈李漢紀金最圭趙性岳沈相淪安成海金源京朴鍾文羅時雲鄭演李福淵李載誠李進烈李炳晚申明均張始鉉朱星昊金用聲具然庠閔光鉉尹宗榮趙鳳鎬李冕宰鄭雲灝申龍均任鎬沈理燮權益相趙東完以下無慮累數百人皆莫不齊誠篤義朱庸奎柳弘錫李炳植魚允奭尹鼎燮俞致慶金永祿金復俊梁斗煥朴胄淳南泌元洪永燮崔炳軾吳寅永洪承義尹陽燮元容正崔烈朱尚奎朴貞洙沈興奎李正奎金華植李錫永申錫祖金思鼎元容錫尹正學元奎常金演祖申鉉默李起振裴是綱李根達魚敬善具滋鳳元澈常朱鉉九洪選杓李肇承朴齊達洪德杓鄭華鎔洪思九及己上先事諸人非特篤於義兼上友師生之誼血心辦死先後左右舉義之成勢振綱實賴其力且其將任從事不遑盡記見他書乙巳鄭雲慶與李圭錫姜秀明池源永張益煥金知鉉鄭解薰元健常金鴻卿諸賢再舉義旗天不祚佑竟被捉獄丁未李康季見國事日非再舉義於烏石博約齊先是乙未倡義于聞慶誅安東觀察使金庚中輩義聲大振既而謁柳先生爲遊擊將丁未之役金尚台李萬源自南奎河漢瑞鄭淵鑑權用旣尹基榮申泰元李重鳳李容魯千普洛朴甲胃許燮邊鶴基李世榮柳始然金雲先朴尤永李昌教崔東白朱鉉三劉秉先金永軾崔用薛昌海金德秀鄭在德安春興尹容九尹喜善李上鎮朴敬八李明相成秉泰宋在賢沈章燮趙正熙張進聖以上將任也申櫟申景熙元哲常任夷準李正奎姜順熙韓台燮李伯龍李奎顯鄭海昌朱光植金弼雲趙鏞弼張復三以上參謀也又從事自姜炳秀百餘人坐從事累百李先生辦死心盡忠義力戰于忠慶江遍歷誅賊爵五十餘賊最畏怯戊申不幸中丸被擒押京當絞首刑金尚台被押大邱獄死又以爲

無名士卒其數難算尤惻隱矣又以日乙未在鄉上族鄉民助義亦不可不書之功也於戲先烈伸大義於天下曉大道於萬世扶植萬古綱常保全億萬生靈微先賢安知今日吾生之安眠也此乾坤不憲則大義不泯日月不晦則大名不朽偉哉今當倡義一百五週期市長權熙弼廣合全鄉之公議壯建樓閣以彰大義以傳永世誠美舉也于嗟山海事蹟豈片板以淺陋識見敢述梗概焉.

歲庚辰陽十月 二十一

晉州人 姜聲烈 謹記 / 江陵人 咸泳源 謹書

15. 탁사정(濯斯亭)

▷ 소재지 : 제천시 봉양읍 구학리 산 224
탁사정은 봉양읍 구학리 산 224에 위치하고 있는데, 강가 높은 절벽위 소나무와 잡목림 속에 세워져 있다.
조선 선조 때의 임응룡(任應龍)이 제주수사(濟州守使)로 있다가 귀향할 때에 해송(海松) 여덟 그루를 가지고 와서 이식하였다 해서 그의 아들 임희운(任希雲)이 정자를 세우고 팔송정(八松亭)이라 칭하였고, 1925년에 후손 임윤근(任潤根)이 팔송정 옛터에 정자를 재건하였고, 옥파 원규상(玉波 元奎常)이 탁사정이라 이름 하였다.



탁사정(濯斯亭)

탁사정이란 말의 유래는 중국 전국시대 초나라 사람 굴원(屈原, B.C. 343?~277?)의 어부사에 나오는 「창랑지수청혜탁오영 창랑지수탁혜탁오족 (滄浪之水清兮濯吾纓 滄浪之水濁兮濯吾足)」이란 것을 줄여 「청사탁영탁사탁족 (清斯濯纓濁斯濯足)」이라고 말하며 속세의 만가지 때묻은 것을 깨끗이 씻고 자연과 같이 소박하게 살자는 것을 뜻하며, 이는 인간의 참다운 본성을 높이 평가한 사려 깊은 뜻이다.

구조는 목조 기와집의 팔작집으로 정면 2간, 측면 2간이다.

이 정자의 아래 대암(岱巖)은 강물과 어울려 경개가 절승이다.

○ 근차 탁사정 중수운(謹次濯斯亭重修韻)

기암여수탁사연(奇巖麗水濯斯連) 기암은 수려하고 탁사정에 냇물이 연이으니
승지풍광만함전(勝地風光滿檻前) 승지의 풍광은 난간 앞에서 빛나네
구학유림원사역(九鶴幽林園四域) 9학은 그윽한 숲에 모이니 사방의 땅이 동산이요
임공가적주천년(任公佳蹟住千年) 임공의 가상한 발자취 천년을 머무르네
루구연사여리위(樓九蓮社如離僞) 루정에 구연의 단청은 편것 처럼 모이니
경의상산불선선(境擬商山不羨仙) 지경을 상산에 비겨 신선을 선망하지 않았네
증일등림종미득(曾日登臨終未得) 일찍이 낫에 등림했으나 아직 얻지못하고 그치니
상금만수방청연(相今晚手倣淸緣) 이제 서로 저물게 청연에 의하여 힘쓰네.

堤川 警察署長 東衡 金元·謹稿

탁사정립벽산두(濯斯亭立碧山頭) 탁사정은 푸른 산머리에 우뚝 서니
회한풍광만목수(喜限風光滿日收) 한량한 풍광 가득히 기쁨의 시야로 거두네
총협총암기절처(忽峽層岩奇絕處) 푸른 골짜기 총암이 기이한 절경이 자리하니
명사백수천명주(明沙白水擅名洲) 명사에 흰 물결은 이름을 드날리는 모래톱일세
봉명일거귀하일(鳳鳴一去歸何日) 봉황이 울다 한번 가서 어느 날 돌아오리까?
학서구우수기추(鶴栖九羽瘦幾秋) 아홉 마리 학이 몇 번이나 가을을 찾아서 깃들었나?
단원원도회병지(但願遠圖恢並地) 단지 멀리서 꾀하고 넓혀서 아우른 땅을 원하고
태평가리악복유(太平歌裡樂腹遊) 태평한 노래 속에 배를 두드리고 노닐며 즐기네.

堤川 郡守 孫錫均

16. 팔영루(八詠樓)

> 소재지 : 청풍면 물태리 산 6-5

청풍부의 관문이었던 이 팔영루는 「팔영루 사적비(事蹟碑)」에 의하면 조선 숙종 28년 (1702) 부사 이기홍(李箕洪)⁶³⁾이 창건하고, 현덕문(賢德門)이라 한 것을 고종 7년(1870)이

63) 이기홍(李箕洪) : 1641(인조 19)~1708(숙종 34) 학자, 초명은 기주(箕疇), 자는 여구(汝九), 호는 직재(直齋). 본관 전주(全州), 부사과(副司果) 숙(塾)의 아들. 이지렴(李之濂) · 송시열(宋時烈)의 문인. 학행(學行)으로 천거되어 효릉참봉(孝陵參奉)이 되었고, 1689년(숙종 15) 스승 송시열이 제주로 귀양 가게 되자 동문 40여명과 함께 이를 변론, 회령(會寧)에 유배되어 5년 동안 그곳에서 후진을 교육 했다. 그 뒤 통천 현감(通川縣監)을 거쳐 청풍 부사를 지냈다.



팔영루(八詠樓)

부사 이직현(李稷鉉)이 중수 하였고, 고종 때
부사 민치상(閔致庠)⁶⁴⁾이 청풍명월의 8경을
시제로한 팔영시(八詠詩)가 있어 팔영루라
통칭하기에 이르렀다.

팔영루의 현판문은 민치상의 글씨이고,
사적비는 충계입구에 현존 하였는데 문화재
이전시 문화재단지 비석군으로 이전하였고,
이 비는 고종 7년(1870)에 세웠던 것이다.

건물구조는 높이 2.2m의 석축기단을 쌓

고 그 중앙에 4각의 문을 내었으며, 기단위에 누각을 세웠다.

목조 기와집으로 전면 3간, 측면 2간의 팔작지붕으로 문 천정에는 호랑이 그림(虎畫)이
그려져 있으나 퇴색하여 겨우 원형을 알아볼 정도이었으나 요즈음 단청을 하였다.

건평은 약 15평, 1976년 12월 23일 지방문화재 제35호로 지정받았으며 1985년 말 청풍
면 문화재단지 입구로 이전 복원하였다.

○ 팔영루 사적비

이 비는 팔영루(八詠樓)에 대한 사적(事蹟)을 적은 것으로 고종 7년(1870)에 화강암으로
청풍면 읍리 286번지 팔영루 앞에 세워졌다.

이 지역이 수몰되어 팔영루 이전과 함께 청풍문화재 단지 내 비석군지에 이전 하였다.

팔영루가 처음 세워진 것이 숙종 28년(1702)이었으나, 이 비는 팔영루가 창건 된지 168
년이 지나서 고종 7년, 이 팔영루를 부사 이범직(李範稷)이 중수하면서 팔영루 앞에 세운
것이다.

64) 민치상(閔致庠) : 1825(순조 25)~? 문신, 자는 경양(景養), 호는 하당(荷堂). 본관은 여흥(驪興), 여
양부원군 유중(維重)의 5대손, 용현(龍顯)의 아들, 1845년(gis종 11)에 생원이 되었고, 이듬해 식년
문과(式年文科)에 을과(乙科)로 급제 1850년 홍문관 벼슬에 등용되었고 이해 사은 겸 세폐사(謝恩
겸 歲幣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859년 대사성, 이듬해 홍문관 제학(提學)을
역임, 1872년 동지사로 청나라에 다녀와 예조 · 공조 · 병조의 판서를 역임, 1882년 임오군란 때 관
군에게 저격당했으나 무사했다. 시호는 문목(文穆)이다.

17. 풍화루(風化樓)

풍화루는 향교(鄉校)에 있다.

· 風化樓舊在鄉校

풍화루는 제천시 교동 86번지 제천향교에 소재했었다.

『제천군지, 1969』에 “풍화루는 향교에 있었다. 선조 23년(1590) 청전리에서 산 남방(교동)으로 6칸의 풍화루를 이전하였더니 지금은 없다.”라고 하였다. 풍화루는 유생들이 여가선용으로 사색(思索)을 하거나 시(詩)를 음미한 곳으로 1907년 의병전으로 소실되었다. 한편 제천 유림들은 풍화루의 복원을 위하여 노력해왔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권영수(權寧守) 전교가 취임하면서 중요사업 중 하나인 풍화루 복원을 위하여 관계요로에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있어 머지않아 복원이 이루어 질것이다.

18. 한벽루(寒碧樓)

▷ 소재지 : 청풍면 물태리 산 6-5

한벽루는 고려 충숙왕 4년(1317)에 창건되어 제천시 청풍면 읍리 203-1에 위치하고 있었으나 충주댐 건설로 1982년에서 1985년 말까지 이전 조성하여 현 위치는 청풍면 물태리 산 6-5 문화재단지 안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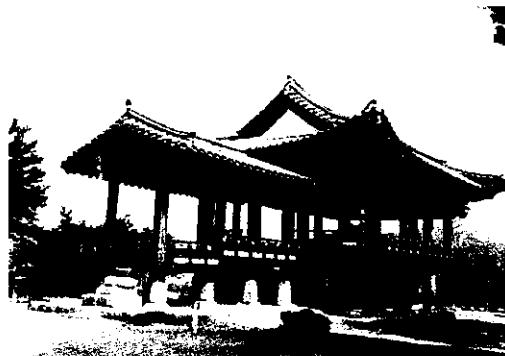
1971년 1월 8일 보물 제528호로 지정된 목조(건평 30평) 건축물이다.

이 루(樓)는 석축토단의 덤벙주초상(柱礎上)에 엔타시스 수법을 쓴 충하주를 세우고, 마루를 설치, 정면 4간, 측면 3간으로 된 팔각지붕에 주심포계양식(柱心包系樣式)인데 보머리 끝에 봉황(鳳凰)머리를 별조(別影), 수설(垂舌)과 앙설(仰舌)을 길게 빼어내어 연화를 얹었다.

두공(頭工)과 두공간에는 화반을 놓아 주심장설(柱心長舌)과, 도리(道理)를 받쳤다.

루(樓)의 우측에는 정면 3간, 측면 1간의 맷배 지붕으로 된 계단형 익랑(翼廊)을 달고 익랑의 주초는 덤벙 주초상에 4각 석주를 얹고 그 위에 8각 기둥을 받쳤다.

익랑의 둑근 연목(椽木)은 도리 밖으로 네모나게 부연(副椽)을 대신하여 뻗었다.



한벽루(寒碧樓)

누각에는 송우암(宋尤庵)⁶⁵⁾, 부사 박필문(朴弼文), 곡은 김수중(金壽增), 추사 김정희(金正喜)⁶⁶⁾의 「청풍한벽루(淸風寒碧樓)」라 명한 액자가 있고 창석 이준(李俊)⁶⁷⁾의 중수기가 있다.

조선 인조 12년(1634)에 쓴 중수기에는 「승정 갑술 군수 권경개창(崇禎甲戌郡守權璥
改○)」이라 기명되었는데, 건물방식이 시대와 부합되며 이 건물은 승정년간의 건축양식을 잘 갖춘 것으로 포선결구수법(包線結構手法)이 특이하며, 익랑채의 설치는 한국 조유의 것으로 탁목시작수법(椽木施作手法)은 흔히 볼 수 없는 특수한 형의 것이다.

한벽루는 고려 충숙왕 4년(1317)에 현승 청공(懸僧淸恭)이 왕사가 되자 청풍현이 군으로 승격, 이를 기념하기 위해 객사 동쪽에 창건하고 조선 태조 6년(1397)에 군수 정수홍(鄭守弘)이 중수하였으며, 호정 하륜(浩亭 河峯)⁶⁸⁾의 기문이 있다.

인조 12년(1634)에 군수 권경(權璥)이 개창하고 그 후 고종 7년(1870)에 부사 이직현(李稷鉉)이 중수하였으며 고종 37년(1900)에는 현인복(玄仁福) 부사가 일신 보수 하였다가 1972년 대홍수로 완전 파괴되었던 것을 1975년 원래의 양식대로 복원 한후 1985년 말 수몰지역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 한벽루 중수비

이 비는 인조(仁祖) 12년(1634)에 한벽루의 중수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다. 이준

65) 송우암(宋尤庵) : 송시열(宋時烈) 1607(선조 40)~1689(숙종 15), 학자이며 노론(老論)의 영수(領袖). 아명(兒名)은 성뢰(聖齋),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 · 화양동주(華陽洞主), 본관은 은진(恩津), 갑조(甲祚)의 아들, 김장생(金長生) · 김집(金集)의 문인

66) 김정희(金正喜) : 1786(정조 10)~1856(철종 7) 문신 · 문인 · 금석학자(金石學者) · 서화가, 자는 원춘(元春), 호는 완당(阮堂) · 추사(秋史) · 예당(禮堂) · 시암(詩庵) · 과파(果坡) · 노과(老果), 본관은 경주. 판서 노경(魯敬)의 아들. 백부 노영(魯永)에게 입양. 벼슬은 이조참판에 까지 이르렀으며, 역대의 명필을 연구, 그 장점을 모아서 독특한 추사체를 대성한 명필로서 특히 예서 · 행서에는 전무 후무한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다.

67) 이준(李俊) : 1560(명종 15)~1635(인조 13), 문신으로 자는 숙평(叔平), 호는 창석(蒼石) · 유계(酉溪) 본관은 흥양(興陽), 유성룡의 문인으로 1591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특히 중국 역대 왕들의 덕행과 신하들의 정사(正邪)에 밝힌 『중흥귀감(中興龜鑑)』을 편술, 왕에게 바쳤다.

68) 하륜(河峯) : 1347(충목왕 3)~1416(태종 16) 고려 · 조선의 문신이며, 자는 대림(大臨), 호는 호정(浩亭), 본관은 진주. 순종 부사 윤린의 아들 1365년(공민왕 14)에 문과에 급제. 여러 관직을 거쳐 제1차 왕자의 난 때 방원(芳遠)을 도와 공을 세우고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승진, 그 뒤 판의홍삼군부사(判義興三軍府使)를 거쳐 우정승이 되어 진산백(晋山伯)으로 진봉(進封), 이 해 태종이 즉위하자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에 책록 되었으며, 1412년 좌의정을 지내고, 1416년 70세로 치사(致仕) 진산 부원군에 진봉되어 왕명으로 힘길도에 있는 선왕(先王)의 능침을 순심(巡審)하고 귀로에서 죽었다.

(李唆)의 중수기에는, 한벽루는 고려 충영왕 4년(1317)에 청풍현의 중인 청공(淸恭)이 왕사가되어 현에서 군으로 승격한것을 기념하기위해 객사(客舍)동쪽에 창건한 것인데 한벽루 중수때 이 한벽루 앞에 세웠던 비가 이 비이다.

이 비의 원래의 위치는 수몰전 청풍면 읍리 203-1에 있었으나, 수몰지역으로 청풍문화재 단지 내의 비석군지에 이전하였다.

이 비의 크기는 세로 1.43m, 가로 45cm이며 화강암으로 만들어졌다. 이 비는 건축양식과 중수한 시대가 연대적으로 잘 부합된다고 보겠다.

19. 호월정(湖月亭)

호월정은 의림지에서 남서쪽에 산봉우리(해발 332m)를 신월산(新月山)이라고 부른다.

이산은 속칭 신털이 봉으로 부르는데, 진섭현(振櫟軒)에서 연월한다. 호월정은 신월산에 있었다고 하는데, 신월산에 등정하여 호월정지(湖月亭址)를 살폈으나 정자 터는 찾을 수 없었다.

○ 호월정기(湖月亭記)

호월정은 신월산의 최고 정상부에 있었는데, 임지(臨池)를 굽어서 내려다보면 아득히 넓은 호수가 비추며 떠를 두른다. 그 명칭은 이로써 창활(敞豁)한 혼(軒)으로 시원하니 사람으로 하여금 혀공에 의지하여 진애의 생각을 보낸다.

○ 湖月亭記

· 亭在新月山最高頂俯瞰林池渺瀾映帶其名之以此敞豁軒爽令人有憑虛出塵想

20. 홍루정(紅樓亭)

홍루정은 의림지(義林池) 폭포(瀑布)의 곁에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 紅樓亭在義林池瀑布傍今無

홍루정(紅樓亭)

초각신성팔구연(草閣新成八九椽) 초가 누각을 8~9개의 서까래를 새로 완성하고

좌래비폭락청천(坐來飛瀑落青天) 앉았으니 푸른 하늘에 폭포수 떨어져 날아오네
무릉교반최선동(武陵橋畔崔仙洞) 무릉의 교반은 최고의 신선 골짜기요
화자강두사객천(華子岡頭謝客泉) 화자는 언덕위에 사객의 원천일세
단학방지조화묘(搏攫方知造化妙) 엉기어 움키니 사방으로 조화가 현모함을 알겠는데
경영실자사군현(經營實藉使君賢) 사군이 어진 경영의 결실이 자자하구나
청간삼자미간액(請看三字楣間額) 청컨대 문미 사이에 3자의 현액을 바라보니
류여호산만고전(留與湖山萬古傳) 호산에 머물러 주기를 만고에 전하네.

김이만(金履萬)의 『학고집(鶴皋集)』

○ 참고자료

제천·제원사 / 1988 제천시·제원군

청풍지 / 2003 (柳今烈 編著) 청풍면사무소

제천시지 / 2004 제천시지 편찬위원회

제천향토사료집 / 2008 (柳今烈 譯註) 제천문화원

증평군의 누정

증평향토사연구회 강신욱

1. 구암서원지(龜巖書院址) 누각

조은(鈞隱) 신경행(辛景行·1547~1623)이 건립한 구암서원지 누각은 충청대 박물관이 2007년 3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한 구암서원지 지표조사를 통해 추정되고 있다.

증평읍 남차리 산 9 일대에 위치한 구암서원지는 2006년 5월 24일 증평군 향토유적 11호로 지정됐다.

충청대 박물관 지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구암서원지 지표상에 노출된 유구는 각주형 초석군과 축대, 기단석재 등이다.¹⁾

조사단은 이곳에 남아 있는 4매의 각주형 초석이 누각 건물지의 초석으로 보고 있다.

단면상 긴 사다리꼴인 이들 초석 가운데 2매는 남쪽 축대 면에 조성돼 있고 다른 2매는 안쪽에 조성돼 있다.

초석의 동서 간 거리는 171cm이고 남북 간 거리는 동쪽이 128cm, 서쪽이 191cm로 간격이 달라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초석은 계곡의 규모라고 하긴 왜소한 물줄기와 접해 있다.

조사단은 이에 따라 이 건물지는 일반 건물이나 사찰, 관청 등은 아니고 구암서원의 부속 시설인 누각 건물지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초석 아래 계곡부 쪽에는 건물을 조성하기 위해 쌓은 축대가 축조돼 있으나 대부분 퇴적 흙에 덮여 원형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구암서원지는 그동안 구계서원지(龜溪書院祉)로 알려졌으나 충청대 박물관은 조선 영조 35년(1759)과 39년(1763)에 간행한 「열읍원우사적(열읍원우사적)」과 고종 7년(1870)에 간행한 『청안현읍지』, 대한제국 광무 3년(1899)에 간행한 『청안군읍지』 등에 '구암서원'으로 기록된 것을 들어 '구암서원지'에 더 큰 부게를 뒀다.

1) 증평군·충청대박물관, 『증평 구암(구계)서원지 지표조사 보고서』, 2007, 119쪽.



증평읍 남차리 구암서원지의 누각 터

2. 한사정(閑士亭)

증평읍 울리 원평마을에는 한사정이란 정자가 있었다.

한사정에 대해서는 괴산군이 1969년 펴낸 『괴산군지』에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曾坪邑 市街地에서 清安行 街道를 따라가다가 曾川洞에서 버리고 栗里行 街道를 가면 竹里 院坪部落 뒤 三寶山 기슭에 있다.

碩儒 儉竹 先生의 德을 追慕하는 뜻으로 先生의 子孫과 先生의 門人 中 金東輝, 金殷洙 等이 協力하여 一九六五年에 建立, 先生의 孫 金襄演으로 하여금 守護케 하고 있다.

廉竹 先生의 名은 金好奐이니 舊韓末 清安縣이던 現 曾坪邑 竹里의 安東 金氏 名門에 태어나 學識과 德望이 높아 清塘의 高士로서 尊敬받았다 하며 世間의 名利를 浮雲과 같이 여겨 오직 學業을 研磨하고 人格을 陶冶함에 힘썼으므로 四方에서 모여 들어 先生의 薰陶를 받은 문인이 三百八十人에 達하였다 한다. 2)

2) 괴산군지편찬위원회, 『괴산군지』, 1969, 450~451쪽.

증평읍에서 태어난 겸죽(僊竹) 김호석(金好奭)의 학식과 덕망을 널리 기리기 위해 그의 제자와 자손들이 건립했다.

이 때의 기록에는 한사정의 건물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20여년 뒤에 펴낸 『증보 괴산군지』에는 건물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 서술돼 있다.

건물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이었다. 안에는 통칸에 마루를 깔고 난간을 돌렸으며 정자 밖에는 ‘閑士亭’(한사정)이란 현판이 걸려 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이 한사정은 건립된 지 약 30년 뒤인 1990년대 장마로 무너졌다.

현 원평리 노인정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원골에 건립된 한사정은 1990년대 어느 해인가 많은 비가 내려 붕괴됐다.³⁾



증평읍 죽리 한사정 터 원경

3) 마을 주민 황병옥씨(1936년생)는 “마을 뒤편 삼보산 기슭 원골에, 지금은 집이 한 채 있고 그 옆에 조경수가 심어져 있는 그곳에 정자(한사정)를 지었는데 10여년 전에 비가 많이 내려 무너졌다”고 밝혔다.

진천의 누정

진천향토사연구회 이인석

I. 진천의 누정

1. 괴사당

- 1). 정자의 이름 : 괴사당(樂真堂)
- 2). 위치 :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삼수초등학교
- 3). 건립자 : 이희조(李喜朝 ?~?)
- 4). 건립연대 : 조선시대
- 5). 현존여부 : 부
- 6). 기문

愧四亭記

惟我明道先生得孔孟之道以達乎文王之心而得其一言之要曰視民如傷四字而已孟子嘗歷敍群聖之德惟以比四字稱之於文王夫文王之德與堯舜齊並則可謂巍巍蕩蕩無能名焉而孟子獨稱此一言者其意以爲徒言聖人之大而不以事行實之則徒爲莽蕩無所捉摸不足爲後世之準也夫儒者之道以天地爲父母則凡生乎天地之間者雖昆蟲草木并是吾與而皆在所愛之中矣況乎同胞之吾民哉其痒疴疾痛舉切吾身者此自然之理也周公曰文王我師也夫文王之可師者何限而今先生獨以此爲心則乃所優爲而猶曰愧云者亦豈堯舜猶病之意耶延安李喜朝同甫以學道愛人之術來蒞常山首以此約以爲愧四而揭於治事之堂吾嘉鄆縣上元之政得行於常山也嗚呼爲官蒞民者°孰不知此言之爲可師法哉然而人欲之私蔽於方寸之間則一膜之外便爲胡越殘忍暴虐視民如仇讎夫豈其性獨異於文王明道哉同甫讀程子書蔚然興起於此可謂善學程子者矣雖然孟子之於文王乃以望道如未見配此四字而並稱之夫豈先生有所取捨於其間哉夫必先有下一句然後其於上一句可庶幾也孟子嘗以百世師稱夷惠而至論其道德之大成則反不與焉此則同甫之所當知也潘南朴和叔方在楊山讀聖賢書願同甫時就而問焉必以愚言爲汰而亦或以爲然也時崇禎柔兆攝提格仲春日恩津宋時烈記°

괴사정기

우리 명도(明道)선생이 공자와 맹자의 도를 터득하여 문왕(文王)의 마음을 충분히 알았다고 하였는데, 문왕의 말 중에서 한 말을 터득한 것은 곧 백성을 볼 때에 다칠 것 같이 하였다는 네자 뿐이었다. 맹자가 일찍이 여러 성인의 덕을 서술할 때 이 네 글자로써 문왕을 칭찬하였다.

대개 문왕의 덕은 요순과 함께 동일하여 높고 넓어 무엇으로 형언할 수 없는데, 맹자가 오직 이 하나의 말을 칭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생각하기를 그냥 입으로만 성인의 큰 덕을 말하고, 일이나 행동으로 실증을 하지 않으면 허망하고 잡하는 것이 없어 후세의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유학(儒學)의 도는 천지로써 부모를 삼음에 천지 사이에 생명을 가진 물건은 비록 곤충과 초목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나와 함께 사는 류이고 나의 사랑 속에 있으니, 하물며 한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 백성들이야 말할 것 있겠는가. 그들의 가렵고 병들고 아픈데 모두 내 몸처럼 절실하게 여기는 것은 자연한 이치이다.

주공(周公)이 말하기를 “문왕은 나의 스승이다.”라고 하였으니, 대개 문왕의 덕으로써 스승이 될 만한 것이 한이 있을까마는, 지금 명도선생이 어떤 고을에 수령이 되었을 때 오직 이것(視民如傷)으로써 마음을 가짐에 이런 것쯤은 넉넉히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부끄럽다고 한 것은 요순도 이것은 병으로 여겼다는 뜻이 아닐까.

연안 이희조 동보는 도를 배우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상산에 와서 수령으로 있으면서 제일 먼저 이것으로 약속하여 괴사당이라고 이름을 짓고 집무하는 방의 벽에 걸어놓으니, 나는 호현(鄖縣) 상원(上元)의 정치를 상산에서 행하게 된 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아 수령이 되어 백성을 임하는 자가 누군들 이 밀이 사법(師法)이 됨을 알지 못할까. 그러나 욕심이 마음을 가리게 되면 격막(膈膜) 이외에는 문득 오랑캐가 되어 잔인하고 포악하여 백성을 보기를 원수와 같이 할 것이니, 어찌 그의 천성이 유독 문왕이나 명도선생과 달라 그렇게 되는 것인가.

지금 동보가 정자의 책을 읽고 크게 여기에 분발하니, 정자와 주자를 잘 배웠다고 말할 만하다. 그러나 맹자가 문왕에게 도를 바라보고도 보지 못한 것처럼 하였다는 것으로 이 네글자를 배열하여 함께 칭찬하였으니, 어찌 명도선생께서 그 사이에 취사(取捨)한 것이 있어 그렇게 한 것인가. 대개 반드시 먼저 아래의 한 귀(句)가 있은 연후에 뜻을 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맹자가 일찍이 백대의 스승으로서 백이(伯夷)와 유하혜(柳下惠)를 칭하였는데, 그 도덕의 대성을 논하는데 참여시키지 않았으니, 아는 동보도 아는 것이다. 반남 박세채가 지금 양산에 있으면서 성현의 책을 읽으니, 바라건대 동보는 때로 찾아가 물을 때에 반드시

시내 말로써 물으면 혹 그렇다고 할 것이다.

송정 병자 중춘일 우암 송시열이 짓다.

2. 낙진당(樂眞堂)

1. 정자의 이름 : 낙진당(樂眞堂)
2. 위치 :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¹⁾
3. 건립자 : 민태중(閔泰重 ?~?)
4. 건립연대 : 조선중기
5. 현존여부 : 부
6. 기문

樂眞堂記

驪興閔士昂築室於鎮川之平沙名以樂眞昔康節有眞樂攻心之語朱子非之夫朱子之非之也豈不以所樂在物而樂之者心也寧有反攻其心之理耶聖人稱顏子不改其樂程子以爲其字當熟味自有深意蓋以其樂不在乎物而在乎顏子也亦不在乎顏子而在乎顏子之心也夫金石絲竹之樂以此心而樂於物也物變於前則樂隨而無之惟有不變者存焉周子曰無極之真此言實理也程子曰其本也真此言五性也此所謂眞者旣具於心則其樂之者又誰也心而反樂乎其所具則毋乃有以目視目之謂耶然則所謂樂眞者愚未得其說也抑嘗思之周程所謂眞者雖具於心而或有物欲害之則非吾有也苟從事乎克復之學而物欲不得行使實理存乎我而五性全乎心則我之心自不得不樂而此樂實由於眞矣然則雖謂之樂眞亦可也未知士昂之意果出於此耶吾將從士昂而問之也尤庵宋時烈記

여홍인 민사양이 진천의 평사리에 집을 짓고 낙진당으로 이름을 지었다. 옛날에 강절(강 절)이 참된 즐거움은 마음을 고쳐야 한다는 말을 하였는데, 주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였으니, 주자가 그렇지 않게 여긴 것은 어찌 즐거운 것이 사물에 있고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이겠는가

그러하니 어찌 그 마음을 고치는 이치가 있다는 말인가. 성인이 “안자(顏子)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다”라고 칭찬하였는데, 정자(程子)의 ‘基’ 자의 뜻을 충분히 음미하면 스스로 깊은 뜻이 있다. 대개 그 즐거움이 사물에 있지 않고 안자에게 있으며, 또한 안자에게

1) 평사(平沙) 강가 위에 자리하였는데, 거리는 군의 남쪽으로 2리에 있다고 함. (상산고적회, 「國譜 常山誌」, 2002)

있지 않고 안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대개 금관악기·석경·현악기·관악기의 음악은 이 마음으로 물건을 즐기는 것이고, 물건을 앞에서 변하면 즐거움도 따라 없어진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주자(周子)가 말한 무극의 진리이니, 이 말은 실제의 진리이다. 정자는 그것이 근본의 진리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오성(五性)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리는 곧 이미 마음에 갖추어 있으니, 그 즐거움이란 무엇인가. 마음으로 도리어 그 갖추어진 것을 즐겨워 한다면, 눈으로 눈을 보라는 비난은 받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른바 참된 진리를 즐겨워한다는 것을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일찍이 생각해 보니 주자(周子)나 정자의 이른 바 진리란 곧 마음에 갖추어 있더라도 혹시 물욕이 해치면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이라고 하였다. 진실로 사욕을 이겨내고 예를 회복하는 학문에 종사하여, 물욕이 행해지지 못하게 하고 실리(實理)가 나에게 있게 하며, 오성(五性)으로 마음을 온전하게 하면 나의 마음이 즐겁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즐거움은 진리에서 비롯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진리를 즐긴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양의 뜻이 과연 여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 나는 사양에게 물어보리라.

우암 송시열이 짓다.

3. 노은정

- 1). 정자의 이름 : 노은정(老隱亭)
- 2). 위치 : 충북 진천군 이월면 노원리 논실
- 3). 건립자 : 신협(申暎 ?~?)
- 4). 건립연대 : 조선 중기
- 5). 현존여부 : 부
6. 기문

老隱亭 重修記

亭之成毀地之氣數也因人而勝有時而廢者抑亦氣數之常歟蘭亭得右軍而端竹不泯滁陽遇醉翁而林壑尤美物我之相遇者難得之而久完者亦鮮矣蓋茲老隱谷卽我獨松公先朝卜築考盤之所村以外澗水西亦王考靜默齋先生剪翳金石闢地以爲亭於是焉取桑邱大朴之材去彩椽雕墻之制編茅不瓦間架如斗坐可班荆門不旋馬庭之畔引流開小塘有蓮花數朵花以隱者愛基其潔也扁之因洞號退遂初服

也儉與潔人之所竇進與退人之所難而公之得於林泉之間而以遺我後裔者綽然有餘裕矣洎余不肖星霜屢嬗日月滋久溪山雖在亭宇已墟朋酒登臨之席遺風邈杖屢逍遙之庭宿草蕉차以往省百感溯中非無肯構之志不遑重葺之役荏苒拖到而偏蒙洪造忝叨重寄公餘及私幸有餘力致書者屢募工鳩材仍舊起亭不侈而儉趾其美也終焉卽就聖渥攸暨而近百載之餘依然是一古亭之下八九家皆吾宗子若孫及余恩賜時與登茲誦公之詩術公之事而扶老提幼嘯咏以傲則蘭亭滌陽之美可得以兼之卽乎地亦可觀否往來之義而斯亭幹蠱之業庶幾有補於萬一云爾不肖孫統制使應周識

정자가 지어지고 헐리는 것은 대지의 운수에 달린 것이니, 어떤 사람에 의해 성대하게 지어지고 때로 헐리는 것은 운수의 정상이 아닐까.

난정(蘭亭)이 우군(右軍)을 만나 급히 흐르는 물과 무성한 대숲이 오늘까지 전하고, 저 양의 취옹정은 취옹을 만나 수풀과 계곡이 더욱 아름다워졌으니, 좋은 풍치와 인물을 만나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이고, 또 오래도록 완전하게 유지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 노은곡은 곧 우리 독송공 선조께서 여기에 집을 짓고 거닐던 곳이다. 마을 빠 시내 서쪽에 나의 할아버지 정목재 선생이 숲을 베어내고 돌을 쌓아 터를 만들어 정자를 만들었다. 이리하여 상구(桑丘)의 크고 질박한 나무를 쥐하여 쓰고, 단청을 한 서까래나 화려한 치장은 하지 않았으며, 짚을 엮어 기와를 대신하고 칸 수도 모발만하여 앉을 때에는 가시 자리를 깔 만하고, 문에는 발을 돌리지 못하였다. 뜰 밖에는 물을 끌어들여 작은 연못을 파고 못에는 몇 편기의 연꽃이 있으니, 이 꽃은 은군자가 그 깨끗함을 사항하기 때문이다. 편액은 마을이름으로 하니 벼슬을 버리고 물러와서 본래의 옷을 입는데서 유래하였다.

검소하고 깨끗한 것은 사람들이 보배로 여기는 것이고, 세상에 나아가고 물러서는 것은 사람들이 어렵게 여기는 바인데, 공은 이런 임천의 좋은 곳을 얻어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 너그러운 여유가 있도록 하였다. 불초한 나에게 이름에 성상(星霜)이 변하고 세월이 오래 되어도 산천은 그대로 있으나, 정자는 이미 허물어지고 옛 사람이 벗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던 자리에는 자취만이 아득하며, 지팡이를 짚고 거닐던 자리에는 잡초만 무성하다.

내가 문득 지난 날을 살펴보니 백 가지의 감회가 가슴 속에 가득하여 선조의 일을 이을 뜻이 없지 않았지만, 미처 중수(重修)할 계책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흐르다가 특별히 왕의 큰 은혜를 입어 나라의 일을 맡게 되었다. 공무를 수행하는 나머지 사사로운 일에도 여유가 생겨, 고향에 여러 번 편지를 보내 목공과 재목을 모아 옛날의 원형대로 정자를 세우면서 검소하여 사치스럽게 하지 않은 것은 선조의 뜻을 이었기 때문이다. 끝에는 임금의 은혜가 미쳐 근 백년 만에 옛날의 정자가 의연하게 세워졌고, 정자 아래의 팔 구호는 모두

우리 종친의 아들과 손자이다.

내가 휴가를 얻으면 때로 이들과 함께 여기에 올라 공의 시를 외우고 공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노인을 부축하고 아이들을 이끌고 시를 읊으며 놀게 되니, 난정과 저양의 아름다움을 함께 얻을 수 있다. 또 여기에서는 비운이 가고 좋은 운이 오는 뜻을 볼 수 있고, 이 정자를 주관하여 세운 업적에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불초손 통제사 응주는 기록하다.

4. 백원정



- 1). 정자의 이름 : 백원정(百源亭)
- 2).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703-1
- 3). 건립자 : 신잡(申囉 1541~1609)
- 4). 건립연대 : 조선중기, 1958년 재건,
1994년 이건
- 5). 혼존여부 : 여
- 6). 규모 : 정면 2칸, 측면 2칸 팔작지붕 목조 기와집
- 7). 기문

百源書院 移轉記

大概 歷史의 由來는 後世史家의 考察에 依하여 그 始末이 發見되었음은 古今을 通하여 考證 評價되는 바려니와 首陽山採薇의 伯夷叔齊와 泊羅水에 抱石役身한 屈三閭 그리고 慶州에 始林이 鷄林으로 된 歷史 등이 그 例이다. 百源書院이 毀撤되어 아직 復元치 못하고 있으나, 百源亭이라도 務建되어 百源書院의 一部 史蹟을 傳承케 됨을 萬分多幸으로 生覺할 때 東方禮儀가 繼繩되어 宗祖慕賢의 思想이 不絕함을 深幸으로 思料되는 바 우리 地方에 類似한 事例가 있으니 卽朝鮮國世宗大王時에 特異한 孝行者가 있었으니 慕菴 金公德崇이 是也라. 生前에는 九十餘의 老父母 奉養을 念慮하여 當時 在職 中이 든 韓山郡守를 辞任하고 歸鄉 侍奉할 새 父親은 生雉를 嗜好하고 母親은 鮮魚를 善好하므로 老父母의 侍從 餘暇에 漁獵에 從事하든 中 適值嚴冬雪寒에 父請生雉하고 母求鮮魚하므로 公이 夜半에 轉天祈地하고 翌朝冰雪을 掃除하여 汝溪沼에 가서 氷上에 裸體로 氷板을 녹이며 氷穴이 開口되자 鯉漁가 突出하여 奉親하였고, 또한 生雉는 數羽가 家庭에 自入하니 이는 하늘이 도

음이라 生覺하고 두 마리만 取獲奉親하고 그 의는 放送하였다고 傳하여 오는 故로 世宗大王께서 魚肉米와 衣服을 下賜하시고 死後에는 御製詩二首下賜와 表墓亭院賜額百源하였으며, 大明天子께서 加資于外臣하고 旌闈蓋(天蓋瓦)三張을 下賜하여 予之것 保存함은 우리 地方의 歷史的 事實이다. 面顧하건대 一九五八年 戊戌秋에 公之二十孫東坡金東輝氏가 爲先心이 特異하여 數年에 亘한 經營 끝에 汝溪沼取獲處에 百源亭을 聽建한 지 四十年을 經過하던 中 場所가 狹小不利하여 近處에 勝猷成集所有土地가 亭子 場所로 景觀이 秀麗함으로 上地를 郡當國에 寄贈하고 百源亭을 移轉하여 永久토록 地方文化財로 登錄 地方自治團體 所有로 管理토록 한다니 앞으로 青少年教育에 도움이 되기 바라며 早速히 百源書院이 復元되어 忠孝節義의 教育場으로 復活되기를 祈願하며 本亭子移轉 象算의 措置 等 物心兩面으로 積極 協助 해주신 道와 郡當局에 感謝하며 東坡公의 子弟인 勝猷君과 公의 再從孫안 成集君의 近親宗人의 勞苦에 深謝하는 바이다. 西紀一九九四年甲戌 月 日

大田 金範來 謹識

5. 삼수현(三秀軒)



- 1). 정자의 이름 : 삼수현(三秀軒)
- 2).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삼수초등학교 내
- 3). 건립자 : 미상
- 4). 건립연대 : 미상
- 5). 현존여부 : 부
- 6). 기문

題詠

公私緣業兩紛忙行李憧日月長八口團圓官是舍十年逆旅夢山鄉黃花籬落重陽雨白棗畦樊一夜霜畫角譙樓分曙色黑城歸客又催裝一榻殘書手裏 斜林深終日烏相諱慣頌青記當山樹信手紅題別館花官爲我閒公事少邑如人老病情加匏裘是處經營在與汝期兮歲晏華倦馬行 노草色斜農坪不斷野人譙官樓古色生槐樹晚鳥幽情發槿花過鳥一邊紅返照涼蟬十里翠交加莫嫌林屋太孤絕自是先生厭要華板橋朴齊珩

공사의 업무는 모두 분주한데, 여행길은 심란하게 세월만 길었네. 여덟 사람이 단란하게 일하는 관사(官舍)이니, 십년 동안 여행 속에 고향을 꿈꾸었네. 국화 꽃 울타리에 중양(重陽)의 비가 내리고, 배추의 나물 밭에 서리는 내렸구나. 화각(畫角) 소리에 문루(門樓)에는

날은 새는데, 흑성(黑城)으로 돌아가는 손님 행장을 재촉하네.

책상 위에 낡은 책 손에 들어와 잡히고, 깊은 숲에는 종일토록 새만 지저귀네. 낮에 익은 푸른 빛 상산(常山)의 나무에 떠오르고, 손끝에 붉은 것은 별관(別館)의 꽃을 그렸네. 나는 한가하게 하는 관청은 공사가 적고, 읍은 늙은 사람 같아 병폐만 더하는구나. 만년의 계책을 이곳에서 경영하니, 늙은 나이를 너와 함께 보내고 싶네.

계으른 말은 느리게 가고 풀은 더부룩하네, 들에는 농부의 말이 끊어지지 않네. 관청 누각의 오래된 모습은 느티나무로 알겠고, 저문 언덕 깊은 정 무궁화가 피었네. 새가 나는 한쪽 곁은 붉은 석양이고, 매미가 우는 소리는 삽리의 푸른 나무에 얹혀 있네. 숲 속의 집이 외로워 속세와 인연이 없음을 한탄할까. 이로부터 선생은 좋은 벼슬도 싫다고 하리라.

판교(板橋) 박제형

6. 식파정

- 1). 정자의 이름 : 식파정(息波亭)
- 2).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송리 산56-3
- 3). 건립자 : 이득곤(李得坤 1587~?)
- 4). 건립연대 : 1616 창건, 1985 이전
- 5). 현존여부 : 현존함
- 6). 규모 : 정면1칸 측면 1칸
팔작지붕 복조 기와집
- 7). 기문

息波亭序

李君濁世佳君子也。其性素嗜山水之勝。其心且息名利之競。欲擬相居於佳境以畢身世者。平生之志也。某年某月之日。李君至斗建村。徐而察周而視。重岡複嶺。聳出岸。環擁四塞。其中則平野廣衍。大川淵浹而素沙平鋪。蒼崖列屏。李君異之曰。美哉斯境。曾未知如此之勝而今乃得之。卜之吉日。鏤其層互。穢草乎刈。惡木乎拔。結構新亭。扁其名曰息波。鄭斯文赫為記。崔政堂遲川詩之。日者。李君寄語李秀才之來。要余序之。問李秀才曰。以息波亭之形勝。較木之伏龜亭則孰勝。李秀才曰。伏龜亭安敢埒彼。聽其言。不制飛動之興。是歲七月之初旬。跨馬飛轡而往。登其亭憑其檻而視之。山之當戶者。雲之出岫者。嘉木之蔥籠而扶疏者。美竹之

蒼翠而森列者° 入于日° 沙鳥之聲° 松嶺之響° 入于耳° 檻外長川° 繚繞乎鋪° 澄焉磨鏡° 涣焉
拖練° 見之而如不流° 其光不動° 可知波之息也° 聞之而無其聲° 其瀾不起° 亦可知波之息也°
至於朗夜° 拓牕而賞之° 皓月揚彩° 月波一色° 則波之息而不走° 亦可知也° 蓋是波之渟滀弗
注° 徐而不急者° 由其地勢之平夷不頗之故也° 李君之必以此名亭者° 我知之矣° 何則° 以其自
家息貪名之心° 悅於是波之息而獨樂其樂° 因以爲亭名° 其志可艷° 噫° 世之求名利之人° 不息
其爭而終陷於禍機° 李君有見乎是° 故避禍如避箭° 托興於川觀° 常以亭名爲保身之誠° 餘二十
年矣° 息波之義° 豈不美哉° 君子哉若人° 真吾所謂濁世佳君子者非耶° 孔子氏曰智者樂水° 微
君子° 誰當斯語° 余將先聖之言以贈李君° 李君疑吾言乎° 柏谷金得尚記°

이탁이라는 사람은 아름다운 군자이다. 그의 천성이 본래 산수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그 마음이 명예와 이권을 다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경치 좋은 곳에 살면서 생을 마치는 것이 평생의 뜻이었다. 어느 해 어느 날 이군이 두건촌에 와서 서서히 살펴보고 두루 관찰하였는데, 거듭된 산봉우리가 솟아나 사방으로 둘려 있고, 그 속에는 평평한 들판이 열렸으며, 큰 내가 깊게 흐르고 흰 모래가 펼쳐 있으며 푸른 벼랑은 병풍처럼 들러 쌓여 있었다.

이군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아름답도다. 이 경내여 일찍이 이렇게 좋은 곳을 알지 못했다가 지금에 와서 알게 되었구나” 하고, 이에 날을 잡아 언덕을 깎고 무성한 풀을 베고 나무를 뽑고 새 정자를 지었다. 이를 지어 편액을 식파정이라 하고, 사분 정혁이 기문을 쓰고, 지천 최명길이 시를 지었다.

어느 날 이군이 이수재가 오도록 편지를 하여 나에게 서문을 요구하였다. 나는 이수재에게 묻기를 식파정의 경관이 목천의 복구정과 비교하면 어느 것이 좋은가 하니, 이수재가 말하기를 “복구정이 어떻게 이와 같을까” 하였다. 나는 곧 그 말을 듣고 우러나는 흥취를 감추지 못하였다.

이해 칠월 초순에 말을 타고 고삐를 잡고 가서 그 정자에 올라 난간에 의지하여 바라보았다. 산의 빛이 문으로 들어오고 구름이 산봉우리에서 생기며, 아름다운 숲이 울창하기도 하고 예쁜 대숲이 푸르게 펼쳐져 눈에 들어오며, 물새가 우는 소리와 소나무에 스치는 소리가 귀에 들려오고, 난간 밖의 긴 내는 정자를 둘러싸고 흘러가 거울처럼 맑고 비단처럼 깨끗하였다. 보기에는 흐르지 않는 듯하고 물결이 움직이지 않아 물결이 쉬는 것을 알겠고, 들을 때는 소리가 없어 물결이 생기지 않아 물결이 쉬는 것을 알겠다. 또 명랑한 밤에 창을 열고 감상하면 흰 달이 빛을 내어 달과 물결이 모두 한 빛인 즉 물결이 쉬어 달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대개 이 물이 고여서 내려가지 않고 서서히 흐르고 급하지 않은 것은 그 지세가 평탄하

여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다. 이군이 꼭 이것으로써 정자를 이름 지은 것을 나는 알겠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 자기가 명예를 탐하는 마음을 없애기를 이 물결이 쉬는 데서 깨달아 흘로 그 즐거움을 즐겨워하였기 때문에 정자의 이름으로 한 것이니 그 뜻이 아름답다.

아 세상에서 명예와 이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계속 다투다가 결국에는 화망에 빠지고 만다. 이군은 이러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화망을 피하기를 화살처럼 하였고, 넛가를 보는데 흥취를 붙여 항상 정자의 이름으로 몸을 보호하는 훈계로 삼은 지 이십여 년이 되었다. 식파정의 뜻이 어찌 아름답지 않은가.

군자답도다. 이 사람은 참으로 내가 말한 아름다운 군자가 아닌가. 공자가 말하기를 “지혜로운 자는 물을 즐긴다”고 하였으니, 군자가 아니면 누가 이 말에 해당 되겠는가 나는 선성의 말을 가지고 이군에게 주니 이군은 내 말을 의심하겠는가.

백곡 김득신이 짓다.

7. 연정(蓮亭)

1. 정자의 이름 : 연정(蓮亭)
2.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371-11일원
3. 건립자 : 노득준(盧得俊 ?~?)
4. 건립연대 : 조선중기²⁾
5. 현존여부 : 부
6. 기문

蓮亭記

記日常爲縣湖以交輔喉用控南唧命縉紳之東南行者蜂午而湊合焉今監務盧候得後宰是十幾一周諗于中日台承綸命理若邑唧命至不館不賓是不敬王命顧若邑無公廨可舍不宜不復是亭衆曰然於是中基池式舊而新之經始之日民子趨梓俾指功訖不日飛棟危欄鳥革於綠水朱華之上望之隱然若一仙宮矣夫然後唧命縉紳之行始有所停泊而留憩焉候之敬王命尊使臣也何如哉邑之樓閣之承余於昔日嘗見之矣壬辰來兵火一燼蕩然在頽垣廢址蕪沒於蔓草中者凡幾年矣今也始室宇之或者國家之中興此基兆也雖然候恬靜簡素非役於物者亭之設豈直爲玩好哉吾想基候之登是亭也思分陰於四方賞是蓮也思不染於遊泥分陰仁也不染清也仁以庇民清以律已則守令之能事畢矣池亭花卉特基候之餘刃也己然則候之用意之深亦豈但敬王命尊使臣而止哉嗟夫牧民之道莫重於仁居官之道莫貴於清是壬之不命而命者也候若能仁以庇民清以律已則候之敬王命又孰大於是哉不獨尊使臣爲足以敬王命

2) 노득준이 진천현감으로 있을 때 세웠음. 재임기간 1603년(선조 36)~ 1605년(선조 38)

也然則候之敬王命尊使臣也既于是仁以庇民清以律已也亦于是則雖欲不爲民之所愛得乎夫如是則候之是亭也是蓮也無與蜀之堂河陽之花同休儻美於前後而候之名赫乎基無窮乎候基勗之哉鈞隱辛景行記

기문에 이르기를 “상산(常山)은 호서의 현이고 경기 근읍의 요충지가 되어 남쪽으로 왕명을 받들고 가는 관료들의 행차가 가는 도중에 서로 만나는 곳이라”고 하였다. 지금의 감무(監務) 노득준이 이 땅에 읍재(邑宰)로 온 지 거의 1년이 되어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대부들이 왕명을 받들고 고을을 다스리려고 명을 받아 올 때 여관을 마련하지 못하여 빈객의 예우를 하지 못한다면, 이는 왕명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니, 돌아보건대 이 고을에는 이들을 쉬게 할 만한 공관(公館)이 없어 이 정자를 복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니, 대중들이 그리하다고 말하였다.

이리하여 그 안에 뜻을 파고 옛 의식에 따라 새롭게 만드니, 일을 시작하는 날에 백성이 나와 좋은 솜씨로 도왔다. 며칠 안 되어 완공하니 나는 듯 한 지붕과 높은 난간은 푸른 물 훤향 꽃 위에 새가 나는 듯 서 있어 숨어 있는 선궁(仙宮)과 같았다. 그런 뒤에 왕명을 받들고 가는 관리들이 비로소 머물려 쉴 곳이 있게 되었으니, 수령이 왕명을 공경하고 사신을 우대하는 일이 어떠한가. 이 고을 누각의 풍치는 내가 옛날에 일찍 구경하였다. 임진년에 와서 병화(兵火)에 모두 타버려 남은 것이 없고 무너진 담장과 폐허가 된 터만이 풀 속에 묻혀 있은 지 몇 해가 되었다.

지금에 와서 비로소 다시 지으니 흑자는 국가중흥의 조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령은 차분하고 검소하여 사물에 뜻이 팔리는 자가 아니니, 이 정자를 세우는 것이 어찌 즐기고 놀기 위해서이겠는가. 나는 수령이 이 정자에 올라 사방에 덕을 나눌 것이고, 이 연꽃을 감상할 때 진흙에 더럽히지 않을 것을 생각하며, 덕을 나누는 일은 인(仁)이고 더럽혀지지 않음은 청백함이고, 인으로써 백성을 비호하고 청백으로써 자신을 단속한다면 수령으로서 할 일은 다하는 것이다. 뜻과의 정자와 물속의 꽃은 수령의 남은 솜씨로 한 것이다. 그러하니 수령의 깊은 뜻의 정성이 어찌 다만 왕명을 공경하고 사신을 높이는 데 국한될 것인가.

아 백성을 다스리는 도는 인보다 중한 것이 없고, 관(官)에 임하는 도는 청백한 것보다 귀한 것이 없으니, 이는 왕이 명하지 않았지만 왕명과 같다. 수령이 만일 인으로 백성을 보호하고 청백으로 몸을 갖는다면, 수령이 왕명을 받드는 것보다 무엇이 더 크겠는가. 또한 사신을 받드는 것만이 왕명을 받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수령이 왕명을 받들고 사신을 높이는 것은 이미 인으로 백성을 비호하고 청백으로 몸을 갖는 것인니. 이렇게 하면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으려 해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수령의 아 정

자와 이 연꽃은 촉(蜀)의 초당(草堂)과 하양(河陽)의 꽃과 함께 전후로 아름다운 일이 되어 수령의 명예가 빛날 것이니 수령은 힘쓸지어다.

조은(釣隱) 신경행(辛景行)이 짓다.

8. 영백당

- 1). 정자의 이름 : 영백당(詠柏堂)
- 2). 위치 : 충북 진천군 문백면 평산리
- 3). 건립자 : 민태중(閔泰重 ?~?)
- 4). 건립연대 : 조선중기
- 5). 현존여부 : 부
- 6). 기문

詠柏堂記

黃驥閔泰重士昂居于常山屈村以名其堂曰詠柏余問其義曰余家無長物惟一株柏在庭前告朱先生嘗詠予美廟柏行又寫出以贈求書者夫予美詩可愛者多而先生必取於此必有深意故敢以是名吾堂耳余曰先生生乎南渡之後慨然有恢復中原之志而及其老而無復望焉則有感於此詩之深也今予以眇然鰥域之書生潛身蓬華性命靡靡雖有孔明之忠謀智略何暇有中原之志哉士昂曰志大才疏力小任重是先賢之所戒然則堂名可改已乎余曰事無大小遠近其理則無二也況亦有近小者尤難而遠大者還易焉故朱先生嘗論天下事而曰不世之大功易立而至微之本心難保中原之戎虜易逐而一己之私意難除至哉言乎誠能用力於克己復禮一息尚存不容少懈如孔明之鞠躬盡瘁死而後已則其遠者大者亦將見其無所難矣故孔明嘗曰才須學也學須靜也願士昂姑從事於此以爲之本而以待後日之期會則安知終不爲大廈之棟樑乎然後歸臥清陰之下翻讀子美之詠而以弔孔明晦翁之靈則司馬仲達慶元群小之死鬼亦必悔罪而愧謝矣尤庵宋時烈記

여홍(黃驥) 태중(泰重) 민사양이 상산의 굴촌에 살면서 그의 당호(堂號)를 영백당이라고 하였다. 내가 그 뜻을 물으니 우리 집에는 특이한 물건은 없고 오직 한 그루의 잣나무가뜰 앞에 있다. 옛날에 주자는 일찍이 두보의 묘백행(廟柏行)을 읊고 또 글씨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써서 주었다. 무릇 두보의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 많으나 주자가 반드시 여기에서 취한 것은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니, 이것으로 나의 당(堂)을 이름지었다고 하였다.

나는 선생이 송나라의 사직이 강남으로 건너간 뒤에 태어나 항상 중원을 회복할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늙자 다시는 희망할 수 없어 이 시에 대한 김회가 깊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지금 그대는 하찮은 접역(鰥域)의 서생으로 초라한 집에 몸을 의지하여 겨우 목숨을 유지하고 있으니, 비록 제갈공명의 충성과 지략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여가에 중원을 회복할 뜻을 가지겠는가” 하니, 사양이 이르기를 “뜻은 크면서 재주는 혀약하고 힘은 작으나 책임이 무거운 것을 선현들이 일찍이 경계한 것이니, 그렇다면 당의 이름을 마땅히 고쳐야 하냐”고 물었다.

나는 이르기를 “일의 크고 작고 멀고 가까운 것 없이 이치에는 두 가지가 없다. 하물며 가깝고 작은 것이 더 어렵고 멀고 큰 것이 도리어 쉬운 것도 있다. 때문에 주자가 일찍이 천하의 일을 논하여 이르기를 ‘세상에 없는 큰 공로는 세우기 쉬워도 지극히 작은 본심은 보존하기 어렵고, 중원에서 경계하는 오랑캐는 내쫓기 쉬워도 자기의 사욕은 제거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자극하도록다. 이 말이여!”

진실로 극기복례(克己復禮)를 하는데 힘써 한 숨이 살아있을 때라도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는 것을, 마치 제갈공명이 마음과 몸을 나라의 일에 바쳐 죽은 뒤에야 중지한 것처럼 한다면, 멀고 큰 것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때문에 제갈공명이 일찍이 재주는 배움을 기다릴 것이요, 학문은 안정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다. 원하건대 사양은 여기에 힘써 근본으로 삼고 뒷날의 기회를 기다린다면, 큰 집의 동량(棟樑)이 될 것을 어찌 알겠는가

그런 후에 잣나무의 맑은 그늘 밑에 누워 두보의 시를 다시 읊고 제갈공명과 주자(晦翁)의 혼령을 위문한다면, 사마동달과 경원(경(慶)원(元)) 년간 여러 소인의 죽은 귀신들이 반드시 죄를 뉘우치고 부끄러워 사례할 것이다.

우암송시열이 짓다.

9. 쌍오정

- 1). 정자의 이름 : 쌍오정(雙梧亭)
- 2). 위치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양촌
- 3). 건립자 : 이인엽(李寅燁 1656~1710)
- 4). 건립연대 : 조선중기
- 5). 현존여부 : 부
- 6). 기문

쌍오정 상량문

進退之節嘗聞於聖人棟宇之制益取諸大壯爰得所矣若將終焉主人非適用材乏供世具籍先蔭之劬壽幾多華貫之歷楊荷聖朝之恩榮幸免險塗之顛躡平生素志惟願尊主而庇民末死丹忱只期忘身而殉國周旋乎宥密之地愧徒添於隊行管領乎錢穀之司恐多少於句股絲毫莫補於天職班序遞踰於月卿羣賢滿朝雖切共貞之願一我無技漂有冥升之憂觀天道之忌盈撫已增惕戒夜行之不息居寵若驚惟思斥鶴之逍遙冀免亢龍之悔吝桑榆漸晚逼蘧瑗知非之年蒲柳早衰抱子房難強之疾涓埃未答於聖主豈忍更辭事業日負於初心但有宜去急流勇退敢擬錢若水高風獨樂閒居夙慕司馬公故事幾經年而間舍歎無地而起樓瞻彼金潭之奧區實惟左湖之靈境草巒聳立頭陀分上黨之奇一水灣廻潘溪接錦江之濶圓坪細麓環擁後前翠壁蒼崖映帶左右雲影岩落星灣之形勝猶且煩於鑿開冉氏溪袁家池之清幽亦有費於貨買倘論基所居而安者夫豈若斯丘之樂哉而况近先祖衣冠之藏辛瞻依於桑梓記童子遊約之所尚指默於岩泉梅山處士之廬併拚尊酒之湛樂玉溪相公之宅又通舟車之往來朋僚有招隱之書豈欲無往林磽得考盤之趣永矢不諉隨意而占一曲之煙波拓基而開數畝之荒穢經營不勞於心上已定鷁巢突兀卽見於眼前方騰燕賀天不慳基奇地不憚基寶似或相之山若增而高水若增而清如有待也三逕松菊悅疑栗里之幽居四壁圖書不讓香山之高致炳戒寧忘於知足新構才堪於庇身濕峯山棟憂豈弛於屏退衝門蕊水分自甘於栖遲自終結白鷗之盟了不作紅塵之夢而遯世無悶非敢讓於吾人顧未老得閒庶不愧於古語惟一丘一壑足供婆娑況有室有堂則圖永久試爲巴唱庸相郢斤兒郎偉拋樑東約渚漁磯窈窕通一任中宵風浪起虛舟已繫荻花叢兒郎偉拋樑南數家籬落隔松杉山溪盡日無鹿晤臥聽農歌雜野談兒郎偉拋樑西墨峯蒼翠入簾低白雲滿壑松陰晚山鳥飛來欲定棲兒郎偉拋樑北烟樹蒼連野色綠水芙蓉採滿衣西方瞻望情何極兒郎偉拋樑上露天星月光澄朗丹心拱極耿難銷每夜倚樓縣北望兒郎偉拋樑下梧竹清陰侵蓋畢几案猶琪闌簡編門庭僅免多車馬伏願上樑之後神降吉祥人免災厲平泉花石保子姓堂構之傳綠墅風烟窮林園鍾鼓之樂病樑含臘腫之性期盡天年寒花抱淡泊之香且觀晚節採山約水優遊遲暮之齡鑿井耕田涵泳泰平之花溪山無几杖長閑晦窓李寅燁自術

나가고 물러가는 예절은 일찍이 성인에게 들었고, 집을 짓는 제도는 대장(大壯)괘에서 취하였다. 이에 좋은 장소를 얻어 일생을 마치고자 하였다. 사람은 적용의 인재가 아닌가. 세상에 쓸 만한 인재가 끊어졌도다. 선조의 음덕이 덮어줌을 의지하니, 얼마나 빛나는 선조가 많은가. 일찍이 조정의 은영(恩榮)을 업었고, 험한 길에서 해매는 일을 면하였도다.

평생의 본뜻은 임금을 높이고 백성을 비호하기를 원하였고, 죽기 전의 붉은 마음은 봉을 잊고 순국하기를 기대하였다. 기밀의 문서를 다루는 곳에서 주선하니, 그 대열에 있음이 부끄럽고 전곡(錢穀)의 관청에서 일을 하니, 다소간의 착오가 있을까 두려웠다. 벌끝만치도

왕을 보좌하는 직책에 도움이 없었으나, 품계는 공경(公卿)의 지위를 넘었다. 여러 어진 사람들이 조정에 가득함에 충성을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였고, 나는 한 가지의 기능도 없음에 높은 지위에 오를까 근심하였다.

하늘의 도가 가득함을 꺼리는 것을 보고, 자신을 어루만져 더욱 삼가하였고, 죄인들의 밤에 쉬지 않고 행하는 일을 경계하여 측근의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였다. 오직 뱃새처럼 거니는 것만을 생각하였고, 항룡(亢龍)의 뉘우침을 면하기를 바랐다. 늙은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 거원(遐援)의 잘못을 알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였고, 부들이나 벼들 같은 기질이 일찍 쇠함에 장자방(張子房)처럼 강하지 못한 병을 안았도다. 텔끝만치도 왕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차마 직책을 사직할 것이며, 하는 업적은 날로 처음의 계획만 못하니 마땅히 가야 하겠도다.

급류와 같은 조정에서 용감하게 물러나와 전약수(錢若水)의 고상한 풍모와 비교되고, 홀로 즐기면서 한가하게 살아 사마공(司馬公)의 고사를 사모하였다. 몇 해를 살면서 정자 지을 것을 물었는가. 정자를 세울 땅이 없음을 탄식하였도다. 저 금담(金潭) 깊은 곳을 보니 실로 충청좌도의 신령한 곳일세. 많은 봉우리가 솟았는데 두타산은 청주의 기이한 산수를 나누었고, 한 줄기의 물이 굽이쳐 돌아오니 반계(磻溪)는 금강의 물과 이어졌다. 등그스레한 들과 얕은 산은 전후로 옹호하고, 푸른 벼랑과 언덕은 좌우로 비추었도다. 운영암·낙성반의 경치는 번거롭게 파낸 것이다. 염씨계(冉氏溪)-원가지(袁家池)의 맑은 물은 또한 돈을 주고 산 것이라 혹 거치하는데 편리함을 논한다면, 이 언덕의 즐거운 곳 같은 데가 어디 있을까.

하물며 선조의 의관을 묻은 곳이 가까우니, 고향 땅임을 우러러 보겠고, 어린이가 놀고 낚시하는 곳임을 기억하니 암천(巖泉)을 가리키네, 매산처사(梅山處士)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즐긴 일을 생각하고, 옥계상공(옥계상공)의 집에는 배와 수레가 왕래하였도다. 동료들은 은자(隱者)를 부르는 편지를 보내니 어찌 가고자 아니할까.

숲가의 언덕에 거니는 취미를 얻으니 영원히 잊지 못하겠도다. 뜻에 따라 한 구비의 연파(煙波)를 점거하고, 터를 개척하여 몇 이랑의 거친 밭을 일구었도다. 집 짓는 일을 마음에 수고롭게 생각지 않아, 이미 굴뚝새의 집 만하게 정하고 눈앞에 우뚝하게 보이니 제비가 날아와 하례하도다. 하늘도 그 기이함을 아끼지 않았고 땅도 보배 같은 것을 아끼지 않았으니 일찍이 산형을 본 듯하고, 산은 더욱 높고 물은 더욱 맑으니 오늘을 기다린 듯하다.

삼경(三逕)의 소나무와 국화는 율리(栗里)의 깊숙한 마을 같고, 사벽(四壁)의 도서는 향산의 고상한 취미와도 같네. 새로 지은 집은 겨우 몸을 보호할 만 하도다. 습지의 벼섯과

언덕의 개암나무는 어찌 은둔의 마음을 변하게 할까. 막대를 가로지른 사립문과 졸졸 흐르는 물은 은자가 견디어 살 만하도다.

스스로 백구와의 맹세를 맺고 속세의 꿈은 갖지 않으리라. 세상을 피해 살아도 후회하지 않음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을까. 늙기 전에 한가하게 되었으니 옛말에 부끄럽지 않도다. 한 줄기의 언덕과 한 곳의 계곡은 족히 거니는 장소로 삼을 만하고, 방도 있고 마루도 있음에 영원의 삶을 도모하였네. 시험 삼아 파인(巴人)의 노래를 불러 대장(大匠)의 교정(矯正)을 구한다.

어이어차 대량의 동쪽으로 물가의 낚시터는 아름다운 경내와 통했네. 한 번 밤중에 풍랑이 일어나자, 빈 배는 갈대 숲속에 매어 두었네. 어이어차 대량의 남쪽에는 몇 집이 소나무, 삼나무로 가렸는데 산과 시내에 종일토록 속세의 이야기 없이 누워 농가(農歌)를 들으면서 야담도 하네. 어이어차 대량의 서쪽에는 묵봉(墨峯)의 푸른색 낮게 발 아래로 들어오니, 흰 구름은 계곡에 차고 소나무 그늘 짙어 가는데, 산새는 날아들어 동지를 정하려 하네.

어이어차 대량의 북쪽에는 내 긴 나무는 푸르러 들 빛을 이었구나. 푸른 물에서 연뿌리 옷에 가득히 캐니, 서쪽을 바라봄에 그리운 정 어찌 끝이 있을까. 어이어차 대량의 위에는 갠 하늘에 별과 달빛이 명랑하니, 일편단심 왕을 사모하는 마음 어찌 없어질까. 밤마다 정자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네. 어이어차 대량의 아래에는 오동과 대의 그림자 술잔에 침노하네. 책상에는 오히려 책을 읽을 만하니, 문 앞에는 어찌 수레와 말이 찾아올까.

엎드려 원하건대, 상량한 뒤에 신은 길상(吉祥)을 내려주시고 사람은 재앙을 면하게 하소서. 평평한 시내의 꽃과 돌은 자손들의 선조를 잊는 정성을 보전하게 하고, 푸른 들의 바람과 연기는 정원에서 가족의 즐김을 끝까지 하게 하소서. 병든 가죽나무는 못난 나무의 천성을 타고나서 천 년대로 다 살 듯하고, 차가운 국화는 담백한 향기를 안아 늦은 계절임을 알겠네. 산에서 나무하고 물에서 고기 낚아 늙은 나이에도 즐기고, 우물 파고 밭을 갈아 태평성대의 교화에 목욕하네, 강산도 병이 없고 노인들도 한가하게 하소서.

회와(晦窓)와 이인엽(李寅燁)이 짓다.

10. 함오정(咸吾亭)

- 1). 정자의 이름 : 함오정(咸吾亭)
- 2). 위치 : 미상³⁾
- 3). 건립자 : 완산(完山) 이순영(李順榮 ?~?)

3) 세금천 위 버드나무 우거진 곳에 있었다고 전함.

4). 건립연대 : 조선시대

5). 현존여부 : 부

6). 기문

咸吾亭記

縣治之東有閒田佳卉惡木雜植而同榮狐狸晝號蛇虺是安以之爲人之所棄焉完山李公順榮之知是縣也得之於廳訟之假疏以營之爰構小亭遠山開畫屏而南廻流水作羅帶而東洲漁樂基餘禽悅基臚於是李公與縣人謙而落之命名曰咸吾蓋欲人得以稱吾亭者也古人所云既樂基人又樂基身者歟乃觀德以射言志以詩絲管淒清肴核浪籍病者起憂者喜實賴年豐婆然舞熙熙然歌誰記日暮此誠盛世之治象良吏之嘉績也自公之去今幾年矣雨淋風飄斯亭將朽歷數此縣同志者誰庭變汀渟蛙吠括耳砌沒灌莽牛香破臭縱使新鶩好音幽蘭勝馥於牛香蛙吠不基難乎若新基軒窓淨基塵穢得與同志傾一觴咏一詩則庶可以仰酬李公之名亭者也庚辰三月槐堂趙公熙叙

군현의 청사 동쪽에 버려진 땅이 있어 꽃나무와 잡목을 함께 심어 무성하니, 여우와 늑대가 늦에도 울고 뱀이 우쭐거리 사람들에게 버려지게 되었다. 완산(完山) 이순영(李順榮)이 이 고을의 수령으로 있을 때 업무를 시행하는 여가에 이곳을 정리하고 경영하여 작은 정자를 지었다. 먼 산은 병풍의 그림처럼 생겨 남쪽에서 돌아오고, 흐르는 물은 비단의 따처럼 생겨 동쪽으로 흘러 고기와 새는 그 속에서 즐기고 기뻐하였다.

이리하여 이공(李公)이 이 고을 사람들과 잔치를 하고 낙성식을 하면서 이름 짓기를 함 오정이라고 하니, 그 뜻은 사람마다 우리의 정자라고 하려는 것이다. 옛사람이 말한 그 사람을 즐기고 또 그 봄을 즐긴다는 말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에 활을 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시를 지어 자기의 뜻을 말하면서 관현(管絃)의 소리는 깨끗하며, 안주와 과일이 상에 가득하여 병든 사람도 일어나고 근심이 있는 자도 기뻐하며, 풍년에 힘입어 즐겁게 춤을 추고 기쁘게 노래하는 것이니, 누가 해가 저물어가는 것을 생각할까. 이는 태평세월 속의 치상(治想)이요, 형량한 관리의 치적(治積)이다.

그러나 공이 떠난 뒤로 지금 몇 해가 되었던가. 비가 새고 바람이 시달려 이 정자가 거의 썩었는데, 이 고을에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가 남았는가. 마당은 변하여 진흙탕이 되어 개구리가 울어 귀를 시끄럽게 하고, 뜰은 풀 속에 파묻혀 소의 풍내음이 코를 찌른다. 비록 소 풍내음이 나고 개구리가 우는 가운데 꾀꼬리를 울게 하고 난초 향이 나도록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만약 그 마루와 창을 새롭게 하고 더러운 물건을 깨끗이 치워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한 잔의 술을 기울이며 한 수의 시를 읊는다면, 이공(李公)이 정자를 이름 지은 뜻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리라.

경진년 삼월 괴당(槐堂) 조공희(趙公熙)가 짓다.

11. 향현당

- 1). 정자의 이름 : 향현당(鄉憲堂)
- 2). 위치 : 진천 삼수초등학교 내
- 3). 건립자 : 미상
- 4). 건립연대 : 조선
- 5). 현존여부 : 부
- 6). 기문

鄉憲堂記

鎮之鄉憲堂在太守政衙之東一帳而近蓋取朝夕承化之更也堂之建不記年而重修於今年癸酉制
舊五棟六架中爲堂而房于東西仍基棟楹而是基椽新基板檻牖戶而瓦鑼之據東房之半而樓基北凡用
錢四萬五千用夫千五百有六十役始於四月壬子止六月庚申計日六十九執事奔走者總若干人而堂中
諸賢實主基經始此基修廢之大略也已迺遠鄉人落之鄉憲長權思迪甫舉酒屬余曰成室而頌古也予基
言之余辭不獲而對曰奚以輪奐爲哉無己則請原基始若昔先民之世鄉必有約故書基教法籍鄉之僕偉
以藏之室命鄉子弟掌之以時聚鄉人於斯而講習之此當之所爲設而有司之始也既而王朝大夫之宰是
縣者於下邑之民物謠俗基勢或牴牾也則辟鄉之人以者副使之道上下宣教化而鄉約因而附焉於是乎
鄉而始爲官矣基奠二於宰而於一邑之政凡勸農興學課賦簡伍以至蓄藏簿書之猥鑽一切管轄於宰者
無所不聞基視若郡若州之長雖位有等殺治天職供王事未始有二道也然基廢置不由朝廷且因平日之
姻姪故舊而爲之氓故上旣無以攝乎重而下或易流於慢不重官不立慢民不信嗚呼古人所謂水負余者
豈真水之罪哉顧人在而政自舉耳今太守李候吾鄉世家也自鄉人而蒞縣事賢於鄉而舉數子吾知汝南
月朝之論基必有素定而數子之賢能不負基所知矣異日吾鄉之登是堂者必將曰鄉職之重修自某官始
堂之補弊舉墜有不足論也諸公勉乎哉咸日諾遂記問答以附鄉中之故事云晚回堂申鼎基記

진천의 향현당이 대수가 집무하는 청사의 동쪽 일후(一帳)에 있어 가까우니, 이는 조석

으로 교화의 명을 받는데 편리함을 취함이다. 이 건물을 세운 연대는 기억할 수 없고 지금 계유년에 개축할 때 옛날 오동(五棟) 육가(六架)의 제도를 따르고 가운데는 마루를 놓고 양쪽 동서에는 방을 만들었다. 기둥은 옛날 것으로 하고 서까래는 바꾸었으며, 마룻바닥과 난간 문짝은 새것으로 하고 기와를 올리고 벽은 흙으로 발랐다. 동쪽 방은 반쯤되는 북쪽에 누(樓)를 세우니, 비용이 사만오천냥이고 일부가 일천오백육십명이 소요되었다. 사월 임자일에 일을 시작하여 유울 경신일에 마쳐 날짜를 계산하면 육십구일이고, 집사 몇몇이 분주하게 일을 보고 이 당에서 일하는 몇 사람이 이 일을 주관하니 이것이 이 건물을 개축한 대략의 소개이다.

이리하여 지방 사람들을 불러 낙성식을 하니 향현장(鄉憲長) 권사적(權思迪)이 술을 들여 나에게 주면서 집을 짓고 송축하는 것은 예부터의 관습이니 자네가 그 전말을 기록하라고 하였다.

나는 사양하지 못하고 대답하기를 “어찌 집만 화려하게 할까 청컨대 그 처음의 근원을 살펴보리라. 옛날 선조들이 살던 시대에 시골에는 반드시 향약(鄉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르치는 법을 쓰고, 지방의 우수한 선비들의 명단을 적어 향청에 보관하여 지방의 자체들에게 명하여 맡게 하고, 때때로 이곳에 지방 사람을 모아 강습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이 건물을 설치하는 까닭으로 비로소 향현을 두게 되었다.

그런데 조정에서 보낸 대부들이 이 고을에 와서 수령이 된 자는 벽지의 민물(民物)과 풍속의 형편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벽향(僻鄉) 사람들이 부사(副使)의 도로써 위·아래로 교화를 베풀고 향약을 만들었다. 이에 시골에도 처음으로 관을 위하여 되고 수령의 버금 자리에서 한 읍의 정사(政事)에 농사와 학교를 권장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군역(軍役)을 정비하여 창고의 저축이나 문서의 작은 일까지 모두 수령이 관할하는 것을 듣지 않음이 없게 되었다. 군(郡)이나 주(州)의 장과 비교할 때 지위는 차등이 있으나, 나라일을 다스리고 왕의 일에 헌신하는 것은 두 가지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폐지하고 조정에서 평일의 친척이나 친구를 수령으로 보내기 때문에, 위에서는 중한 일로 여기지 않고 아래에서는 가볍게 여기게 되어 관청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관청의 지시를 가볍게 여기는 자의 처벌을 세우지 않아 백성들이 믿지를 않는다. 아 옛사람이 말한 승(丞)이 나를 저버린다는 것이 어찌 진실로 중의 죄이겠는가.

돌아보건대 “올바른 사람이 있으면 정사(政事)는 저절로 행해진다. 지금의 태수 이후(李侯)는 우리 지방에서 대대로 살던 집이다. 이 군현의 사람으로 부임하여 몇몇 사람을 천거하니, 나는 여남(汝南)과 월조(月朝)를 천거하자는 논의가 본래부터 정한 것임을 알았고, 또

그들의 현명함은 그가 아는 태수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훗날 이 집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향직(鄉職)을 다시 부활한 사람은 아무개의 태수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것이니, 이 건물의 낡은 것을 보수하고 실추된 일을 부활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여러분들은 힘쓸지어다”라고 하니 모두 좋다고 하였다. 이리하여 문답한 말을 기록하여 이 고을의 고사(古事)로 하였다.

만회당(晚回堂) 신정기(申鼎基)가 짓다.

12. 행은정

- 1). 정자의 이름 : 행은정(杏隱亭)
- 2). 위치 : 충북 진천군 백곡면
- 3). 건립자 : 임상호(?~?)
- 4). 건립연대 : 미상
- 5). 현존여부 : 부
- 6). 기문

杏隱亭郡之北數百武有三秀園山勢從萬弩逶迤起伏東走數里三庚峙突立又東馳數町卽北轉而爲園園左右地勢岝崿起亭隨聳出此爲杏隱亭也北則錦川巨流橫帶而漣漪宛苦環抱之勢常山群峯對案而羅列爭相拱揖之狀東南則閭閻櫛比市街貫通俯瞰左右風景之勝物華之盛無不盡在于一亭中矣邑居上人林相鎬素是有志之士嘗登臨歎惜曰夫都與邑人衆所聚故樓臺亭榭無處不在以供消暢本邑雖峽中殘局山川風物不讓於他亭榭之保勝尙爾顧焉吾祖杏隱公壽享八耋而尙康寧嘗日本境諸山皆童濯獨我村第後園吾年少時手植松與我同壽今已拱抱成材此誠貴物也劃何方策使之永久傳世曾已聞命矣今三秀園爲一境最勝區且邑中繁華地居邑人上無一不登臨而逍遙若以此材構一亭子非徒風景之保勝登是亭者人孰不公同愛護而使之永傳也乃於乙丑秋卽輸基材以瓦舍十棟六間經始未幾月而落成軒窓四開流峙蔭映風月清朗非復前日所睹蓋相鎬此亭之作一則有志於公益一則承基祖訓令貴物壽世亭以杏隱揭名亦以基祖手植物能成輪奐之美欲爲紀念云杏隱基祖學官錫鎮之號也 見詞藻

행은정(杏隱亭)은 군의 북쪽으로 수백步가 되는 곳으로 삼수원에 있다. 산세는 만노산으로부터 기복이 꾸불꾸불하고 동쪽으로 몇리를 달려가면 삼경치가 우뚝 서 있다. 또 동쪽으로 몇 구역을 달려가서 북쪽으로 돌아 나가면 삼수원이 된다. 삼수원의 좌우 자세가 우뚝 솟은 곳에 정자를 지어 여기를 행은정이라 하였다.

북쪽은 곧 금천의 큰 물줄기가 가로 감아돌고, 잔물결이 완연하게 둘러 싸안은 듯한 形

세이다. 상산의 뭇 봉우리들이 밥상을 마주하고 앉은 것처럼 줄지어 서로 다투어, 두 손을 마주 잡고 절을 하는 형상을 하고 있다. 동남쪽으로는 곧 여염집이 즐비하게 있고, 시장과 곧 바로 통하여 있으며, 좌우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의 훌륭함과 경치의 성대함이 곧 정자 속에 모두 들어 있다.

읍에 사는 선비 임상호는 본래 뜻이 있는 선비인데, 일찍이 정자에 올라가 탄식하며 애석히 여겨 말하기를 “대개 도시와 읍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누대와 정자가 없는 데가 없이 회포를 푸는 장소로 삼으니, 본 읍이 비록 산속의 작은 지세나 산천과 풍물이 다른 정자의 훌륭한 경치에 빠진 바가 없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나의 조부 행은공은 수복 여든 살을 누려도 오히려 건강하고 편안하였고, 일찍이 말하시기를 “이 지경 안의 여러 산에는 모두 나무가 없지만, 혼자 힘으로 우리 마을의 뒷산은 내가 어린 시절에 손수 소나무를 심어서 나와 더불어 수를 함께 하였으니, 지금에 이미 아름드리의 재목을 이루었다. 이것은 진실로 귀한 물건이니,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영구히 후세에 분명하게 전하라”고 하였음을 일찍이 이미 명을 들었다고 하였다.

지금 삼수원은 한 경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역이 되며, 또 읍내의 변창한 곳으로 읍에 사는 선비들이라면 한 번쯤 올라가서 소요자적 하지 않은 이가 없었으니, 만약 이 재목으로써 하나의 정자를 짓는다면 한갓 풍치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이 정자에 오르는 사람들 이 누가 함께 아끼고 보호하여 하여금 영원히 전하지 아니하리오. 이에 을축년 가을에 그 재목을 베어서 기와집 10동 여섯 칸을 짓기 시작한지 몇 달 안 되어 낙성을 하였다. 창문은 사방으로 열렸고, 굽이치는 연덕은 그늘을 만들어 주고 바람과 달빛이 맑고 밝아서 전날의 보던 바가 아니었다.

대개 임상호가 이 정자를 지은 것은 한편으로는 뜻을 공익사업에 둔 것이고, 한편으로는 할아버지의 유훈을 받들어 귀한 물건으로 하여 세상에 오래 전하도록 하여, 정자를 지어 행은이라고 이름을 걸었다. 또한 그 할아버지가 손수 나무를 심은 것으로써 능히 화려한 아름다움을 이룬 것을 기념하고자 한 것이라 하니, 행은은 그 할아버지 학관 석진의 호이다.

13. 소강정⁴⁾

- 1). 정자의 이름 : 소강정(小江亭)
- 2). 위치 : 충북 진천군 진천읍 신정리 8-1 일원

4) 세금천의 하류 남쪽 언덕 위에 자리하였다. 거리는 군의 동쪽으로 25정이고, 전설에 약천(藥泉) 남구 만(南九萬)이 세운 것이라고 하는데, 근거는 없고 다만 터만 남아 있고 전함.

- 3). 건립자 : 남구만(남구만 1629~1711)
- 4). 건립연대 : 미상
- 5). 현존여부 : 부

III. 그 외 누정

상기 기술한 이외에 문헌 기록⁵⁾으로만 남아 있는 누정은 4개소로 내용만 발췌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취선당(醉仙堂) : 정미년(丁未年) 전쟁의 화재로 모두 불타버렸다.
2. 여심루(如心樓) : 옛날 군의 관아 밖에 있던 삼문 충루로 정미년(丁未年) 전쟁의 화재로 모두 불타버렸고, 편액은 아직도 군청에 보존되어 있다.
3. 상산관(常山館) : 옛날 객사로 지금의 군청이다.
4. 봉암정사(鳳岩精舍) : 환희봉(歡喜峰) 남쪽 봉암산 아래에 자리하였는데, 거리는 군의 남쪽으로 2리이고, 자의(諮詢) 봉암(鳳岩) 채지홍(蔡之洪)이 세운 것이다.

참고자료

百源亭記 현판

鎮川郡誌編纂委員會, 『鎮川郡誌』, 상당출판사, 1974.

鎮川郡誌編纂委員會, 『鎮川郡誌』, 미진문화사, 1994.

진천군, 『내고장전통가꾸기』, 충청출판사, 1982.

진천군, 『내고장전통가꾸기』, 대명사, 1999.

鎮川常山古蹟會, 『鎮川郡邑誌』, 修書院, 1994.

常山古蹟會, 『國譯 常山誌』, 修書院, 2002.

5) 『國譯 常山誌』, 亭榭條

청주·청원의 누정

서원향토사연구회 김형래

1. 청주지역의 누정

1. 정자현황

청주지역에는 그 지역적 특색 때문에 많은 정자가 존재해 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전국의 누정 수가 885개로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충청도에 80개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1929년에 편찬된 「조선환여승람」에 따르면 충청도에 219개의 정자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근대화과정에서 자연경관의 파괴로 그 입지적 가치를 잃었고, 또한 관리소홀로 많은 정자들이 소실되어 이제는 과거의 명성을 찾아볼 수 있는 정자가 손가락으로 해아릴 정도이다.

충청도 양반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청주지역에는 상당한 수의 정자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현재 온전하게 전하는 것은 표 2와 같다.

표 14. 청주지역의 정자건축 현황

명 칭	소 재 지	인 물(문중)	건립연대		비 고
			창 건	중 건	
무농정	청주시 방서동 210-4	한란(청주)	고려초	1988	
추월정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이득윤(경주)	1609	1898	
세심정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윤승임(파평)	1646	1867	
관란정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송병이(은진)	1926	-	
백석정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신교(고령)	1677	1927	
함벽정	청원군 미원면 운교리	신종흡(고령)	1630	1966	
지선정	청원군 현도면 중척리	오명립(보성)	1610	1879	충북 유형문화재 제111호
월송정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오유립(보성)	1613	1802	
낙건정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난국계	1926	-	
인지정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인지계	1959	-	
동고정	청원군 오창읍 가곡리	이영길(전의)	1612	1950	
만경정	청원군 미원면 옥화리	윤사석(파평)	연산군때	1989	

1) 무농정

무농정은 청주시내에서 보은 쪽으로 가다 시가지가 끝나는 곳인 방서사거리의 왼쪽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무농정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되어 숲이 우거지고, 앞으로는 무심천과 용평뜰이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이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원래 무농정은 청주 한씨의 시조인 한란韓蘭이 농사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은 정자이다. 전국의 수많은 정자가 인문분야 글공부를 위한 후학 양성에 치중한데 비해 유독 무농정은 일반 백성을 대상으로 농사짓는 방법을 가르치던 곳이니 학파로 따지면 실학實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란은 충북 영동군 황간면 난곡리에서 아버지 한지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영동에서 지방학교를 세워 교육에 노력하였으며, 40세 무렵에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으로 이주하였다. 그가 영동에서 청주로 어떠한 이유로 이주하게 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아마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고 북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오자 이를 피해 청주로 이주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뒤 궁예의 후고구려 세력 아래 놓여 있다가 태조가 즉위하자 고려에 귀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란은 새로 이주한 방서동에서 우물을 파서 식수로 사용하고 마을에 무농정務農亭을 짓고 인근의 넓은 농토를 개척하여 부호가 되었다. 청주의 유력한 호족으로 성장한 한란은 왕건의 군대에 군량을 대고 또한 종군하여 큰 전공을 세워 후삼국 통일 후 개국벽상공신이 되었고 벼슬이 삼중대광泰位에 이르렀다고 한다. 삼중대광三重大匡은 고려 초 관계官階에서 1등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의 무농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이다. 건물구조는 1단의 낮은 장대석 기단 위에 사다리꼴로 가공된 사각초석을 놓고, 그 위에 배흘림이 있는 월기등을 세웠다. 공포는 내부에는 출목이 없고 외부에는 1출목의 간결한 주심포 양식으로 하였는데, 익공의 쇠서는 길게 뻗어 나왔으나 기본적인 가구수법은 고려시대 목조건축형식을 모방하여 결구하였다. 가구형식은 무고주 5량가이며, 파현대공이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내부는 우물마루로 하여 계자난간을 들렸으며, 건물 중앙에 후손 한기근韓沂根이 쓴 편액을 달았다. 건물은 서향西向하고 있는데, 정면 입구에는 일각대문을 세웠고, 사방 주위에는 막돌담장을 두르고 기와를 얹었다.



무농정 전경

오랜 세월이 지나 허물어져 옛터만 남아 있던 것을 1949년에 후손들이 중건하였으나, 한국전쟁 때 다시 소실된 것을 1988년에 복원하였다.

무농정은 한란의 교육열과 후삼국의 풍운을 담고 있는 역사적 장소로서의 가치가 큰 곳이다.

2) 추월정

추월정은 청원군 미원면 옥화대 玉華臺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언덕 밑으로 흐르는 박대천이 소沼를 이루어 달빛을 투영하고, 주위로는 울창한 송림이 펼쳐져 있어 정자건축의 입지로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 남송의 대유학자 주자 朱子의 시
'재거감홍齋居感興' 중 한 구절인 '공손히
생각하니 천년을 이어온 성인의 마음은'

가을 달빛이 차가운 물에 비출이로다.(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에서 따온 정자의 이름은 '옛 성인의 마음이 가을 달빛이 비치는 차고 맑은 물과 같다.'는 속뜻이 숨어 있으니 서정스러운 경지를 느끼게 한다. 즉, 가을 달은 맑고 투명하고 흠이 없듯이, 가을달이 풍기는 의상 意象과 같은 인품을 도야하여 성인의 뒤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이 정자에 담은 것이다.

추월정은 광해군 1년(1609)에 서계 西溪 이득윤 李得胤(1553~1630)이 벼슬을 버리고 돌아와 세운 정자이다.

이득윤은 고려말 학자 이세현의 후손으로 유학자 서기 徐起의 문하에서 수학한 뒤 박지 화朴枝華에게 역학 易學을 배우고, 선조 21년(1588)에 진사가 되었다.

학행이 뛰어나 선조의 아낌을 받아 공조좌랑, 형조좌랑, 괴산군수를 지냈고 통정대부 당상관에 올랐다.

광해군 때 혼란한 정계를 피하여 고향에 머무르면서 김장생 金長生·정두원 鄭斗源 등과 서한을 교환하며 역학과 음악을 토론하였다. 음악에 남다른 관심을 두어 고향에 머무르는 동안에 거문고에 관련된 기록을 모아 『현금동문유기 玄琴東文類記』라는 귀한 거문고 악보를 남겼는데 이는 한국음악학계의 주목받는 저술이다.

이득윤은 낭성팔현 琅城八賢의 한 사람이고, 신항서원의 창립멤버이며, 그 서원의 원장을



추월정 전경

맡았으며, 그곳에 배향되었다. 그러한 행적으로 보아 그는 당시 청주지역을 이끈 중요한 인물 가운데 가장 중심에 우뚝 서있던 학자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낙향 후, 주로 지금의 청원군 미원면 가양리 수락동에 거주하면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승지를 둘러보고 ‘서계구곡’, ‘옥화구곡’을 설정하였다.

옥화구곡은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에서 어암리에 이르는 계곡, 산, 기암괴석, 숲으로 이루어진 10km 구간을 말하는데, 달천 상류인 박대천을 따라 청석굴, 용소, 천경대, 옥화대, 금봉, 금관숲, 가마소뿔, 신선봉, 박대소 등이 펼쳐져 있다.

추월정이 위치하고 있는 옥화대는 들판에 옥처럼 펼어져 있다하여 옥화대라 이름 지었으며 지조 있는 선비들이 아끼던 장소로 옥화9경 중에서 대표적인 절경으로 꼽하고 있는 곳이다.

이득윤이 이곳에 정자를 짓고 주변 경승을 시가로 노래한 것은 중국 송나라의 학자 주자의 행적을 본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성리학의 철학체계를 일으켜 세운 주자는 만년에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무이산에 들어가 무이정사를 짓고 은거하면서 무이구곡이라는 아홉 구비 경승지를 찾아 무이구곡가를 지었다. 주자가 은거하면 무이구곡은 일찍부터 조선 선비들의 흠토의 대상이 되었다.

16세기에 조선의 선비들은 주자로 대표되는 성리학을 깊이 탐구하고 성리학을 삶의 모든 전개로 삼았다. 주자의 행적이 하나의 모범이 되었다. 만년에 자연으로 돌아가 무이정사를 짓고 주변경치를 노래하며 자연과 동화되는 모습을 하나의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비록 무이구곡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무이구곡의 경치를 그린 그림을 통해 상상력을 키웠다. 나아가 조선의 땅에서 무이구곡과 비슷한 구곡의 세계를 만들어냈다. 율곡 이이는 해주의 은거지에 고산구곡을 열었고 한강 정구는 성주 서쪽 긴 계곡에 무흘구곡을 꾸몄다. 그 전통은 17세기로 이어져 송시열의 화양구곡이나 김수증의 곡운구곡으로 이어졌다. 구곡의 아홉구비 경승지마다 각각의 이름이 정해지고 이를 노래한 시가 지어졌다. 아홉구비 중에 적당한 곳에는 자신이 거처할 정사나 서재를 마련했다. 이렇게 자연에 이름을 붙이고 시를 짓고 그 안에 머무는 과정에서 조선선비들의 독특한 자연관과 건축관이 형성될 수 있었다.

현재의 추월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이다. 전물구조는 콘크리트 기단 위에 화강석으로 다듬은 원형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기둥을 세웠다.

평면구성은 내부공간을 두 부분으로 구획하여 공간내의 위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부바닥은 전체적으로 우물마루를 깔았으나 내진부분은 4개의 네모기둥으로 구획하고 외진부분보다 한 단 높게 하였다. 가구형식은 무고주 5량가이며, 측면 가운데 기둥에 충량

을 설치하였다.

추월정은 건축의 세부는 훌륭하다고 볼 수 없지만 당시 사대부들의 자연관과 더불어 자연을 인공과 결합시키는 조원수법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자 앞으로 흐르는 맑은 물소리, 아름다운 자연의 기화요초琪花瑤草, 밝은 달빛을 투영하는 거울 같은 강물, 이러한 환경이 가히 낙향한 사대부가 소요할 만한 이상향의 세계가 아닌가 싶다.

3) 세심정

세심정은 청원군 미월면 옥화대玉華臺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언덕 밑으로 깊지도 않고 얕지도 않은 물이 흐르고 깎아지른 절벽이 높이 서 있으며, 주위로 고목이 무성하여 정자건축의 입지로서는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변에는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세심정 외에도 가을 달을 맑은 청명한 추월정秋月亭, 세상 모든 경치를 볼 수 있다는 만경정萬景亭 등의 정자를 지어놓고 후학을 위해 견립한

옥화서원玉華書院이 자리 잡고 있어 그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세심정 전경

세심정은 인조 24년(1646)에 주일재主一齋 윤승임尹承任(1603~1687)이 세운 정자이다.

윤승임은 윤사석의 6대손이며, 추월정을 지은 서계 이득윤의 문생이다. 평생 벼슬을 단념하고 스승인 서계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며 은일하였다. 윤사석은 성종 때 사헌부집의를 지냈으나 연산군 때 거듭되는 사화로 현인군자들이 희생되는 것을 보고 벼슬을 버리고 이곳으로 낙향하여 만경정을 짓고 만년을 은일한 인물이다.

정자의 이름인 세심洗心은 허물을 고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즉 마음을 깨끗이 하려는 마음을 갖자는 뜻을 담은 정자이다.

현재의 세심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바,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이다. 콘크리트 기단 위에 2자 정도 높이의 8각 장초석을 놓은 다음 팔각기둥을 세웠다. 초석 하부는 거칠게 치석하여 둥그런 받침보양을 하고 있으며, 초석이 높게 올라오는 바람에 마루바닥은 초석에 끼워지게 되었다. 마루는 우물마루로 되어 있으며,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 된 연등천장이다. 가구형식은 내부 전면에 퇴칸을 두고, 퇴칸 기둥위에 각형의 동자기둥을 올려 고주처럼 사용한 1고주 5방가이다. 또한 측면 가구짜임은 북측은 중량을 설치하였으나, 남측은 퇴보를 걸어 형식을 달리하였다. 이 건물은 창방 위에 소로를 두고 도리장여를 받치고 있는 소

로수장집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 허물어져 옛터만 남아 있던 것을 1867년에 후손들이 중건하였으며, 1966년에 중수하였다.

세심정은 박대천과 주위로 넓은 들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언덕에 위치한 아담하고 조출한 정자건축이다.

4) 관란정

관란정은 청원군 미원면 운암리 송호마을 입구 개울가에 서남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앞으로 감천甘川이 흐르고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다.

관란觀瀾은 『맹자孟子』 진심장구 상권 24장에 ‘물을 보는 데에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그 흐름을 보아야 한다. 흐르는 물은 웅덩이가 차지 않으면 흘러가지 않으니, 군자가 도를 뜻함에 문장을 이루지 않으면 통달하지 않는다.’ 하였다. 즉 나를 닦고 수양하는 일련의 생활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수水의 요소에서 찾고자 하였으며 물을 보면서 자기반성, 수양을 하는 도구로서 삼았던 것이다.

관란정은 대한제국 때 비서승秘書丞을 지낸 송재松齋 송병이宋秉彝(1866~1934)가 세운 정자이다.

현재의 관란정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쳐마,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되어 있다. 건물구조는 1m 정도 쌓은 석축위에 콘크리트 기단을 설치하고 그 위에 원형초석을 놓은 다음 원형기둥을 세웠다.

평면구성은 내부공간을 두 부분으로 구획하여 공간내의 위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원기둥으로 구획된 외진 부분은 바닥을 콘크리트로 마감하였으며, 이 보다 한단 높은 내진 부분은 4개의 각형기둥으로 구획하고 바닥에 마루를 깔았다. 가구형식은 2고주 5량이며, 창방 위에 소로를 두고 도리장여를 받치고 있는 소로수장집이다.



관란정 전경

5) 백석정

백석정은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 감천甘川가에 북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뒤로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져 있고 앞은 흐르는 맑은 물을 바라볼 수 있어 자연과의 교환交歡 속에 시를 짓거나 휴식하기에 적합한 곳이다. 정자 이름은 물가에 기묘하게 돌출한 흰 바위에서 유래한다.



백석정 전경

백석정은 동부주부東部主簿를 지낸 백석정 신교申灝(1641~1703)가 조선 숙종 3년(1677)에 세웠다. 신교는 백석정을 짓고 은일하다가, 50세인 1690년에 아우인 만회당 漢暉堂과 월현 협浹이 각각 승지와 정언에 오르자 이에 음직蔭職으로 출사하여 북부참봉北部參奉 등을 지내고 61세경 고향으로 돌아왔다. 저서인 『마사초馬史抄』에 한시뿐만 아니라 가사와 시조 작품을 남겼는데, 이는 국문학사에 귀한 자료들이다.

청주에서 32번 국도를 따라 미원으로 가다가 관정마을 앞 도로를 따라 마을 끝자락 산을 돌아가면 백석정이 있다. 건물로의 진입은 절벽 사이의 좁은 길을 따라 약 10m 정도 들어가면 있는 작은 일각대문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본래의 건물은 중간에 퇴락하여 없어지고 현재의 백석정은 1927년에 후손들이 현 위치에 중건한 것이다.

현재의 백석정은 정면 2칸, 측면 1칸의 흙처마,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되어 있다. 건물구조는 1단의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모죽인 각형 기등을 세웠다. 배면 가운데 기등을 다듬지 않고 자연 그대로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이는 인공적인 건축물은 곧 자연의 일부이며, 확장이라는 조영자의 자연주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이다. 내부 바닥은 장마루를 깔았으며, 누마루 주위로는 남측은 머름난간, 나머지 삼면은 통머름난간을 설치하였다. 천장의 중도리 부분은 판반자를 설치하고, 중도리와 처마도리 사이는 서까래가 노출 된 연등천장으로 하였다. 가구형식은 5량가이며, 도리 및 장여 밑에 소로를 받쳐서 장식한 소로수장집이다.

백석정은 건축 자체는 뛰어나다고 볼 수 없으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잘 이용한 전형적인 풍류관방을 위해 지어진 정자이다.

6) 함벽정

함벽정은 청원군 미원면 운교리 구룡

천九龍川가 산 중턱에 북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정자 아래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주위에는 숲이 어우러져 있으며, 앞으로는 주변의 농지가 한눈에 들어와 전형적인 풍류 관망을 위해 지은 정자이다.

함벽정은 함벽涵碧 신중흡申仲洽

(1560~1634)이 인조 8년(1630)에 구룡천

개울가에 세웠던 모정茅亭에서 유래한다. 신중흡은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五衛에 있던 정 6품 무관직인 사과司果를 지냈다. 후손들이 1966년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정자 이름은 그의 호에서 유래한다.



함벽정 전경

현재의 함벽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쳐마,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되어 있다.

건물구조는 별도의 기단 없이 지반을 단단하게 다진 후 원형의 콘크리트 초석을 놓고 그 위에 기둥을 세웠다. 기둥은 전면은 원형기둥을 세웠으나, 후면은 각형기둥을 세웠다. 바닥에서 2자 정도 높여 우불마루를 깔고 마루 주변에는 마루 주변에는 평난간을 설치하였다. 천장은 서까래를 노출시킨 연등천장으로 하였다.

가구형식은 무고주 5량집으로 하였는데, 대들보 양쪽에 동자대공 없이 종량을 겹쳐 얹고 바로 종도리를 올렸다. 측면 가운데 기둥에서는 동축은 황룡, 서축은 청룡이 여의주를 불고 힘차게 날아오르면서 대들보를 받치고 있다.

공포는 무출목 이익공으로 2개의 제공 위아래에는 연화와 당초문을 그려 넣었으며, 귀포의 이익공 위에서는 도리의 뺨복 끝에 봉황머리를 조각하여 장식을 했다. 각 칸의 창방과 장여 사이 중앙에도 봉황머리를 조각하여 끼워 장식을 더했다. 봉황머리 좌우로는 작은 소로를 1~2개씩 끼워두었으며, 장여 위에는 공글린 납도리를 올렸다.

함벽정은 선조의 뜻을 받들기 위해 후손들이 중건한 건물로 초창 때의 것은 아니지만 전망이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의장적 장식성을 표현하려는 장인의 솜씨가 곳곳에 배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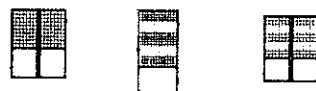
7) 지선정

지선정은 청원군 현도면 중척리 강정
江亭마을 뒷산에 동향하여 위치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11호이다. 강정마을은 중척리 중앙에 있는 마을로, 마을이름도 ‘강가에 있는 정자’라는 뜻으로 ‘지선정」善亭」에서 유래한다. 정자 주위에는 느티나무 노기수를 비롯하여 숲이 어우러져 있으며, 앞으로는 마을이 내려다보이고 뒤로는 넓은 농경지가 펼쳐지다가 금강과 맞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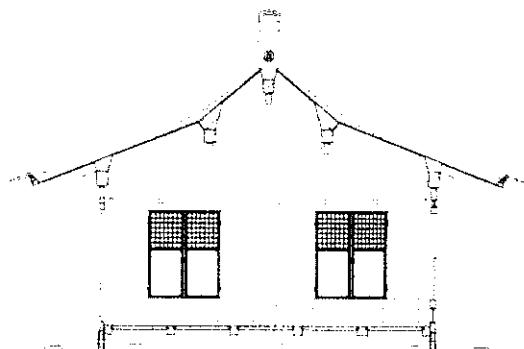
지선정은 광해군 2년(1610)에 지선
善 오명립吳名立(1562~1633)이 세운 정자이다.

조선조 500년을 지탱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중요한 하나는 초야에 물힌 선비들의 대쪽 같은 올곧음의 지조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옛 사람들의 학문은 자신의 십성을 갈고 닦아 덕성을 완성함에 전력함으로써 남을 교화시키는 길과 오직 자신의 출세만을 위하여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는 두 가지 길이 있었다. 「논어」에는 전자를 '위기지학爲己之學', 후자를 '위인자학爲人之學'이라고 하였다. 고인들은 자신의 영달을 위하여 과거 공부에 자신의 인생을 걸기도 했지만, 학문의 본질이 과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으면 즉시 초야로 돌아와 주경야독書耕夜讀하면서 자신의 완성과 후진양성에 혼신의 힘을 쏟았다. 위기지학에 몰두한 선비들은 시대의 정신을 이끄는 사표였다. 상소를 올려 임금을 나무라거나 국정에 대한 타개책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관리들을 질책하면서 사회를 정화하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조선중기를 살았던 지선 오명립이 바로 그런 인물이다. 그는 사마시에 합격했지만 광해군의 실정에 벼슬의 뜻을 접고 고향인 현도로 돌아와 후학을 가르치며 일생동안 경학을 실천했다. 지선정은 바로 그가 일생동안 학문과 수양을 하면서, 한 지역사회의 사표역할을 한 본거지였다. ‘지선정’은 그의 호를 따서 붙인 이름이다. 현재의 건물은 1879년 중건하고 1932년에 보수한 것이다.



지선정 입면도



지선정 단면도

건물로의 진입은 남쪽에 설치된 계단을 오르면 있는 작은 일각대문을 통하여 접근할 수 있다. 건물 주위로는 막돌로 쌓은 담장이 둘러쳐져 있다.

현재의 지선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흙처마,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되어 있다. 평면은 남쪽 2칸은 우물마루로 꾸미고, 북쪽 전면 1칸은 문으로 막아 마루방을 만들고 후면 1칸은 단이 높은 마루로 구성하였다. 마루방은 책을 보관하고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료된다.

건물구조는 1단의 낮은 자연석 기단 위에 자연석 초석을 놓고, 그 위에 각형 기둥을 세웠다.

가구형식은 무고주 5량집으로 하였는데, 대들보 양쪽에 동자주를 세우고 종량을 올렸으며, 어간 대들보에서 양측면으로 충량을 걸어두었다. 천장은 서까래를 노출시킨 연등천장으로 하였다.

내청의 각 칸 창호는 문짝의 아래쪽에 궁창널을 높게 댄 세살문, 정자살문을 달고 창호 하단에 머름을 설치하였으며, 마루방에는 세살문을 달고 머름은 설치하지 않았다. 마루주변 벽체는 널을 붙인 판벽으로 하였으며, 마루방은 회벽으로 마감되어 있어서 외관상 마루와 방을 알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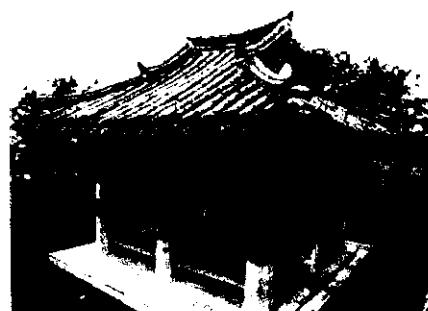
지선정은 풍류 관망 기능과는 달리 독서와 휴식을 겸한 강학의 성격을 띤 별서 건축이다. 현재 건물에 여러 인사들의 시문 현판이 걸려 있어 그런 정황을 엿볼 수 있다. 여러 차례의 중건, 중수과정을 거쳤지만 비교적 건립연대가 오래 되었고 주위에 느티나무 노거수가 있어 주변경관이 아름답다.

또한 지선정에서 내려다보이는 금강과 주변의 넓은 평야는 보는 이의 마음을 풍요롭고 온화하게 만들어주는 듯한 느낌을 준다.

8) 월송정

월송정은 청원군 현도면 시목리 새터말 서쪽 야산(79m) 위에 남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정자 서쪽에 인접하여 금강이 흐르고 주위로는 송림이 우거져 있으며, 주변의 벌판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곳에 세워져 경관이 수려하다.

월송정은 광해군 5년(1613)에 월송月松 오유립吳裕立(1575~1658)이 세운 정자이다.



월송정 전경

오유립은 학식과 문장이 탁월하였으나 광해군의 실정에 벼슬길을 단념하고 고향인 이곳에 월송정을 짓고 은거하면서 후학을 가르치고 향풍鄉風을 진작시켰다. 이곳으로부터 남쪽

으로 약 2km 정도 떨어져 족형族兄 오명립이 지은 지선정이 위치하고 있는데, 오유립은 이곳에서 강변을 따라 오명립과 왕래하면서 심회心懷를 다스렸다.

현재의 월송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되어 있다.

건물구조는 낮은 장대석 기단 위에 8각의 장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기등을 세웠다. 초석은 민흘림을 두었는데, 초석이 높게 올라오는 바람에 마루바닥은 초석에 끼워지게 되었다. 가구형식은 4면 가운데 기둥 위에十字로 장통보를 걸고 장통보 상부 양쪽에 대공을 세우고 ‘정井’ 자로 중도리를 걸었다. 중도리 위로는 우물반자를 만들고 반자 주변은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켜 연등천장이 되게 하였다.

공포는 기둥 위는 이익공, 기둥 사이는 초익공 형식으로 하였는데, 제공 위아래에는 활짝 편 연화와 연봉을 조각하였으며, 이익공 위에서는 도리의 뺄목 끝에 봉황머리를 조각하여 장식을 더했다.

정면을 제외한 3면의 중인방 위로는 홍살을 설치하였으며, 내부에는 정조 3년(1779)에 성담性潭 송환기宋煥箕가 쓴 “한수추월寒水秋月 대동정송大冬挺松” 이란 현판과 고종 19년(1882)에 임재丘齋 송근수宋近洙가 쓴 중수기가 걸려 있다. 그리고 정자의 오른쪽에는 1985년에 성균관장成均館長 성낙서成樂緒가 짓고 운곡雲谷 김동연金東淵이 쓴 “월송정유적비月松亭遺蹟碑” 가 있다.

1982년에 마당 앞에 일각문을 세우고 사과석으로 높게 담장을 둘러 현재는 개방감 있는 정자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 정자는 건축의 세부는 훌륭하다고 볼 수 없지만, 금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의 송림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또한 주변의 벌판을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어 강학講學 시회詩會의 기능 외에도 전망을 즐길 수 있는 위치적인 특성이 있다. 정자가 위치하고 있는 현도면은 보성 오씨 집성촌인데, 이 정자는 문중 사람들의 휴식과 만남의 장이라는 공간적 배개체로서의 기능도 하였다고 전해진다.

9) 낙건정

낙건정은 강의면 소재지인 오송의 북쪽, 옥산-조치원 옛길인 508번 지방도를 약 2.5km 정도 따라 가다보면 돌다리못 저수지가 나온다. 이 저수지 남쪽에 조그만 동산이 있고 그 언덕 위에 북동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넓은 지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위치적인 특성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주변은 오송택지개발지구로 개발되어 모두 평탄지로 변해버려 주변경관을 고려한 정자의 입지환경은 물론이거니와 한국건축의 고유한 정체성까

지 사라지고 말았다.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과 같아 최근에 있었던 엄청난 변화이다.

낙건정은 조선후기에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 송정해朴廷灝, 박정룡朴廷龍 등이 시사詩社로 조직하였던 백련사白蓮社의 상부상조相扶相助와 예속상교禮俗相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임오군란壬午軍亂, 갑신정변甲申政變 등 정변을 겪은 후 이 지역 유지 45인이 보여 난국계蘭菊契를 조직하고 그 모임의 장소로 건립한 정자이다. 정자의 이름은 백련사 때는 약정約亭이라 하였다가 난국계의 결성시에는 난국정蘭菊亭이라 하였고, 1926년에 퇴락한 정자를 박준학朴準學, 박영래朴泳來 등 기노회원耆老會員 45명이 약정約亭을 계승하여 다시 세우면서 낙건정樂健亭이라 하였다. 이 정자는 1954년, 1983년 그리고 1990년 보수하였다.

현재의 낙건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홀처마,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되어 있다.

건물구조는 낮은 장대석 기단 위에 각형의 장초석을 놓고 그 위에 각형기둥을 세웠다. 초석은 민흘림을 두었는데, 하부는 방형의 콘크리트로 받쳤다.

가구형식은 납도리집으로 4면 가운데 기둥 위에十字로 장통보를 걸고 장통보 상부 양쪽에 대공을 세우고 ‘정井’ 자로 중도리를 걸었다. 천장은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켜 연등천장으로 하였다. 내부바닥은 우물마루를 깔고, 마루에는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정면 남쪽 칸에 정자로 오르는 화강석계단을 설치하였다.

주위로 높게 담장을 둘러 현재는 개방감 있는 정자의 모습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도시개발로 인해 역사적 문화환경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건축은 역사성과 장소성이 중요한 환경요소인 만큼 이러한 역사적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전으로서 문화재를 취급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도시의 문화환경으로 취급해야 한다.

낙건정은 최근 택지개발로 인하여 입지의 원형은 완전히 변해버렸으나, 선조들의 상부상조와 예속상교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모임인 '난국계蘭菊契'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늦었지만 인근의 돌다리방죽을 포함하여 주변을 연계하여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보존과 도시환경 정비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낙건정 전경

10) 인지정

인지정은 청원군 강내면 석화리 동림말 북쪽 미호천변에 난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마을에서 강변을 향해 길게 뻗은 산줄기 끝자락의 평坦한 곳에 위치하여 강과 들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미호천변의 아름다운 빛과 바람이 한눈에 들어온다.

인지정은 1959년 인근의 유림들의 모임인 인지계 仁智契에서 세운 정자이다. 원래의 이름은 ‘인산지수정仁山智水亭’인데, 1962년 ‘인지정’으로 바꾸었다.

현재의 인지정은 정면 2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되어 있다. 건불구조는 장대석을 세별로 쌓은 기단 위에 민흘림이 있는 8각의 장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다. 내부바닥은 우물마루를 깔고, 마루에는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정면 동쪽칸에 정자로 오르는 화강석계단을 설치하였다.

가구형식은 4면 가운데 기둥 위에 卍자로 장통보를 걸고 장통보 상부 양쪽에 동자주를 세우고 ‘정丂’ 자로 중도리를 걸었다. 천장은 중도리 위로는 우물반자를 만들고 반자 주변은 서까래를 그대로 노출시켜 연등천장이 되게 하였다. 공포는 이익공 형식으로 하였는데, 각 칸 중앙에는 화반을 설치하였다.

인지정은 건물의 건축적 가치보다도 지역 유림들이 좋은 계절이면 모임을 갖고 시를 짓는 풍류를 즐겼던 장소로서, 또한 마을 주민들이 여름철 강가에 나와 천렵川獵을 즐기던 휴식과 만남의 장이라는 공간적 매개체로서의 기능이 수행되던 이 지역의 대표적 정자라는 데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지정 전경

11) 동고정

동고정은 청원군 오창면 가곡리 동촌부락 오른쪽 언덕에 동남향하여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멀리 금강 상류인 미호천과 마을 진입로를 비롯하여 넓은 지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동고정은 역옹 樂翁 이영길李英吉(1563~1638)이



동고정 전경

세운 정자이다. 이영길은 선조 24년(1591)에 사마시에 합격했지만 광해군 때 과거를 포기하고 은거하며 오로지 인재를 교육함에 힘을 쏟았다. 그리하여 그의 문하에서 큰 선비와 학자가 많이 배출되어 문과에 급제하고 사마시에 합격한 자가 삼십여명 이었다. 지금의 정자는 1950년에 중건하고 1983년에 보수한 것이다.

현재의 동고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겹처마,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되어 있다.

건물구조는 낮은 콘크리트 기단 위에 8각의 장초석을 놓고 그 위에 원형기둥을 세웠다. 각 모서리 추녀에는 활주를 세워 받치고 있는데 활주는 원형의 강재 파이프를 썼다.

내부바닥은 장마루를 깔고, 마루에는 계자난간을 설치하였다. 북측 전면의 내부 1칸에는 목조계단을 두어 2층으로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가구형식은 무고주 5량집으로 하였는데, 대들보 위에 종량을 올리고 종량 위에는 파련대공을 세워 종도리를 받치도록 하였다. 천장은 서까래를 노출시킨 연등천장으로 하였다.

공포는 기둥 위에서는 두공과 창방에 교차되는 두 개의 쇠서로 짜고 기둥 사이에는 창방 위에 화반을 얹어 도리 및 장여를 받게 한 이익공 주삼포형식으로 하였다.

동고정은 보수과정에서 고식古式의 기법이 많이 변형되어 건축사적 가치는 적으나, 청주지역의 여느 정자보다 크고 위치 역시 마을 한가운데 있어 풍경을 완산玩賞하기 위함보다는 문중門中 집회소로 의미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충주의 누정

예성문화연구회 손태진

현존하는 충주의 누정건축에 대해서 개별적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충주지역에 관계된 각종 문헌 기록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지조사 및 마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조사대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실측조사를 한 후 도면화 하고, 원고를 작성하면서 미비한 점은 다시 보충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인 충청북도 충주지역의 『문화유적총람』, 『지정문화재목록』, 『문화유적지도-충주시』, 『충주시지』, 『충주디지털문화대전』 등을 통해 검토하였다. 다만 실측이 어려운 건물은 개괄적인 부분만 조사하여 수록하고자 하였고, 터만 남아 있는 누정건축은 제외하였다. 연구대상 건축은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고 현재의 자료를 정리하고 이해한다는 측면에서 건축물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충주지역으로 한정하고 현존하는 충주지역의 누정건축을 대상으로 한다. 충주지역의 전통 누정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탄금정, 모현정, 청벽정, 모원정, 청금정, 육각정, 열락정, 삼연정, 함월정, 관월정 등을 들 수 있다. 『문화유적분포지도』와 『충주시지』에 나타난 현존하는 누정건축은 충주지역에 9개소가 나타나고 있다. 즉 충주지역의 용관동에 1개소, 칠금동에 2개소, 주덕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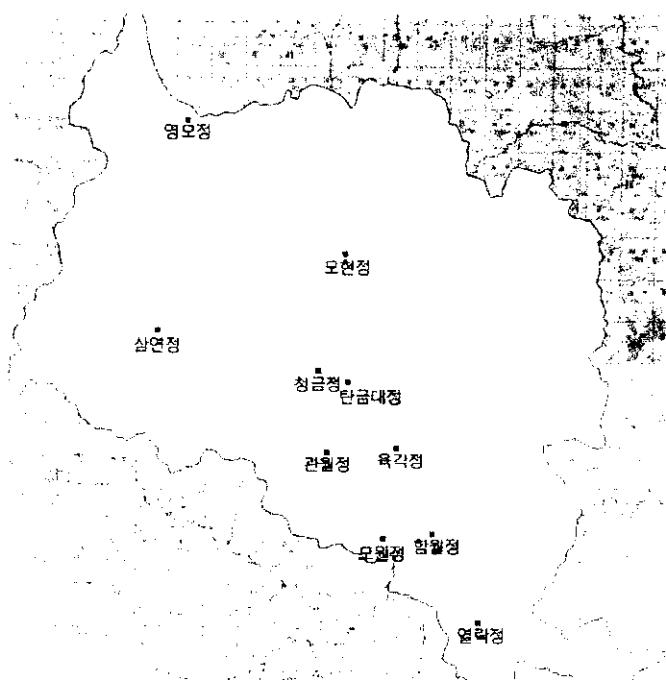


그림 1.충주지역 누정건축 분포도

1개소, 금가면에 1개소, 살미면에 2개소, 상모면에 1개소, 양성면에 1개소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영모정은 현판만 영모정으로 되어 있는 정려이며, 영호정지¹⁾는 터만 남아 있어 제외²⁾하면 총 7개소이다. 그리고 하담서원과 관계된 모현정, 청벽정, 육각정 등을 대상에 포함시켰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누정건축이 존재하였고 존재하지만 현존하는 누정건축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³⁾

조사대상 충주지역 누정건축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충주지역의 누정건축

누정건축명	건립연대	소재지	지정사항
탄금정	근대(1903/1955/1976)	충주시 칠금동 산 1-1번지	비지정
모현정	조선/조선후기(1817)	충주시/금가면 하담리 401-5	비지정
청벽정	1971	이류면 문주리	비지정
모원정	1981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검산	비지정
청금정	1977	충주시 가금면 창동리 산240번지	비지정
육각정	조선후기(1903)	충주시 호암동 호암지동산	비지정
열락정	1601/1935년 재건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오산마을	비지정
삼연정	1930년경	충주시 주덕읍 덕연리 360번지	비지정
함월정	조선/조선후기/1720년 경/1983년 이건	충주시 살미면 무릉리에서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428-1로 이건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87호
관월정	미상	충주시 용관동 산19	비지정

- 1) 영호정지(永湖亭址)는 탄금대와 마주보이는 위치이며 탄금대를 우회하는 지류가 흘렀던 충주시 칠금동 칠지에 위치한다. 건립시기는 1933년이라고 하며 당시에 월립(月笠) 권병섭(權丙燮)이 건립하고 회당(梅堂) 송지헌(宋之憲)이 영호정이라는 현판을 썼다고 한다.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겹쳐마 팔작지붕의 목조건축이었으나 파괴되어 터만 남아 있다.
- 2) 충주시지에 기록된 단월대는 단월동 산 53번지에 위치하며 대림산 서쪽 명당암석 아래에 있는 달천강이 흐르는 단애로 지형의 형상 자체가 갖는 대 자체를 의미하고 있어 누정건축과 구별되어 제외였다. 또한 원형을 파악하지 못한 채 건립된 문루 등도 제외하였다.
- 3) 지형학적으로 수려한 남한강과 산을 끼고 있는 충주에는 충청감영이 있던 충주읍성이나 성곽 그리고 주택 등과 관련된 수많은 정자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자료의 한계로 현존하는 누정건축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음을 밝힌다.

1. 탄금정

탄금정은 충주시 칠금동 산 1-1번지에 소재해 있다. 1955년 당시 읍장이었던 박승두가, 현충주시교육청 위치에 1903년(광무 7) 충청북도 관찰사 김석규가 건립한 육각정(천운정)이 사직산에 이치되어 있음을 보고 이곳으로 옮겨왔는데 1976년에 현재의 탄금정을 세우고 육각정은 1977년에 호암지동산으로 옮겨 복원하였다. 현 건물인 탄금정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콘크리트조 2층 정자로 만들었는데, 1층에는 방형기둥, 2층에는 원형기둥을 세워 초익공 계통의 공포를 구성했다. 기둥 상부 주두 밑에는 조선 중기부터 이용되기 시작한 안초공으로 짜여 있어 특이하며, 창방으로 결구된 주간에는 화반을 1구씩 배치하여 주심도리 장혀를 받치고 있다. 우물천장으로 된 2층에는 난간을 돌려 전망대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붕은 겹치마 사모지붕이다. 탄금대와 남한강의 빼어난 경관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탄금대의 역사를 머금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그림 2. 탄금정 전경

2. 모현정(慕賢亭)

모현정은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 하답리에 위치한 조선 순조 17년(1817)에 창건된 누정이다. 모현정은 순조 17년(1817)에 충주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선비들과 모당 홍이상의 후손인 홍승하(洪承夏), 홍관식(洪寬植) 등 제족들이 선현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하였다고 하고, 청하공 옥보의 5세손인 우기에게 비액을 받아서 완성했다. 남한강변 하답강상인 금가면 하답리 401-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충주시 탄금호 조정지댐을 건너 원주방향으로 하소마을 앞에서 원쪽 길을 따라 600여m 들어가면 남한강변의 하답강을 바라보고 언덕에 위치하여 있다. 순조 17년(1817)에 홍이상의 후손인 홍승하(洪承夏), 홍관식(洪寬植) 등의 제족들과 선비들이 선현을 추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이후 청하공 옥보(淸河公 沃輔)의 5세손인 우기(祐夔)에게 미액(楣額)을 받아서 완성하였다. 현재의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건물은 1974년에 중수된 것이라고 한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복조기와집이다. 구조는 장대석으로 2단 축

조한 기단 위에 원형초석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워 이익공 계통의 공포를 구성하고 있다. 익공의 선단에는 연봉이 조각되었고 창방으로 결구된 주간에는 화반을 1구씩 배치하여 주심도리 장혀를 받치고 있다. 사방으로 풍혈이 있는 머름청판을 댄 난간을 돌렸다. 가구는 전후 평주 위에 대들보를 걸고 동자주를 양측에 세워 종량을 결구하여 뱃목으로 처리하고, 종량 상부에 사다리꼴 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를 받치도록 한 5량가이다. 지붕은 겹쳐마 팔작지붕이고 보현정 현판이 걸려 있다. 모현정은 하강서원과 하강단소와 더불어 유교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남한강변에 자리하여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다. 현재 상태는 양호 하나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원형을 잃고 있다. 그러나 능선 아래에 있는 하강서원과 하강단소가 자리하여 유교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모현정은 하강서원과 하강단소와 더불어 유교적인 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남한강변에 자리하여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다.



그림 3. 모현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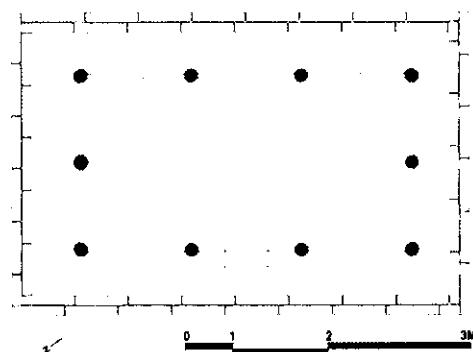


그림 4. 모현정 평면도

3. 청벽정

청벽정은 이류면 문주리에 위치해 달천강 상류인 수주강안에 자리하고 있다. 청벽정은 1971년 4월에 다시 수축한 정자로서 건물의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남향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으로 축조한 기단 위에 시멘트 주초석을 놓고 방형기둥을 세워 난간을 4면에 돌렸다. 가구는 전후 평주 위에 대들보를 결구하고 있는 5량가로 신현국이 쓴 ‘청벽정기’란 글씨가 붙어 있다.

4. 모원정

모원정은 충주시 살미면 토계리 검산에 위치하고 있다. 살미면 토계리 달천변의 칼날처럼 서행한 암산인 팔봉의 허리를 끊어 물길을 낸 서측 봉우리 검산(칼바위) 꼭대기에 자리하고 있다. 송재 이호창이 기문을 지은 편액이 있고, 옆에 은사 이명수옹 선행비가 있다. 1981년 12월 충주시 지현동 374-6번지에 사는 이명수가 관광객의 안식처로 정면 2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의 기와집으로 지은 것이다. 팔봉의 빼어난 경치와 달천강이 어우러진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정자이다.



그림 5. 모원정 전경



그림 6. 모현정 전경

5. 청금정

청금정은 가금면 창동리 산240번지 창동 오층석탑의 동북쪽에 위치한 마애여래상이 있는 작은 동산에 1977년에 건립한 정자이다. 신라 때 악성 우륵이 가야금을 타면 이곳 정자에서 선비들이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청금정이라고 했다고 한다. 원래 청금정은 금강사가 있는 언덕에 있었다고 한다.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의 겹쳐마 팔작지붕이다. 철근콘크리트로와 목재를 사용하여 지었다. 남한강변의 경관을 즐기는 유흥과 이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6. 육각정(六角亭)

육각정은 충청북도 충주시 호암동 호암지 동산에 있는 1903년(조선광무 7)에 건립된 정자이다. 충주시 교육청 위치에 관찰사 김석규가 세운 천운정을 사직산으로 이전하였다가

현재의 위치로 옮겨 복원하였다. 본래는 1903년(조선 광무 7)에 충청북도 관찰사 김석규(金錫圭)가 현재 충주시 교육청 위치에 ‘천광운영 공배회(天光雲影 共徘徊)’라는 의미로 ‘천운정(天雲亭)’이라 명명한 4칸 반의 육각정으로 세운 정자라고 한다. 그 후 1906년(광무 10)에 공립보통학교 건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연못을 메울 때 현판은 일본 사람이 절취하여 가지고 가고 천운정은 사직산으로 이건하였다가 1976년에 지금의 호암지 동산으로 옮겨 1977년에 콘크리트로 복원했다.

육각정은 시멘트 이중기단 위에 주초 없이 철근콘크리트 원형기둥을 세우고 난간을 둘렀다. 기둥머리에는 공포를 생략하고 창방과 평방과 같이 꾸미고 소로와 같은 연결부재를 6기를 놓고 있다. 가구는 우물천장으로 되어 확인하기 어렵다. 지붕은 목조의 홀처마 육모지붕이고 그 위에 절병통을 올리고 있다. 정자에는 모두 단청이 되어 있다. 육각정은 원형대로 복원되지 않고 철근콘크리트로 복원되어 원형을 잃고 있으나 호암지 동산에 자리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로 복원되었지만 충주시내의 호암지 동산에 위치하여 호암지의 경관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정자로서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고 있다.



그림 7. 육각정 전경

7. 열락정

열락정은 상모면 온천리 수안보온천 입구인 오산마을의 일색봉 낮은 산정에 위치해 1601년(선조 34)에 창건된 후 여러 번 증건되었다. 현 건물은 상량문에 의하면 1935년에 다시 건립된 정자이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2칸, 측면 1칸의 마루방 전면에 퇴칸을 만들어 정면 4칸, 측면 3칸의 평면으로 구성하고, 마루방에는 모두 쌍여닫이 띠살문을 달았다. 구조는 자연석으로 쌓은 기단 위에 원뿔형 주초석을 놓고 원형기둥을 세우고, 공포는 간략화 한 1출목을 만들고 창방으로 결구된 주간에 가운데 칸 4기, 양단칸 3기씩의 소로를 놓고 있다. 가구는 5량가이고 홀처마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그림 8. 열락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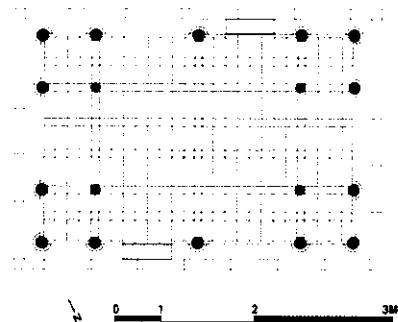


그림 9. 열락정 평면도

8. 삼연정

삼연정은 충주시 주덕읍 덕연리 360번지에 위치해 조선시대 1859년(철종 10)에 이연은이 서당을 설립했던 장소에 1930년경에 30여명의 제자들이 스승의 공적을 추모하기 위하여 창건한 후 그의 호를 따서 삼연정이라고 하였다. 1944년과 1964년 2차에 걸쳐 보수한 팔각정이다. 구조는 2단의 콘크리트 기단 위에 원형기둥을 세우고 기둥에는 화려한 낙양을 장식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공포는 약식화 된 이익공 계통으로 퇴화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 창방으로 결구된 주간에는 화반 1구씩을 배치하여 주심도리 장혀를 받쳤다. 내부는 우물천장이고 지붕은 겹치마 팔모지붕 위에 절병통을 올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화려한 단청을 하고 있다. 내부에는 삼연정중수기, 동문계서, 동문생성명 등의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서당과 관련된 문화활동을 하였던 곳으로 보이며 휴식을 취하면서 트인 주변의 경관과 잘 어우러진 정자문화를 볼 수 있다.



그림 10. 삼연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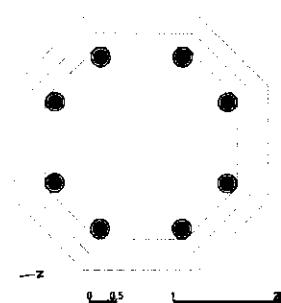


그림 11. 삼연정 평면도

9. 함월정(涵月亭)

함월정은 충청북도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에 위치한 함월 최옹성 선생이 살던 최함월고택 앞에 1720년경 지어진 정자이다. 최함월고택은 조선 숙종(1674~1720) 때의 문장가이며 수암 권상하 문하인인 최옹성의 생가로서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 87호로 지정되어 있다. 최함월고택 앞에 지어진 정자인 함월정은 1720년경 지은 것이라고 하며 수암 권상하가 찬하고 최옹성의 호를 따서 정자 이름을 ‘함월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본래 충주시 살미면 무릉리에 있었으나 충주댐 건설로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 현 위치에 최함월고택과 함께 이건복원되었다. 충주에서 수안보로 가는 3번 도로를 따라 36번 도로가 갈라지는 삼거리에서 400여m를 가면 왼쪽 장목등 산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함월정은 충주댐 수몰지역인 살미면 무릉리에 조선 후기에 지어진 최옹성이 거처하던 최함월고택과 함께 소재하였던 것을 1983년에 지금의 살미면 용천리로 이건 복원되었다. 조선 후기 숙종 때의 문장가이며 수암 권상하 문하인 최옹성이 1720년경 정자를 지은 것이라고 하며 권상하가 찬하고 최옹성의 호를 따서 ‘함월정’이라 하였다고 한다. 또한 1874년 (고종 11)에는 권상하와 최옹성을 향사하고 있는 무릉사를 지었다고 한다. 그 후 충주댐 건설로 수몰지역에 포함되어 1983년에 충주시 살미면 용천리로 옮겨 최함월고택과 함께 현 소재지로 이건 복원되었다.

함월정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목조기와로 되어 있다. 건물 내부에 가로·세로 1칸씩의 온돌방을 만들고 그 사면에 반 칸씩의 전퇴를 두고 있다. 후면 퇴칸 하부에는 온돌아궁이의 함실을 만들고 높은 마루를 설치하고 있다. 정면과 측면 그리고 후면 한 칸에 평난간을 설치하고 있다. 온돌방의 전면과 측면에는 들어열개 네짝 띠살문을 설치하고 있다. 구조는 자연석으로 기단을 한단으로 축조하여 원형대좌 위에 높은 원형주좌의 주초석과 높은 네모뿔 주초석을 혼합해 놓고 그 위에 방주를 세우고 있다. 기둥머리에는 장혁 받친 보와 도리를 뺏고 윗부분으로 처리하고 있다. 가구는 전후 평주 사이에 내고주를 세워 종보와 퇴량을 결구하고 종보 위에 사다리꼴 대공을 설치하여 종도리를 받치고 있는 5량가이다. 지붕은 흙처마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함월정에는 석파(石坡; 홍선대원군 이하옹)가 쓴 횡서 ‘함월정’ 현판과 추사 김정희의 낙관이 있는 ‘연무(年武)’ 횡서 현판이 보존되고 있다고 한다. 함월정 주위에는 자연석축을 쌓아 연못을 만들고 가운데에는 원형의 섬을 두고 있다. 함월정 뒤의 최함월고택은 그자형의 안채를 중심으로 전면에 그자형의 행랑채가 있고 왼쪽에는 서재로 사용하던 염선재가 있으며 오른쪽에는 그자형의 창고가 있다. 그리고 함월정의 동쪽 후면에는 권상하와 최옹성을 향사하는 무릉사가 위치해 있다.



그림 12. 함월정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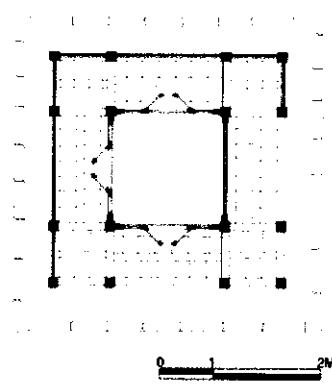


그림 13. 함월정 평면도

최함월고택의 정자로 원래의 자리에 있었으면 주변에 정자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음 주거건축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위치로 자리를 옮겨 장소성을 잃고 있으나 정자로서는 비교적 격식이 있고 최함월고택과 더불어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10. 관월정

관월정은 충주시 용관동 산19번지에 위치해 있다. 시대는 미상이다. 두담에서 벌미로 모퉁이를 돌면 관음사 못 미쳐 약 50m 지점의 도로 북쪽에 시멘트 축대 위에 시멘트로 정면 1칸, 측면 1칸의 사각와가로 되어 있다. 1972년 4월 3일, 약남노인동약회의 임한식 외 50명의 명단과 1990년 5월 13일 약남도약회 제2세로 김연중 외 33인의 명단, 1993년 11월 7일의 관월정 이전신축협찬자 명단이 있다. 1993년 장수창이 토지 4평, 이후 병인 3평을 기증하여 이전 신축하였다.



그림 14. 관월정 전경

충북학자료집 제17집
2010 충북의 누정

2010년 12월 25일 인쇄

2010년 12월 30일 발행

편집 및 발행처 : (사)충북향토문화연구소

인쇄처 : 이에스 T.043-279-7070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832

이 책은 충청북도의 지원금으로 간행되었음.

